성북구 역사문화산책 2

미아리고개

01 1장.indd 1 2015-05-08 오전 11:36:52

미아리고개

기　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집　필 | 박수진 · 백외준(성북문화원)
　　위가야(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김희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박사수료)
　　차현주(한성대 역사문화학부 석사수료)
　　이승준(한성대 한국어문학부 4학년)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표지 디자인 | 박지은
내지 디자인 | 권이지
펴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4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은 2014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1 1장.indd 2 2015-05-08 오전 11:3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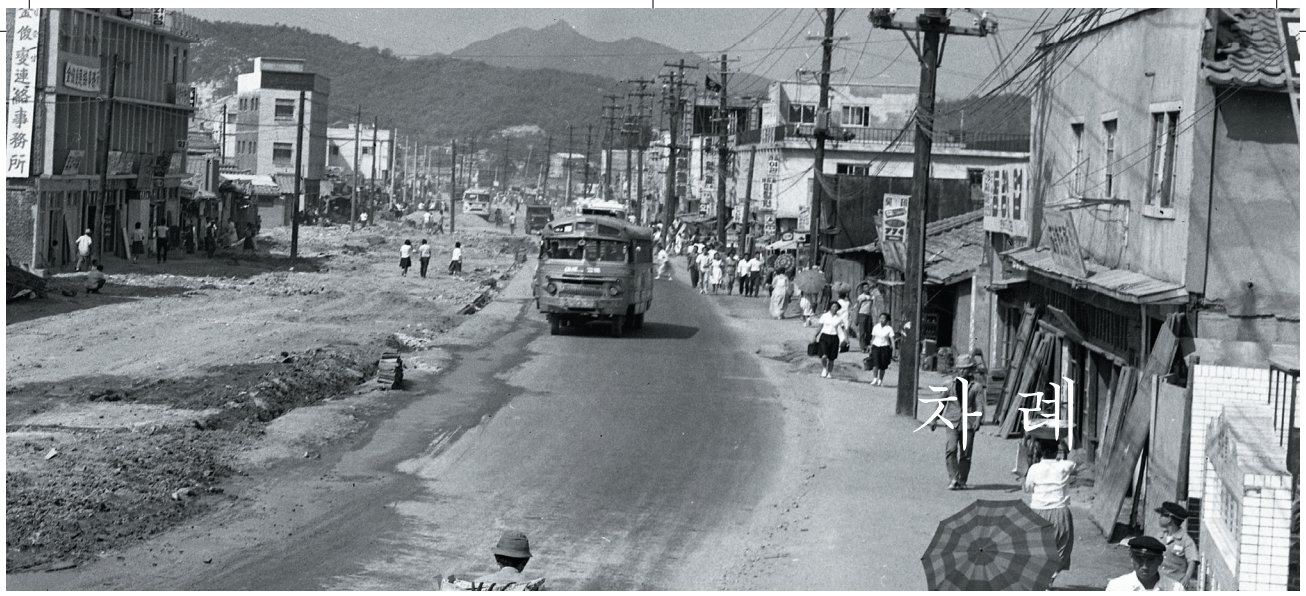
성북구 역사문화산책 2

미아리고개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01 1장.indd 3 2015-05-08 오전 11:36:53


영진라사
해광까
고급라사
동부전기
에어나
스웨
停車禁止
駐車禁止
交通整理員
交通整理
警察官
交通
整理
員
交通
整理
員
交通
整理
員



차 례

도시의 확장과 미아리고개 1910~1920년대 돈암동 / 68

일제강점기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70

도시개발의 명암(해방 이후) / 77

서라벌예술대학과 미아리고개 서라벌예술대학의 '미아리 시대' / 93

북디자이너 정병규가 회고하는 서라벌예대와 한국 문학 / 98

— 2부 — 미아리 점성촌

미아리 점성촌의 안과 겉 / 130

한국 점술의 주역, 시각장애인 거북점에서 주역까지 / 142

자연이 알려주는 미래, 고대 한반도의 점술 /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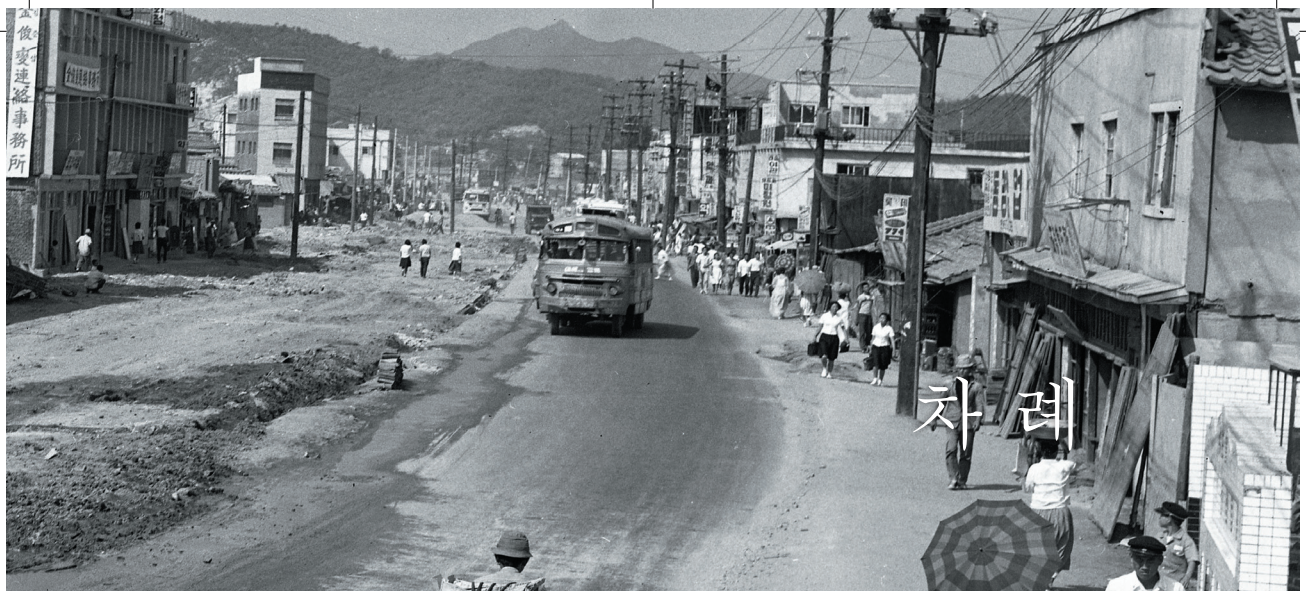
01 1장.indd 5 2015-05-08 오전 11:37:00



고려시대 점술과 맹승 / 151
조선시대 관상감과 봉사 / 155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의 동업조합, 명통사와 맹청 / 156
개화의 물결, 미신으로 몰리는 점술 / 160
일제강점기 조선역리대성교의 설립 / 162

미아리 점성촌이 걸어온 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174
영도다리 / 174
종삼과 남산 / 176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형성 / 178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전성기, 그리고 IMF / 180
진화하는 미아리 점성촌 / 183



차 례

미아리 점성촌의 역학사들 우리는 안 보고도 맞추니까, 그게 우리 미아리의 자랑이죠 / 186

이것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점복의 역사입니다 / 195

불행한 데서 행복의 길을 찾아주는 역할 / 204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죠 / 210

굴다리 노점에서 시작해 내 집을 얻기까지 / 216

좌절하는 손님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하는 손님에게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 222

아내가 올해 예순 여덟인데 두 내외가 다 점을 봅니다 / 227

점 복, 비녀 채. 그래서 복채라고 합니다 / 233

01 1장.indd 7 2015-05-08 오전 11:37:07

발 간 사

성북구는 조선시대부터 빼어난 자연 경관과 한양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많은 선비들의 유람지였으며, 서울의 확장이 시작되던 근대, 가장 먼저 사람이 모여들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곳 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북구에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머물렀고, 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1996년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사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개관한 성북문화원은『성북의 문화재』(1998),『사연이 깃든 성북의 유래』(1998),『선잠제의 역사와 의례』(2002),『선잠단과 길쌈 이야기』(2010),『동소문 밖 능말이야기』(2013) 등을 발간하여 성북구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알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 책은 성북구의 잊혀진 또 다른 역사·문화 자원인 미아리고개의 이야기들을 발굴·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성북구의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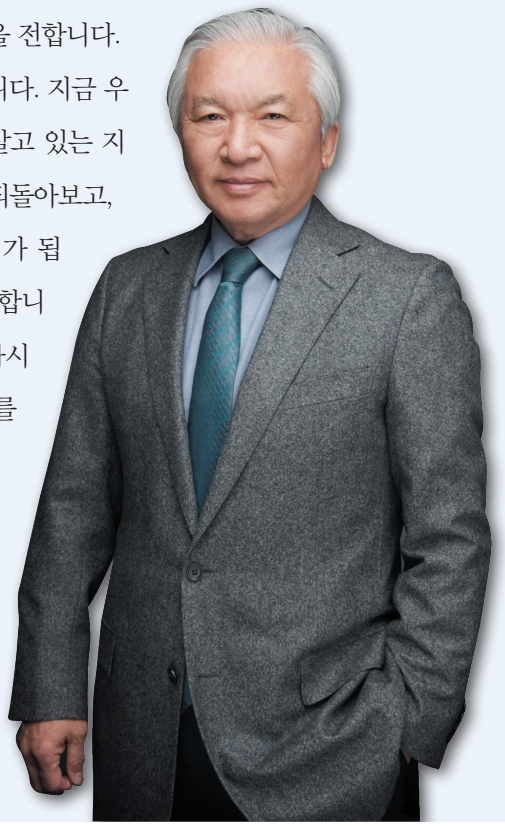
미아리고개는 예로부터 한양에서 동북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는 첫 번째 고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개로 많은 사람과 각종 물산物産이 넘나들었고, 이야기들이 쌓였습니다. 미아리고개는 조선시대에 여진인들이 한양으로 넘어오던 고개였으며, 근대에는 경성으로 몰려든 서민과 죽은 자들의 안식처였고, 현대에는 서울 중심가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모든 내용을 시간과 주제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리고개에 관한 첫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책의 제목을『미아리고개』로 짓게 되었습니다.

01 1장.indd 8 2015-05-08 오전 11:37:07

『미아리고개』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아리고개의 옛 이름인 되너미고개에 대한 유래, 공동묘지와 그곳에 묻혔던 유명인들, 지금은 이름도 희미하지만 한때 한국 최고의 예술대학이었던 서라벌 예대, 그리고 한 때 이곳을 상징하던 점성촌 이야기까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쉽게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선뜻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때로는 자료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자문은 물론 인터뷰에 필요한 분들을 소개해 주시는 등 적극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에 응해주신 기관과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화는 삶의 기초적인 생활방식에서 유래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고,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가장 가까운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인문학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미아리고개』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4년 12월 성북문화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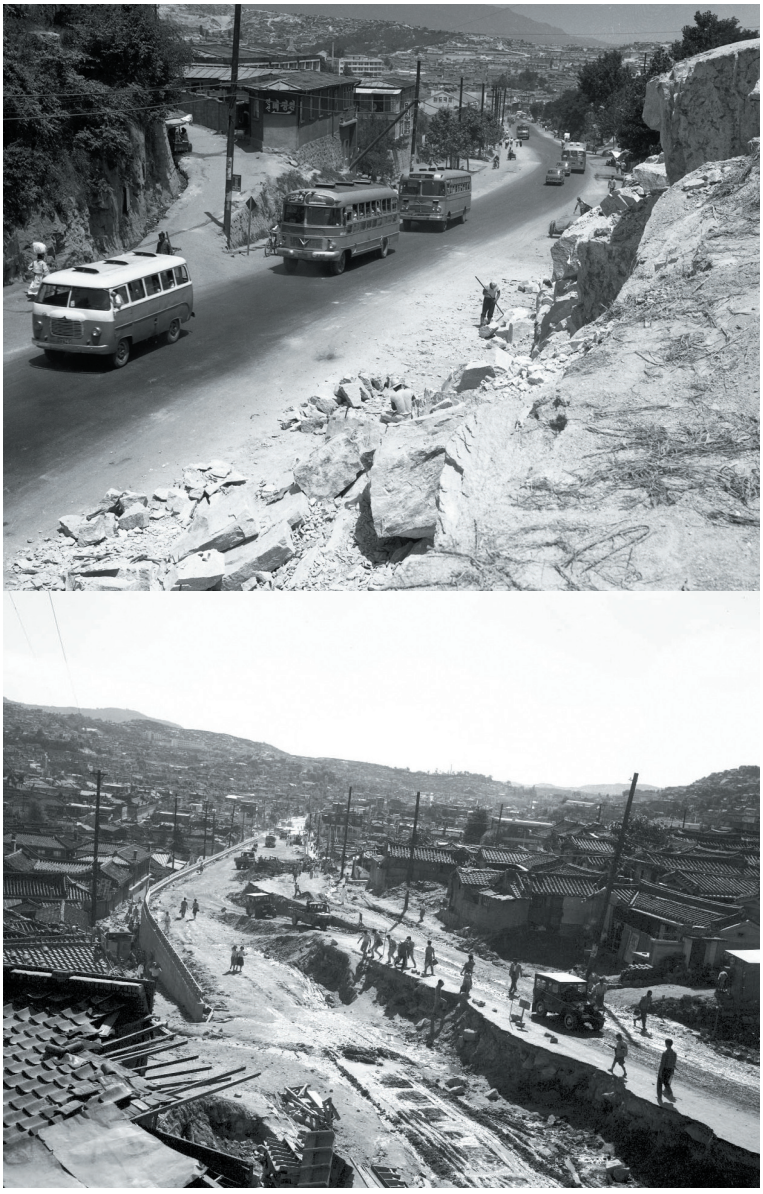
조 태 권

서문

미아리고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세대마다 다르다. 2014년 현재 젊은이들에게 미아리고개는 별다른 이미지가 없다. 혹 풍문을 통해 들어본 미아리 집창촌 정도를 떠올리는 것이 전부이다. 그보다 나이가 윗세대에게 미아리 고개는 점성촌으로 기억된다. 실제로 70년대~80년대 후반은 미아리고개에 있던 점성촌의 전성기였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들은 물론, 정·재계 인사와 외국인까지 미아리고개 초입의 점성촌에 찾아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사람들에게 미아리고개는 '단장의 미아리고개'와 공동묘지로 기억된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은 미아리고개를 넘어 서울로 들어왔고, 미아리고개를 넘어 많은 사람들을 북으로 데려갔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미아리 공동묘지는 60년대 초반 개발과 함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아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이 고개를 되너미고개로 불렀다. 되놈, 즉 오랑캐들이 넘어오던 고개라는 의미였다. 지금은 수많은 자동차들이 넘나들고, 밑으로는 지하철이 다니는 그리 높지 않은 미아리고개에는 그렇게 고개 높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있다.

현재의 미아리고개는 해발 약52m로 높지 않다. 미아리고개가 시

01 1장.indd 10 2015-05-08 오전 11:37:08



확장 이전 미아리고개의 모습(위), 확장 공사중인 미아리고개(아래).

01 1장.indd 11 2015-05-08 오전 11:37:14

작되는 성신여대입구역이 해발 약38m인 것을 감안하면 고개라고 하기보다 '언덕'에 가깝다. 하지만 개발 전 미아리고개는 지금보다 10m이상 높고, 폭은 8m에 이를 정도로 좁았다(현재는 25~35m). 지금도 언덕 높이라고는 하지만 걸어서 꼭대기까지 오르려면 약간 숨이 차는데, 공사 이전의 미아리고개는 마냥 편하게 다닐 수 없는 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힘든 길은 동북방면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었다. 동북쪽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은 동대문으로 나아가서 제기동을 거쳐 종암동 방면으로 가는 길과 제기동-이문동-석관동을 거쳐 가는 길인데, 길은 조금 평탄할 했을지 몰라도 돌아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선시대, 동북면에서 한양을 찾아오는 사람이나 한양에서 동북면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아리 고개를 넘어야했다. 조선초기, 미아리고개를 넘어오던 가장 인상 깊은 방문객은 여진인들이었다. 주로 함경도 쪽에 거주했던 여진인들은 미아리고개를 넘어 한양과 함경도 지역을 넘나들었다. 그들의 인상은 조선인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았다. 알려진 바로는 미아리고개의 첫 이름인 '되너미고개'는 '되놈들이 넘는 고개'라는 의미였다. 한자로는 적유현狄踰峴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되너미고개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 미아리고개는 죽은 자의 안식처였다. 조선총독부는 교통이 편리하고, 아직 사람이 많이 살지 않던 서울 근교에 공동묘지를 조성했는데, 미아리고개도 그 중 한 곳이었다. 이때 설치된 많은 곳이 사라졌지만, 미아리 공동묘지는 60년대 초반까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공동묘지로 남았다. 이상, 이육사 등 유명인들도 미아리 공동묘지가 사라질 때까지 이곳에서 묻혀있었다.

01 1장.indd 12 2015-05-08 오전 11:3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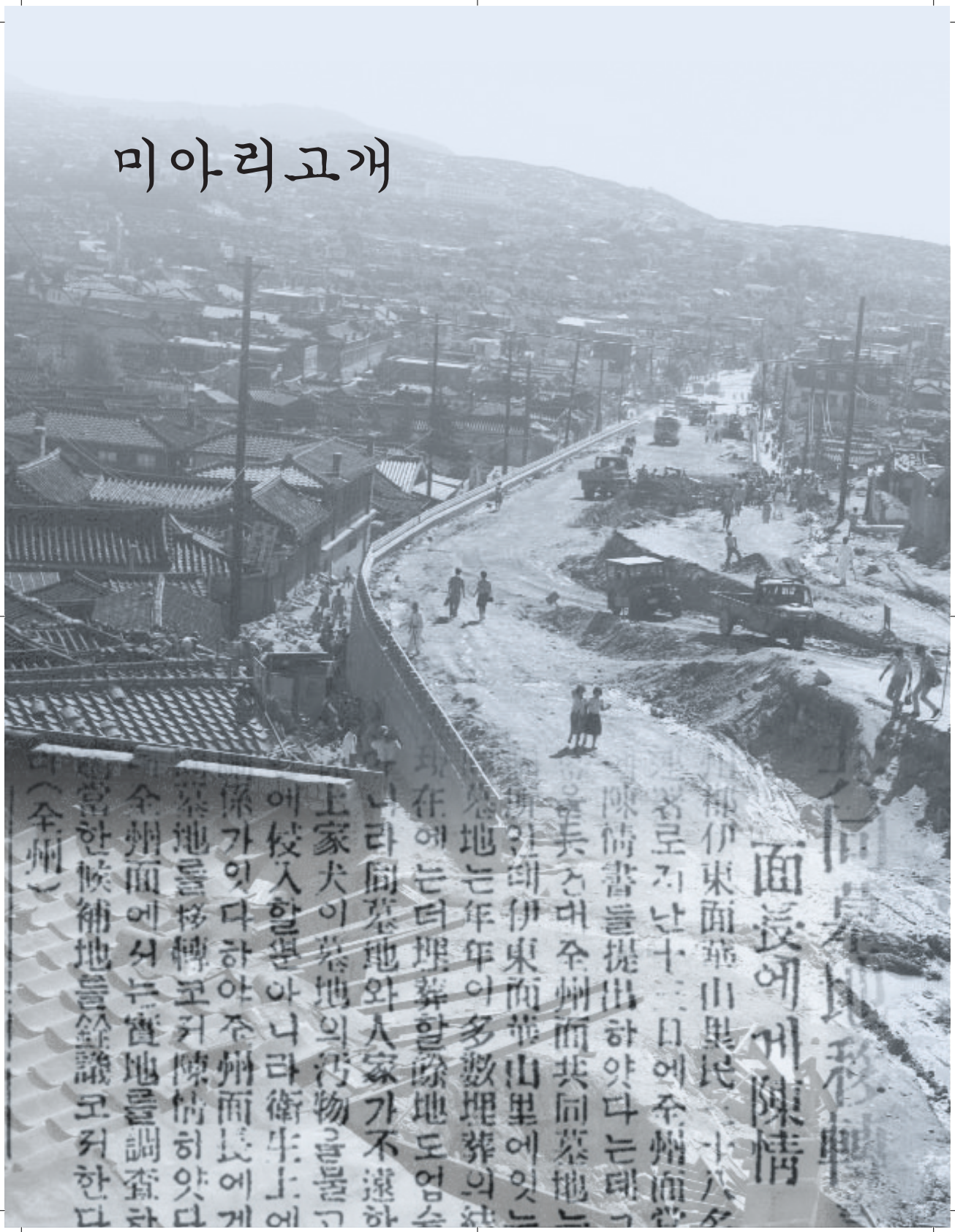
한국전쟁 당시 미아리고개는 북한군이 서울로 쳐들어오던 길이었다. 조선시대부터 효율적인 길은 현대에 들어서도 효율적이었다. 한국군은 창동에서 미아리를 거치는 주요 교통로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북한군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북한군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후퇴할 때도 북한군은 미아리고개를 넘었다. 그들은 미아리고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북으로 압송했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미아리고개는 서울 도심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됐다. 김소진이 쓴 소설『장석조네 사람들』은 당시 미아리고개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그들의 삶은 사소하고 가난하고 보잘 것 없었지만, 서로 부딪쳐가며 살아가는 사람 냄새 나는 삶이기도 했다. 당시 미아리 고개에는 이런 '보통의 서민'만 오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 시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맹인 역술가들, 종로 3가에서 쫓겨난 집창촌도 미아리고개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이 두 집단은 모두 70~8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한다. 경제는 급격히 발전했지만 마음은 공허했고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한 편으로는 점술로, 한편으로는 쾌락으로 채우려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서 지금까지 미아리고개에 고개만큼 쌓인 이야기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찾아가보자.

01 1장.indd 13 2015-05-08 오전 11:37:14

미아리고개





1부

미아리 고개의 역사

되너미고개의 유래

야인野人이 넘어오던 길

미아리고개의 옛 이름인 되너미 고개는 되놈, 즉 야인들이 넘어오던 고개라는 뜻이다. 한자로도 오랑캐狄가 넘어오던踰 고개峴라고 해서 적유현이라고 쓴다. 어떤 곳에서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이 이 고개를 넘어 쳐들어 왔기 때문에 되너미 고개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하기도 한다. 과연 되너미 고개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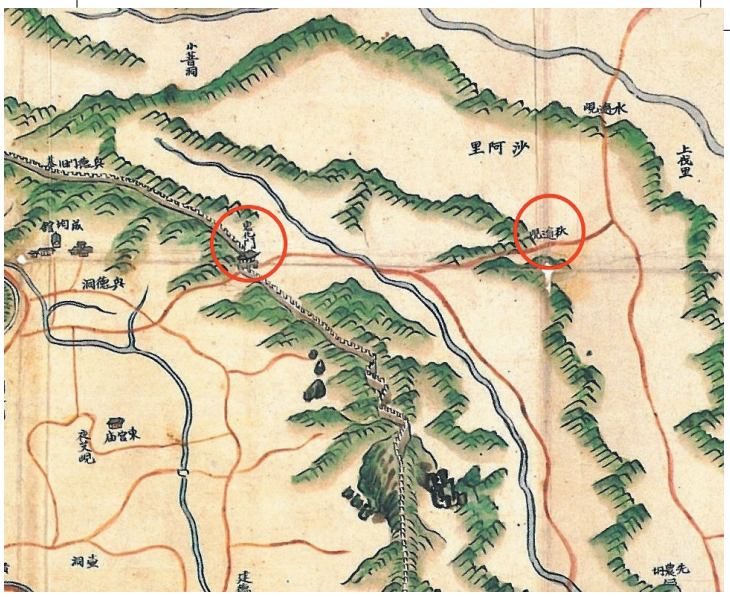
> 조정에 시위(侍衛)하는 야인(野人)들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동소문밖에서 전별(餞別)하게 하였다.(『세조실록』 6년 2월 갑인)

> 야인은 늘 동소문으로 왕래하거니와, 왜인(倭人)은 이제 비로소 보건대 여염 사이의 작은 길로 데리고 다녀서는 안 되겠으니, 홍화문(弘化門) 앞의 큰길로 내보내야 하겠다.(『중종실록』 63권, 23년 9월 경인)

첫 번째 기사는 세조 6년(1460)의 기사인데 야인, 즉 여진인들이 돌아갈 때 동소문 밖에서 송별하고 있다. 두 번째 기사는 중종 23년

01 1장.indd 16 2015-05-08 오전 11:37:18

(1528)의 기록으로 이를 보면 여진족은 동소문을 통해 한양을 출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에 그려진 「여지도(輿地圖)」. 혜화문을 나와 적유현(되너미고개)을 넘는 교통로가 명확하게 보인다.

여진은 조선 초기부터 명나라, 일본과 함께 조선 조정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외교 상대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조선이 건국되던 14세기 말~15세기 초는 원 · 명 교체기로 중국의 동북방면이고 한반도의 북쪽인 현재의 만주지역은 명나라와 원나라, 조선 모두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곳을 차지한 여진족은 조선과 명나라 정부 사이에서 비교적 자율성을 갖고 때로는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약탈하기도 하며 생활했다. 조선 정부의 대책도 크게 다르지 않아 회유와 강경책을 번갈아 사용했다. 대표적인 강경책은 세종 대의 4군 6진 대책이었고, 회유책은 꾸준히 진행되는 귀화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런 조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진족은 조선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았으며, 결국 1586년 누루하치가 여진 부족들을 통합하며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꾸고 청나라로 이어진다.

여진족은 지금의 함경도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압록강 · 두만강 지역에 고루 존재했다. 따라서 이들이 한양으로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길은 평안도를 통해 돈의문쪽으로 오는 – 중국 사신들이 주로 사

01 1장.indd 17 2015-05-08 오전 11:37:18

용하는 길 – 길과 함경도를 거쳐 혜화문으로 오는 두 가지였다. 하지만 조선 조정은 이들에게 함경도길을 주로 사용하게 하였다.

- 이경동이 말했다.

"대저 조종(祖宗)의 법은 가볍게 바꿀 수 없습니다. 건주(建州)의 야인(野人)은 본래 영안도(永安道)의 후문(後門)을 경유하여 내조(來朝)하였는데, 근래에 비로소 평안도(平安道)를 경유하여 오도록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인(彼人) 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산천(山川)의 험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의 구부러지고 곧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나라를 위한 계책이 아닙니다."

- 임금이 대답했다.

"경의 말이 옳다. 다만 이만주(李滿住)의 자손들이 항상 원한을 품고 변경을 침범하였었는데, 평안도의 길을 열어주고부터는 다시 와서 침범하지 않았다…"

(『성종실록』188권, 17년 2월 丙戌, 밑줄은 필자)

위의 기록을 보면 여진사람들은 연안도(지금의 함경도)를 거쳐 한양으로 왔지만, 성종 17년(1486)에 이르러는 평안도를 거쳐 오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을 이경동은 '군사적 기밀'이 누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성종은 이경동의 건의를 옳게 여기면서도 '평안도 길을 열어 준 이후 여진인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음'을 이유로 한동안 더 길을 열어준다. 이를 보면 여진인들이 주로 사용한 길은 함경도를 따라 혜화문으로 들어오는 길이었다. 그리고 여진

01 1장.indd 18 2015-05-08 오전 11:37:18

인들이 혜화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의 미아리고개를 넘어야 했다.

병자호란과 미아리고개

우리가 아는 되넘이고개의 이름은 흔히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이 미아리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쳐들어 온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과연 병자호란과 미아리고개는 관련이 있을까?

> 13일 :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의 치계에 적병이 이미 안주(安州)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
> 14일 : 개성 유수(開城留守)가 치계하여 적병이 이미 송도(松都)를 지났다고 알려왔다.
>
> 14일 : 대가가 숭례문(崇禮門)에 도착했을 때 적이 이미 양철평(良鐵坪)까지 왔다는 소식을 접했으므로…(『인조실록』 33권, 12월)

위의 기록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실록』의 기사이다. 이를 보면 청나라 군대는 평안도의 안주, 경기도 개성을 지나 양철평(지금의 불광동 부근)으로 남하하고 있다. 이때 사용한 길은 의주-정주-안주-평양-개성-서울로 이어지는 '의주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나라 군이 사용한 의주로는 중국과 조선의 사신들이 오가던 길이었는데, 이 길을 따라 내려오면 파주를 지나 돈의문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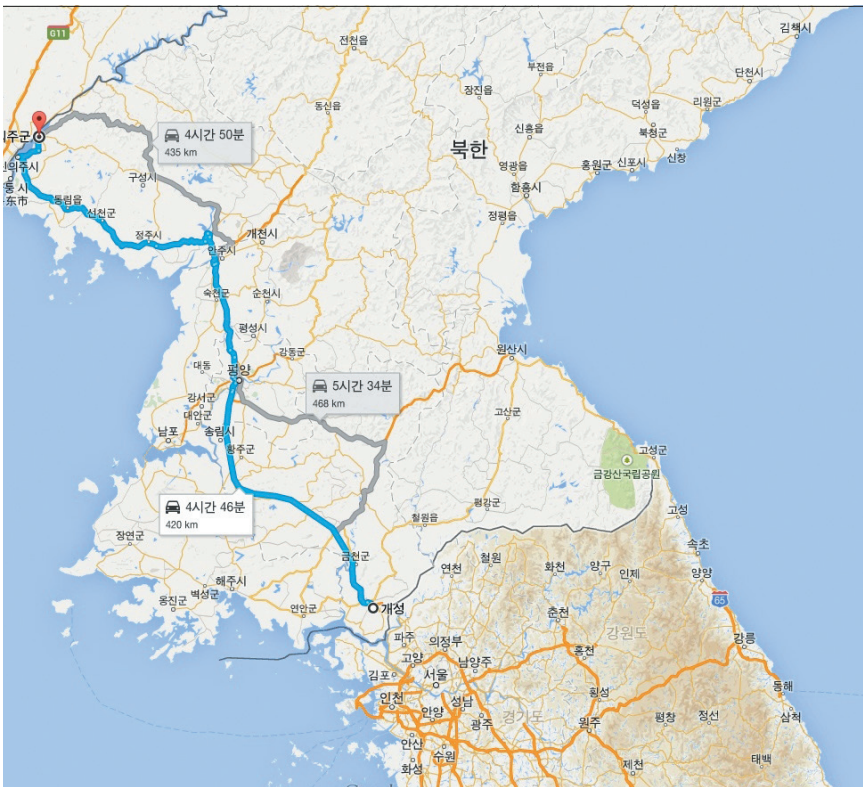
01 1장.indd 19 2015-05-08 오전 11:37:21

청나라 군대가 이 길을 이용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보인다. 첫째는 조선의 왕(인조)이 강화도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 개성을 거쳐, 파주-양주-의정부를 지나 미아리고개를 넘어 내려오는 교통로도 청나라 군대가 이용 가능했다. 다만 이 길을 이용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현재로는 남아 있지 않다. 과연 청나라 군대는 병자호란 당시에 되너미 고개를 넘었을까?

혹 기록대로 넘지 않았다면 왜 미아리고개는 되놈들이 넘어오던 고개가 되었을까? 앞서도 이야기 했듯 미아리고개는 조선 초기 여진인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있었다. 그런데 그 여진인들이 청나라를 세우고 두 차례나 전쟁(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일으켜 한양을 공격했다.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예전에 여진인들과 당시 청나라 사람들은 모두 같은 '오랑캐', 즉 되놈에 불과했다. 더 이상 여진인들(청나라인)은 미아리고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억에는 예전 여진인들이 넘어오던 길, 즉 되넘이 고개로 계속 기억되었을 것이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이 길을 넘어 쳐들어 왔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인다. 의주로를 이용하여 돈의문으로 가는 길과 미아리고개를 넘는 길 사이에는 북한산이 자리 잡고 있다. 청나라 군대가 미아리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의주로가 아닌 완전히 다른 길, 즉 함경도 가는 길(경흥로)을 이용해야 했는데 이 길을 이용했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또한 굳이 군사를 나누어 경흥로를 통해 미아리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향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미아리고개가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 온 고개로 기억되는 것은 청나라 사람들과 여진인들이 조

01 1장.indd 20 2015-05-08 오전 11:37:21



위의 지도는 구글의 '길 찾기'를 이용한 것인데, 의주에서 개성까지 자동차로 결리는 시간은 5시간이 되지 않는다. 청나라 군대가 안주를 지났다고 한 바로 다음날 개성을 지나 서울에 다다랐다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출처: 구글맵)

선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은 '오랑캐'였고 과거에 이들이 오던 길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수진)

01 1장.indd 21 2015-05-08 오전 11:37:21

미아리 공동묘지



미아리 공동묘지의 탄생과 소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죽음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겐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 하지만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갖지 않은 사람이건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그것이 최소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쉽게 보내지 않는다. 죽은 날짜를 기억하고, 죽은 사람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아가 추억한다. 따라서 죽은 자의 안식처인 묘지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추억의 장소이며 기억의 장소이다.

하지만 나의 가족, 나의 지인이 아닐 경우 묘지는 더 이상 추억과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후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에 알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공포가 더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묘지들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두려움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 그렇게 가장 두려움의 장소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공동묘지'이다.

공동묘지는 조선의 전통적 장례문화의 산물이 아니다. 조선시대

01 1장.indd 22 2015-05-08 오전 11:37:24

묘지의 위치는 풍수에 의해 결정됐다. 왕릉의 위치는 조선 최고의 풍수가들이 고른 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되었고, 양반들 역시 풍수가 좋은 곳에 선산을 꾸미고 그곳에 조상의 묘를 썼다. 백성들도 가능하다면 풍수가 좋은 곳에 조상의 묘를 쓰려고 했고, 경제적으로 힘들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가 정해준 장소가 장지葬地가 되었다. 이런 장지는 '공동묘지'의 형태를 띠기도 했지만, 그 장소는 풍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묻히는 사람도 '불특정 다수'가 아닌 마을사람들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전통에 전면적인 제동을 건 것은 일제가 1912년 6월 20일 총독부 부령 제123호 「묘지화장매장급화장취체규칙墓地火葬埋葬及火葬取締規則」(이하 「묘지규칙」)이었다. 「묘지규칙」은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중요한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묘지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경무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묘지는 부(府)·리(里)·동(洞) 기타 지방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 아니면 신설하지 못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단독, 혹은 일족(一族) 또는 합족(合族)의 묘지를 허가할 수 있다.
3. (전항 묘지의 제한)
   1) 도로, 철도 및 하천에서 10칸 이상, 인가에서 60칸 이상 떨어진 곳.
   2) 수원, 수류 및 마시는 우물 혹은 샘물과 관계없는 토지일 것.

일단 1, 2번 조항을 보면 묘지를 신설할 수 있는 기관은 부·리·동과 같은 공권력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3번 조항을 보면 묘지의 위치를

01 1장.indd 23 2015-05-08 오전 11:37:24

민가와 사람과 떨어져 있는 곳, 그리고 물과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제한했다. 이 「묘지규칙」은 당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져왔다. 특히 1,2번의 조항이 많은 반감을 샀다. 이전까지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묘지를 썼는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지되었던 것이다. 이런 반감은 1940년대까지도 계속되지만 일제의 「묘지규칙」 또한 계속되어서 사람들은 점차 '공동묘지'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된다.

한편 3번 조항은 위생상의 이유였다. 이 조항은 시체 썩은 물이 식수로 유입되거나, 죽은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병균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일면 타당해 보이는 이 조항은 묘지에 관한 인식을 '존경'과 '두려움'의 공간에서 '혐오시설'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1925년에 이르면 공동묘지는 오물처리장, 도축장들과 함께 도시가 확장되면서 가장 먼저 밖으로 옮겨가야 할 시설물로 인식된다. 1920년대 후반의 신문기사에는 공동묘지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공동묘지 이전 면장에게 진정
>
> …화산리에 있는 공동묘지는 매년 많은 매장이 일어난 결과 현재에는 더는 매장할 여지도 없을 뿐 아니라, 공동묘지와 인가가 멀지 않은 관계로 집에서 키우는 개가 묘지의 오물을 물고 집 안에 들어올 뿐 아니라, 위생상에도 관계가 있다 하여 전주 면장에게 공동묘지를 이전하고자 진정하였다. (「동아일보」 1928년 2월 17일_밑줄은 필자)

01 1장.indd 24 2015-05-08 오전 11:37:24

대동군 용산면 당상리에 있는 밭 11,664평과 임야 54,530평의 민간 소유지를 평양부에서는 이를 공동묘지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여, 이를 매수할 의향으로 전매(田每) 평에 최하 29전, 최고 37전으로 매수를 실행하려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가진 상당리 주민대표 김연벽(金連璧) 이외 6인이 부(府) 당국을 방문하여 동리(同里) 60여 호의 생활에 유일한 방편이 되는 임야와 밭을 매수시키면 한 마을의(一洞里) 주민은 생활 불안 뿐 아니라 촌락 바로 뒤에 공동묘지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반다를 하나 부(府) 예정(豫定)이라 하여 예정대로 시행 한다고 하더라.(「동아일보」 1929년 5월 12일_밑줄은 필자)

위의 기록은 모두 1920년대 후반 신문기사이다. 먼저 첫 번째 기록을 보면 공동묘지가 민가와 가까이 있는 것이 '위생상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 기사는 공동묘지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가 따로 없다. 1912년 「묘지규칙」이 시작된 이후 15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공동묘지는 지금과 같이 '기피시설'혹은 '혐오시설'로



共同墓地移轉
面長에게陳情

平州郡伊東面華山里民二十八名의連署로지난十一日에平州面當局에陳情書를提出하얏다는데그內容을보건대平州面共同墓地는一個所인데伊東面華山里에잇는共同墓地는年年이多數埋葬의結果現在에는더埋葬할餘地도업을뿐아니라同墓地와人家가不遠한關係上家犬이墓地의汚物을물고집안에侵入할뿐아니라衛生上에도關係가잇다하야平州面長에게共同墓地를移轉코저陳情하얏다는데平州面에서는實地를調査하야適當한候補地를選擇코저한다더라(平州)

靈臺夜學開講 城津郡鶴南面德臺洞에잇는德臺夜學會

1928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



共同墓地反對
陳情書提出

지난一日午前十一時에平北平州郡雨林面民代表로面長金永珍面協議李鍾錄、金京澤、二木悟諸氏와區長金德助、柳東璇、金濟民諸氏가平州郡守川崎一郎氏를訪問하고陳情書를提出하얏다는데既報한바와가티平州面에서從來의使用하든伊東面華山里共同墓地가狹窄하야新設共同墓地를雨林面松亭里林野를買受하야指定하고道當局에認可願外지提出한故로그것을反對하기爲함이라더라【平州】

1929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01 1장.indd 25 2015-05-08 오전 11:3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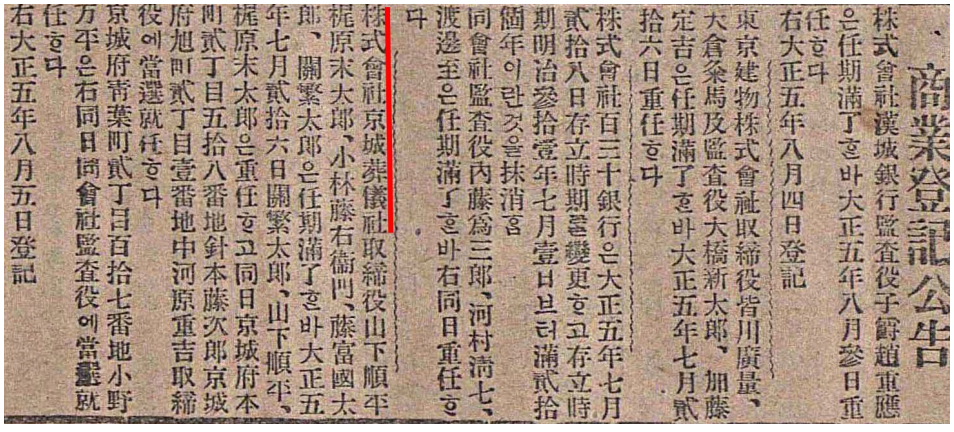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묻히는 공동묘지의 탄생으로 장례가 마을 공동체와 무관한 것이 되어가자 예전 같으면 마을 공동체에서 해결 가능했던 장례식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게 됐다. 장의사가 등장한 것이다. 신문에서 장의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6년 8월 8일이다.

> 주식회사 경성장의사(京城葬儀社) 취체역(取締役) 山下順平, 梶原末太郎, 小林藤右衛門, 藤富國太郎, 關繫太郎은 임기만료 한 바, 대정(大正) 5년 7월 26일 關繫太郎, 山下順平, 梶原末太郎은 중임하고…(「매일신보」 1916년 8월 8일)

위의 기사를 보면 1916년 당시 이미 장의사는 하나의 직업으로

1916년 8월 8일자 매일신보.
주식회사 경성장의사라는 문구가 명확히 보인다.
빨간 밑줄은 저자



商業登記公告

株式會社漢城銀行監査役子爵趙重應은任期滿了ᄒᆞᆫ바大正五年八月參日重任ᄒᆞ다
右大正五年八月四日登記

東京建物株式會社取締役皆川廣量、大倉粂馬及監査役大橋新太郎、加藤定吉은任期滿了ᄒᆞᆫ바大正五年七月貳拾六日重任ᄒᆞ다

株式會社百三十銀行은大正五年七月貳拾八日存立時期를變更ᄒᆞ고存立時期明治參拾壹年七月壹日브터滿貳拾個年이란것을抹消ᄒᆞᆷ
同會社監査役內藤爲三郎、河村淸七、渡邊全은任期滿了ᄒᆞᆫ바右同日重任ᄒᆞ다

株式會社京城葬儀社取締役山下順平梶原末太郎、小林藤右衛門、藤富國太郎、關繫太郎은任期滿了ᄒᆞᆫ바大正五年七月貳拾六日關繫太郎、山下順平、梶原末太郎은重任ᄒᆞ고同日京城府本町貳丁目五拾八番地針本藤次郎京城府旭町貳丁目壹番地中河原重吉取締役에當選就任ᄒᆞ다
京城府靑葉町貳丁目百拾七番地小野万平은右同日同會社監査役에當選就任ᄒᆞ다
右大正五年八月五日登記

01 1장.indd 26 2015-05-08 오전 11:37:24

성립하여 있었으며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공동묘지 제도의 도입은 한국의 장례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례가 공동체와 무관해짐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장례가 가진 공적 영역도 해체되었다. 일제는 장례를 개인과 가족의 일로 만듦으로 해서 사회장을 저지하였다. 이후의 일이지만 고종과 순종의 장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례는 공동체 결집과 사회질서의 회복 등의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저지된 것이다.

이제 죽음과 죽은 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피의 대상이 되어갔다. 또한 공동묘지의 탄생은 국가 권력(일제)의 통제가 개인의 일이었던 장례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위생과 경제관념, 삶과 죽음의 공간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묘지의 탄생은 근대국가 공통의 모습이었지만, 일제는 전통의 파괴, 공동체의 해체 등을 목적으로 보다 강력하고 빠르게 공동묘지를 식민지 조선에 이식했다. 한국의 공동묘지는 이렇게 탄생했다.

그렇다면 미아리 공동묘지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1912년 「묘지규칙」이 발표되면서 묘지로 설정된 지역은 19곳이었다. 그중 1번은 미아리 오패산 일대, 2번 묘지는 숭인면 미아리(길음동) 일대였다. 특히 2번 길음동 일대는 교통이 용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었다. 1922년 당시 경성부에서 공동묘지에 매장되는 사람은 매년 5,000명~6,000명에 이르러 이미 '만원이 된 공동묘지'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 특히 2번 미아리 묘지로 불리게 되는 길음동 일대는 조선인 전용 공동묘지로 1929년부터 2년 동안 공사를 하여 시설이 정비되었다. 그리하여 1937년에는 16,000기의 무덤이 있는 대형 공동묘지로 '성장'하였다.

01 1장.indd 27 2015-05-08 오전 11:37:24

미아리 공동묘지는 경성부민의 死의 안식처의 하나로 금빛으로 단장한 영구차가 하나의 인생의 최종열차로써 몇 번이고 와 닫는 '사의 都'이다.

벌써 돈암리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때만도 이 인생의 최종열차는 늦가을 햇볕에 금빛을 번뜩이면서 되네미 고개를 구비 돌아 도보로 가는 기자에게 한바탕 먼지를 끼얹고 달아나고 있었다.

위의 기사는 1937년 『조광朝光』에 실린 「세색歲色도 장춘將暮!」라는 기사의 일부분이다. 기자는 미아리 공동묘지를 '죽은 자의 수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미아리 공동묘지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경성부에서 미아리 공동묘지를 가려면 되네미 고개, 즉 미아리고개를 넘어야 했으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먼지가 많이 날렸다는 것이다.

1922년 7월 5일자 동아일보
"만원된 공동묘지"


滿員된 共同墓地
부령에서는새로히설뎡코져

처음 만들어질 당시 미아리 공동묘지는 경성부 부근에서 가장 큰 규모는 아니었다. 1922년 당시 경성부 공동묘지의 총 면적은 511,830평이었는데 가장 넓

01 1장.indd 28 2015-05-08 오전 11:37:24

은 공동묘지는 이태원 공동묘지로 119,328평이었고, 다음은 신당리의 118,023평이었다. 길음동에 위치한 2번 미아리 묘지는 약 69,000평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미아리 묘지는 도심과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였으며, 1940년을 거치며 이태원 · 신당리 묘지가 망우리 · 신사리 묘지로 통폐합되면서 중요성도 커졌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묘지 터가 부족해졌고, '공동묘지'에도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도 등수가 있습니까?" 죽어 묻히면서도 빈부차가 있는가하고 물으니
"네, 2등지는 제일 좋은 땅이고요, 3등지는 자연 그보다 떨어집니다."
"그럼 2등지는 한 평 얼마나 합니까?"
"7전 50전입니다. 그리고 3등지는 4원, 4등은 2원, 5등은 1원이고 6등은 50전입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묘가 있는데 이건 한 평에 2등지는 4원, 3등지는 2원, 4등지는 1원인데 가족만 따로 모시게 되죠…"
(1937년 『조광(朝光)』「歲色도 將暮!」)

위의 기록을 보면 죽은 자의 수도에도 빈부격차가 존재했다. 이것도 공동묘지 탄생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었다. 미아리 공동묘지는 이렇게 '죽은 자의 수도'로써, '경성부민 죽음의 안식처'로 기능했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죽어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는 기피시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1941년부터 미아리 공동묘지 주변 사람들은 '공동묘지 이전'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제 강점기에는

01 1장.indd 29 2015-05-08 오전 11:37:24

실현되지 않았다.

미아리 공동묘지의 이전이 실현 된 것은 1958년에 이르러서였다. 서울 각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미아리로 모여들어 판자촌을 형성했다. 정부는 판자촌의 철거를 반복하였지만 실패하고 결국 이곳에 정착촌을 만들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 택지로 결정된 것이 제2 미아리 공동묘지였다. 당시 미아리 공동묘지에 있던 19,700기의 묘지는 1958년 후반에 이전이 완료되고, 1959년에는 그곳에 80,500평의 택지조성 사업이 시작되었다. 1962년에는 공동묘지 위에 첫 번째 마을이 들어서기도 했다. 이후 택지 개발은 부침을 겪어가며 진행되지만, 미아리 공동묘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들

서해 최학송曙海 崔鶴松 (1901~1932)

최학송은 함경북도 성진에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죽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그는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다니던 성진 보통학교도 중퇴해야 했다. 당시의 많은 사람이 그랬듯, 그도 간도를 기회의 땅으로 여겼다. 1917년 그는 어머니와 함께 간도로 이주했다. 하지만 거기서도 그는 실패했다. 그는 더욱 가난해져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왔다. 그때의 경험과 기억을 갖고 쓴 작품이 『탈출기』이다.

01 1장.indd 30 2015-05-08 오전 11:37:27

김군!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은 오년 전이다. 이것은 군도 아는 사실이다. 나는 그때에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떠났다. 내가 고향을 떠나 간도로 간 것은 너무도 절박한 생활에 시들은 몸에 새 힘을 얻을까 하여 새 희망을 품고 새 세계를 동경하여 떠난 것도 군이 아는 사실이다.

'간도는 천부금탕이다. 기름진 땅이 흔하여 어디를 가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 쌀도 흔할 것이다. 삼림이 많으니 나무 걱정도 될 것이 없다. 농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뜨뜻이 지내자. 그리고 깨끗한 초가나 지어놓고 글도 읽고 무지한 농민들을 가르쳐서 이상촌(理想村)을 건설하리라. 이렇게 하면, 간도의 황무지를 개척할 수 있다.'이것이 간도 갈 때의 내 머릿속에 그리었던 이상이었다. …

김군! 그러나 나의 이상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간도에 들어서서 한



최학송 묘비 제막식 사진

01 1장.indd 31 2015-05-08 오전 11:37:27

달이 못되어서부터 거칠은 물결은 우리 세 생령(生靈)의 앞에 기탄없이 몰려왔다. 나는 농사를 지으려고 밭을 구하였다. 빈 땅은 없었다. 돈을 주고 사기 전에는 한 평의 땅이나마 손에 넣을 수 없었다. (『탈출기』 중)

위는 탈출기의 내용이다. 주인공은 가난을 이기고자 간도로 향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간도는 기름진 땅이 흔하여 어디서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확도 좋고, 땔감 걱정도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저 이상이었음을 확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간도의 땅이 기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땅은 남아 있지 않았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 했고, 가난한 그에겐 땅을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간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나무하러 가서 중국인들에게 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두부 장수를 하고, 노동판에서 십장 노릇도 했다. 하지만 그는 가난을 극복할 수 없었다. 1923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조선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924년 『조선문단』에 「고국」이라는 단편으로 등단한다. 이후 그는 많은 소설을 썼다. 그의 소설은 「탈출기」, 「기아와 살육」, 「살려는 사람들」, 「가난한 아내」 등 제목만 봐도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들이었다. 사회주의 문학이 인기를 끌던 그때,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재가 된 그의 소설은 계급문학으로 문단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1932년 1월, 그는 위 협착증 수술을 받다 가난한 삶을 마쳤다. 그가 묻힌 곳은 미아리 공동묘지였다. 간도에서 한 평의 땅도 살 수 없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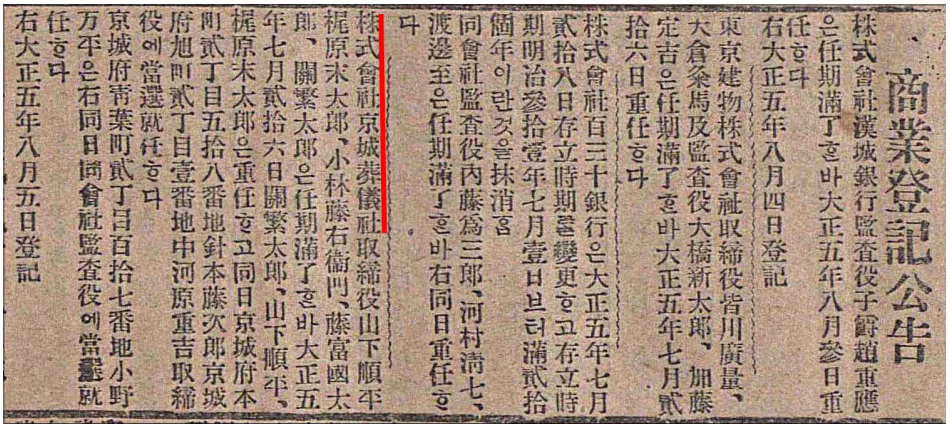
01 1장.indd 32 2015-05-08 오전 11:37:27

던 그는 죽어서야 제 몸 하나 뉘일 땅을 얻었다. 죽고 3년이 지나서야 그는 묘비를 가질 수 있었다. 그나마도 가난한 문인들이 돈을 모아 만든 것이라 조잡하기까지 했다. 거기에는 묘비가 세워진 해인 1935와 서해曙海라는 그의 호만 새겨져 있었다. 미아리 공동묘지가 사라지며, 그의 묘는 망우리로 옮겨졌다. 그때 세워진 묘비는 이제 조금 더 번듯한 것으로 바뀌어 그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

박승필朴承弼 (1875~1932)

박승필은 지금도 남아 있는 극장, 단성사를 경영한 영화인이다.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1875년 생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 일시는 1932년 1월 4일이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12월 27일로 되어 있지만, 양력 1월 4일을 음력으로 환산하면 11월 27일이 된다. 아마도 기자

1918년 6월 21일 「매일신보」
아래 기사를 보면 박승필이 경영자의 권리를 위임 받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밑줄은 필자)



商業登記公告

株式會社漢城銀行監査役子爵趙重應은任期滿了ᄒᆞᆫ바大正五年八月參日重任ᄒᆞ다
右大正五年八月四日登記

東京建物株式會社取締役皆川廣量、大倉粂馬及監査役大橋新太郎、加藤定吉은任期滿了ᄒᆞᆫ바大正五年七月貳拾六日重任ᄒᆞ다

株式會社百三十銀行은大正五年七月貳拾八日存立時期를變更ᄒᆞ고存立時期明治參拾壹年七月壹日브터滿貳拾個年이란것을抹消ᄒᆞᆷ
同會社監査役内藤爲三郎、河村清七、渡邊至은任期滿了ᄒᆞᆫ바右同日重任ᄒᆞ다

株式會社京城葬儀社取締役山下順平梶原末太郎、小林藤右衛門、藤富國太郎、關繁太郎은任期滿了ᄒᆞᆫ바大正五年七月貳拾六日關繁太郎、山下順平、梶原末太郎은重任ᄒᆞ고同日京城府本町貳丁目五拾八番地針本藤次郎京城府旭町貳丁目壹番地中河原重吉取締役에當選就任ᄒᆞ다
京城府靑葉町貳丁目百拾七番地小野万平은右同日同會社監査役에當選就任ᄒᆞ다
右大正五年八月五日登記

01 1장.indd 33 2015-05-08 오전 11:3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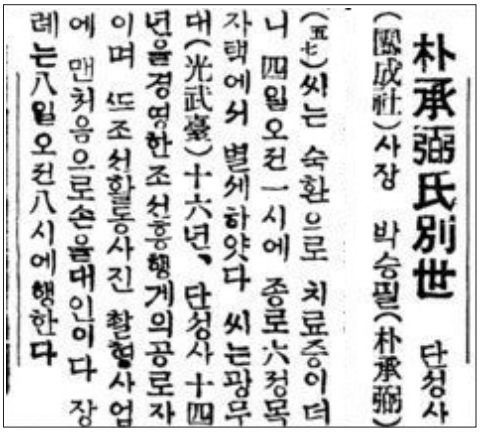
가 11월을 12월로 착각한 듯하다.

> 옛날 조선 연극·영화를 위해 애쓰던 박씨(박승필)의 면모가 역연(歷然)이 보인다. 신미(辛未, 1931) 12월 27일 졸(卒)하였다는 것만 써있으니…(1937년 『조광(朝光)』「歲色도 將暮」)

박승필은 한국영화의 창시자라고 할 정도로 한국영화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는 1908년에는 광무대를 인수하여 이곳에서 판소리와 창극을 공연하였다. 당시는 새로운 문물이 쏟아져 도입되는 시기였고, 판소리와 창극은 설 곳을 잃어가던 시점이었다.

1918년에는 단성사를 인수하여 운영했다. 당시 경성에는 조선인이 운영하던 극장이 하나도 없었다(광무대는 1920년에야 경성 시내로 옮겼다). 그는 광무대와 달리 단성사는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특히 그는 조선 영화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는 단성사에서 1919년 10월27일 한국 최초의 영화로 알려진 '의리적 구토'를 상영하였으며(이 날은 영화의 날로 제정), 1924년에는 '장화홍련전'을 제작 · 상영하였는데, 이는 한국인에 의해 최초로 촬영 · 현상 · 편집된 영화였다. 이후에도 1926년에는 나운규의 '아리랑'이 개봉되는 등 단성사는 '조선극장', '우미관'과 함

1932년 1월 5일
동아일보
박승필의 별세 기사



朴承弼氏別世 단성사(團成社)사장 박승필(朴承弼)씨는 숙환으로 치료중이더니 四일오전一시에 종로六정목 자택에서 별세하얏다 씨는광무대(光武臺)十六년, 단성사 十四년을경영한조선흥행계의공로자이며 또조선활동사진 촬영사업에 맨처음으로손을대인이다 장례는八일오전八시에행한다

01 1장.indd 34 2015-05-08 오전 11:37:27

께 한국인을 위한 공연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1926년 이후에 그의 소식은 특별하게 전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보이는 기사가 그의 사망 기사이다. 그의 화려한 업적과 달리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죽은 날짜만 기록되어 있었다.

이상李箱 (1910년 9월 23일 ~ 1937년 4월 17일)

>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 유쾌하오.

위의 내용은 이상이 쓴 소설『날개』의 한 부분이다. 그가 말한 대로 그는 천재였다. 스스로 박재라고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그의 작품은 국문학을 전공하는 많은 사람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 이상의 일생과 문학을 다루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 가고자 한다.

이상은 1910년 8월 2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김해경金海卿이다. 부모는 모두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 1912년 그는 큰아버지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부모는 가난했지만, 큰아버지는 유복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신명 보통학교를 나와, 역시 경성에 있는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진학 한 학교는 경성공업고등학교였다. 1929년 이곳을 졸업하고 이상은 조선총독부 건축과의 기수로 취직한다.

이상李箱이란 이름은 본래 동생과 아내 변동림의 증언에 따라 조

01 1장.indd 35 2015-05-08 오전 11:37:27

선총독부 건축과 재직 시절 한 인부가 그의 성을 이씨로 착각하여 긴상金さん이라고 불러야 할 것을 이상李さん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그가 총독부에 재직하기 이전인 경성고등공업학교의 졸업 앨범에서 이상이라는 자필 서명이 발견되며, 그 이전부터 이상이란 필명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됐다. 현재로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한명인 화가 구본웅에게 선물로 받은 화구상자畵具箱子에서 연유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여기에도 설이 갈리는데 화구 상자에서 상箱을 따왔고, 가장 흔한 성 가운데 아무거나 붙이기로 해서 이李를 사용하여 이상이 되었다는 설이 있고, 받은 상자가 오얏나무李 상자箱라서 이상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상이 본격적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31년 『이상異狀한 가역반응』이라는 첫 시집을 내면서부터였다. 이후 그는 죽을 때까지 2,000여 편의 많은 작품을 남긴다. 그의 소설이나 수필과 달리, 시는 난해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연작시 「오감도」는 총 30회 연재로 계획되었지만, 독자들의 항의로 15편에서 그쳤다고 한다. 그의 난해하다는 시의 대표작인 「오감도」의 가장 난해한 4호를 그의 시가 얼마나 난해한지를 느끼기 위해 소개한다(해석은 학자들 마다 다 달라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상

경성고공 시절의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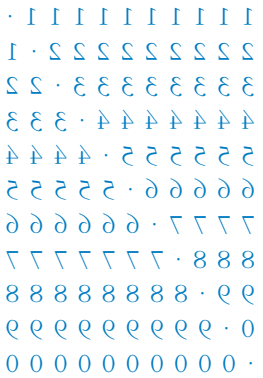


01 1장.indd 36 2015-05-08 오전 11:37:28

은 각 시의 해석만 갖고 논문 한 편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다).

오감도 4호

患者의容態에관한문제.



謬斷 0 : 1

26.10.1931

以上 責任醫師 李 箱

그는 1933년 건강이 악화되어 조선총독부 건축과 기수를 그만 둔다. 건강 악화의 원인은 폐병이었다. 이상의 폐병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괴롭힌다. 그 역시 폐병이 많이 괴로웠는지 그 고통을 시로 남기기도 했다.

01 1장.indd 37 2015-05-08 오전 11:37:28

아침

캄캄한공기를마시면폐에해롭다. 폐벽에끌음이앉는다. 밤새도록나는 몸살을앓는다. 밤은참많기도하더라. 실어내가기도하고실어들여오기도하고하다가잊어버리고새벽이된다. 폐에도아침이켜진다. 밤사이에 무엇이없어졌나살펴본다. 습관이도로와있다. 다만내치사한책이여러 장찢겼다. 초췌한결론위에아침햇살이자세히적힌다. 영원히그코없는 밤은오지않을듯이

총독부 건축과 기수를 그만둔 이상은 먹고 살기 위해 종로 1가, 인사동 등에서 다방을 하지만 경영에는 소질이 없었는지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문학 활동은 계속 했다. 1934년에는 이태준, 정지용 등이 만든 구인회에 참가하여 문학 활동을 하며, 이때 소설가 김유정과 친해졌다.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그가 요양을 하러 온천에 내려갔을 때 만난 금홍, 1936년 6월 결혼한 변동림 둘이다. 금홍은 이상의 사업이 계속 실패하자 도망갔고, 변동림은 그의 최후를 지켜보고 그의 장례까지 치르게 된다.

그는 도쿄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그는 1937년 새로운 세상을 찾아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기에 도쿄는 실망스러운 장소였다.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지만, 지병인 폐병이 악화됐다. 업친 데 겹친 격으로 일본 경찰에게 불령선인不逞鮮人(불온한 조선인)으로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때 그의 건강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된다. 일본 경찰은 그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01 1장.indd 38 2015-05-08 오전 11:37:28

같아 보이자 그를 병보석으로 출감시킨다. 일본 경찰의 예측대로 그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937년 4월 7일 동경제국대학 부속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인 변동림과 몇몇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 변동림은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일본에서 화장하고,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의 추도식은 그보다 며칠 앞서 명을 달리한 친구 김유정(3월 29일 사망)과 함께 5월 15일 개최 되었고, 그의 시신은 추도식 후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이후 그의 묘지는 많은 사람의 기억에서 희미해져갔다. 특히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더욱 그랬다. 결국 그의 묘지는 미아리 공동묘지가 주택가로 개발되던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 언젠가 사라졌다. 천재 이상의 무덤은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종생기』에 자신의 묘지명을 남겼다.

一世의 鬼才 李箱은 그 通生의 大作『終生記』一篇을 남기고 西曆 一千九百三十七年 丁丑三月三日 未時 여기 白日아래서 그 波瀾萬丈(?)의 生涯를 끝막고 문득 卒하다. 享年 滿二十五歲와 十一個月. 嗚呼라! 傷心커다. 虛脫이야 殘存하는 또하나의 李箱 九天을 우러러 號哭하고 이 寒山 一片石을 세우노라. 愛人貞姬는 그대의 歿後 數三人의 秘妾된바 있고 오히려 長壽하니 地下의 李箱아! 바라건데 瞑目하라. 그리 칠칠치는 못하나마 이만큼 해 가지고 이꼴저꼴 구주레한 흠집을 살짝 韜晦하기로 하자. 고만 失手는 如上의 妙技로 兼사兼사 메꾸고 다시 나는 내 半生의 陣容 後日에 관해 차근차근 考慮하기로 한다. 以上.

01 1장.indd 39 2015-05-08 오전 11:37:28

일세의 귀재 이상은 그 평생의 대작『종생기』한 편을 남기고 1937년 3월 3일 미시(未時:13시~15시 여기 밝은 햇빛 아래서 그 파란만장(?) 한 생애를 끝내고 죽다. 향년 만25세 11개월. 오호라. 상심이 크다. 허탈이야 잔존하는 또 하나의 이상. 구천을 우러러 목 놓아 슬피 울고, 이 차가운 산에 한 조각의 돌을 세우노라. 애인 정희는 그대가 죽은 후 세 사람 정도의 비첩(秘妾: 숨겨놓은 첩)이 된 바 있고, 오히려 장수 하니 지하의 이상아 바라건 데 눈을 감아라.

그리 칠칠치는 못하나마 이만큼 하여 이런저런 못난 흠집을 살짝 감추기로 하자. 작은 실수는 위와 같은 묘기로 겸사겸사 메우고 다시 나는 내 반생의 진용을 후일에 차근차근 생각하기로 한다. 이상

이육사李陸史 (1904년 5월 18일 ~ 1944년 1월 16일)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01 1장.indd 40 2015-05-08 오전 11:37:28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위의 글은 시인 이육사의 대표적인 시 '청포도'이다. 이육사는 '내 고장'을 조국으로, 청포도를 민족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청포도가 익어가듯, 우리 민족도 '익어가서'독립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시를 썼다. 이육사는 본인 스스로 '청포도'를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다'고 표현하며 애타게 기다리던 손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서대문형무소 수감 당시 이육사의 신원카드
(1934년 6월 20일)



01 1장.indd 41 2015-05-08 오전 11:37:28

이육사는 또한 독립운동가였다. 1931년 1월 '대구격문사건'으로 수감된 것이 그의 본격적 독립운동 행적의 시작이었다(이후 그는 17번이나 옥살이를 한다). 1932년 4월에는 베이징에 가서 의열단 활동에 가담하기도 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군사간부로 성장하였다. 1933년 7월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군사활동이 아닌 문학활동을 시작한다. 그의 문학활동은 군사활동처럼 치열했다. 그는 시, 수필, 소설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글을 발표했다. 1930년대 후반, 일제의 탄압이 심해져 한글로 문학작품을 쓰는 것이 힘들어지자 그는 한시漢詩를 발표하는 것으로 저항했다.

1943년 4월, 그는 독립운동을 위해 다시 베이징으로 떠난다. 하지만 같은 해, 어머니와 큰형의 소상小祥(고인이 돌아가신 지 만 1년이 되는 날 지내는 제사)에 참여하려 귀국하는데, 이때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이송된다. 그리고 1944년 1월 16일 결국 베이징 주재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한다. 그의 시신은 그의 아우 이원창에게 수습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미아리 공동묘지에 안장된다. 아마도 서울 근교에 있고, 원창 자신의 집과 가까웠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960년 미아리 공동묘지가 사라지며, 고향 안동시 도산면 원촌마을에 이장되었다.

다시 그의 시 '청포도'로 돌아가자. '청포도'가 쓰고 발표된 시점은 그가 가장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할 당시였다.

01 1장.indd 42 2015-05-08 오전 11:37:28

시기 · 장르별 육사작품의 동향

	시	수필	평문	소설	서평	방문기	서간	앙케이트	합계
1930	1		1						2
1931									0
1932			2			1			3
1933			1				1(엽서)		2
1934		1	2						3
1935	2		3						5
1936	3(시조1)		3	1(번역)					7
1937	2	2	1	1		1			7
1938	4	3	2		1				10
1939	4	1	2						7
1940	7	3			1		1		12
1941	5	3	2	1(번역)				1	12
1942		2					1		3
1943	4								4
유작	12(한시3)								12
합계	44	15	19	3	2	2	3	1	89

*이 표는 김희곤, 『이육사 평전』, 푸른역사, 2011, 189쪽의 표를 참조하였음.

위의 표를 보면 그의 대부분의 작품이 1933년 이후에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1937년 이후에 가장 활발하였음이 확인된다. 1937년은 그가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주거를 옮긴 해였다. 그가 처음 서울에 자리를 잡은 곳은 명륜동이었다. 그리고 1939년 종암동으로 다시 이사를 간다. 그는 그곳에서 3년 가까이를 살며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처음 언급한 '청포도',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인 '절정'도 그의 종암동 시절의 작품이다. 종암동이라는 공간이 그의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곳이 그에게 일종의 '사색처思索處'역할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41년 폐질환으로 그는 종암동을 떠나게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01 1장.indd 43 2015-05-08 오전 11:37:28

절정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北方)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01 1장.indd 44 2015-05-08 오전 11:37:28

이육사 이름의 유래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李源祿이다. 자字는 태경台卿이고, 어릴 적 이름은 원삼源三이다. 이육사가 처음 필명으로 사용한 이름은 1929년 후반기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활李活이었다. 이육사라는 이름이 처음 확인되는 것은 1930년 10월 『별건곤』이란 잡지 5권 9호인데, 여기에서 이육사는 목차에는 이활, 본문에는 이육사二六四를 사용하고 있다. 이 이육사가 대구 형무소 시절 그의 수형번호에서 유래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숫자 二六四로 표기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이후 그는 '고기를 먹고 설사한다'는 뜻을 가진 육사肉瀉라는 이름을 쓰며 세상을 조롱하기도 했고, '역사를 죽인다'는 뜻을 가진 육사戮史를 사용하며 혁명을 꿈을 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육사陸史이다. 아마도 다른 '육사'에 비해 노골적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01 1장.indd 45 2015-05-08 오전 11:37:29



미아리 공동묘지 야화

1958년 11월 연재된『동아일보』'미아리 공동묘지 야화'를 재구성 하였음

딸 묘지에서 의문의 모래 세례를 받은 남자

삼십 대를 갓 넘은 것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의 딸을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었다. 자신의 첫 딸이자, 외동딸이었다. 부모를 잃은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있어도 자식을 잃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없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슬픔이 커서라고 한다. 서른 초반에 딸을 잃은 남자의 슬픔 역시 그러했다. 그는 틈만 나면 딸의 무덤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삼 개월이 흘렀다. 그는 딸이 그리워 미아리 공동묘지를 찾았을 뿐이지만, 어느새 공동묘지의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

그런 그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설마 따라 죽지는 않았겠지?'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딸이 좋아하던 인형과 과자를 가득 안고 다시 묘지에 타나났다. 사람들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여전히 딸을 잊지 못하는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딸의 묘지에 가져온 선물을 내려놓고는 앉아서 중얼거렸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 뭐라고 말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죽은 딸과 이야기하는 듯싶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무엇인가에 놀라 새파랗게 질려 살려달라고 외치며 관리 사무실로 달려왔다.

관리소 사람들은 그를 안심시켰다. 물도 한 잔 주고, 진정시키고 나니 그는 지난날을 이야기 했다. 그의 이름은 권표옥이었다. 청진동에

01 1장.indd 46 2015-05-08 오전 11:37:31

사는 그는 딸을 자주 보고 싶어 멀지 않은 이곳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고 매일 같이 찾았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일이 바빴던 그는 저녁 무렵이 돼서야 딸의 무덤을 찾아 왔다. 그리고 평소처럼 둘러보며 말했다고 한다. "혼자 있으려니 쓸쓸하지?", "내가 왔으니 안심하고 놀렴", "어머니는 바빠서 못오신단다". 자식 잃은 부모가 무덤에 찾아와 흔히 할 수 있는 말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아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 귀가 잘못 됐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아버지" 분명히 살아 있을 때 자신에게 응석을 부리던 딸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바로 딸의 묘지에서 흘러나왔다. 저녁 무렵 공동묘지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반갑기 보다는 두려웠다. 그는 빠르게 묘지를 내려왔다. 그 다음날은 무서워 딸의 무덤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다시 찾아간 딸의 무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다시 딸의 무덤을 매일 같이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딸 무덤에 제초를 끝내고 쉬고 있었다. 주위에는 별로 사람이 없었고 멀리 일하는 인부 모습이 간혹 보일 정도였다. 이때 그의 귀에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자기 딸의 울음소리였다. 무서웠지만 그는 그 울음소리의 출처를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처음에는 분명히 묘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울음소리도 그쳤다. 한참 그곳을 지키고 있으려니까 이번에는 묘 앞쪽에서 모기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났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 봤으나 아무것도 없었다.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든 그는 지난 날 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와 같이 급히 묘지를 내려왔다. 그가 한

01 1장.indd 47 2015-05-08 오전 11:37:31

동안 딸의 묘지를 찾지 않은 것은 그날 이후였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못 찾아 온 것이 미안했던 그는 딸이 좋아하던 물건들을 잔뜩 갖고 묘지를 찾았다. 딸의 무덤 앞에 가져온 물건들을 놓고 명복을 빌던 참이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모래가 쏟아졌다. 머리에 모래를 뒤집어쓴 그는 당황하여 주위를 살피는데 다시 한 번 모래가 날라 와서 양복에 뿌려졌다. 갑자기 지난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새파랗게 질려 뛰어 내려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일 년 넘게 딸의 무덤을 찾지 않았다.

그가 정말 '아빠, 아빠'하는 딸의 목소리와, 흐느끼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을까? 또 모래 세례를 맞았을까? 지금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그것이 정말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첫 번째는 아빠를 그리워했던 딸의 목소리였고, 두 번째는 오랜만에 온 아빠를 보고 반가워 울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온 아빠를 약올리기 위한 장난은 아니었을까?

못 이룬 사랑

해방 직후의 일이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누구인가 공동묘지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사무실에서 숙직하는 사람들은 잠에 취해 듣지 못했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은 묘지 바로 아랫동네에 사는 부락민들이었다. 이들의 표정을 보아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였다.

성급한 한 부락민이 말했다. '저기 시체가 나와있어요.' 그는 산

01 1장.indd 48 2015-05-08 오전 11:37:32

아래쪽을 가리켜 손가락질을 했다. 그들은 어젯밤, 삼일 전에 쓴 어떤 처녀의 묘가 파헤쳐져있으며 그 묘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 관이 놓여 있다고 말했다.

사무소 사람과 인부들은 한걸음에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 과연 산소는 파헤쳐져 있었고 그 바로 앞에는 괭이와 부삽이 그리고 약 5m 떨어진 곳에는 관이 놓여있었다. 누가 관을 파내서 메고 가려다가 내려놓은 것임이 분명했다. 사무소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대로 둔채 인근 파출소 경찰관에게 알렸다.

그 파헤쳐진 산소의 주인공은 서울시내 영등포에 살던 21세 김모양이었다. 이 사건으로 미아리 공동묘지에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서 형사들이 나오는가 하면 검찰에서 검사가 나와 현장 검증을 하고, 신문기자들이 몰려나왔다.

다음날, 신문에는 그 산소를 파헤쳐서 시체를 훔쳐가려던 범인을 잡았다고 보도되었고 신원과 범행동기, 그리고 사건 경위 등도 상세히 밝혀졌다.

오랜 신병으로 죽은 김모양과 한 동네에 살던 김씨라는 남자가 범인이었다. 김씨는 김양과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김양을 자주 보았고 언제부터 연정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김씨는 김양에게 이야기를 건네는데 성공했고 그 후부터는 자주 만나기까지 했다. 사랑이 한참 무르익어갈 때 김양은 가슴(폐병)을 앓기 시작하여 병석에 눕게 되었다. 김씨는 더 늦기 전에 김양과 결혼하려 했고, 가족을 통해 김양 부모에게 청혼을 하였다. 그러나 김양 부모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혼기도 차지 않았고, 병이 있다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다. 그날 이후 김씨는 김

01 1장.indd 49 2015-05-08 오전 11:37:32

양을 볼 수 없었다. 애인을 만나볼 수 없게 되자 그는 앞이 캄캄해지고 미칠 것 같았다. 그러나 김양의 집 근처를 매일같이 둘러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양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나왔다. 김양이 죽은 것이다. 김씨는 문상을 가서 시체가 놓인 방에 들어가 나오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례는 치러야 했다. 김양은 미아리 공동묘지 한 모퉁이에 조용히 묻혔다. 김씨는 남들이 보지 않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한없이 울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김양이 다시 살아날리 없었고, 슬픔은 더 해졌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산소에 가서 죽은 시체나마 파오는 것이었다.

김양이 묻히고 사흘 째 되던 날 밤 김씨는 땅을 파는 연장을 가지고 애인 김양의 묘를 찾았다. 덮어 놓고 파기 시작하였지만 위의 흙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그렇게 쉽게 관을 팔수는 없었다. 한 시간쯤 팠을까? 괭이가 나무 관에 닿는 소리가 났다. 관을 파낸 김씨는 관을 등에 매고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이 생각보다 무거웠다. 멀리 가져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김씨는 관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애인을 메고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궁리를 해봤으나 해결의 방도가 나오지 않았다. 주위는 캄캄하고 먼 곳에는 무슨 짐승 우는 소리도 들렸다. 김군은 별안간 무서운 생각이 들고, 그 관 옆에 서있기가 싫어져 나중에는 관을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01 1장.indd 50 2015-05-08 오전 11:37:32

미아리 공동묘지의 외국인

미아리 공동묘지에는 외국 사람의 무덤이 삼백여개 있었다. 모두 중국인들의 무덤이었다. 1958년 무렵 서울시 당국에 의해 연고가 있는 무덤의 이장지시가 내려졌다. 자연히 한국 사람들의 무덤과 함께, 중국 사람들의 무덤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장을 하는 인부들은 대목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도 중국인 무덤의 이장은 꺼려했다. 바로 밤에만 이장하는 중국인들의 특이한 관습 때문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인들인 해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만 이장을 하러 왔다. 인부들이 한창 잘 시간이었다. 중국인들은 그 시간에 사무실에 찾아와 인부들을 깨우고 미리 준비한 횃불로 길을 밝혀가며 자신들이 이장할 무덤을 찾아가 작업을 했다. 잠을 못자 힘들기도 했지만 이유가 궁금해 인부 한명이 중국인에게 물으니 '시체가 태양을 보면 그 후손이 멸망까지는 모르지만 못살게 되는 것이 틀림없기



이장중인 미아리 공동묘지의 모습

01 1장.indd 51 2015-05-08 오전 11:37:32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대낮에 이장을 하겠다고 나타난 중국인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짜 중국인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곧 의심을 거뒀다. 그는 무덤 위에 넓게 장막을 치고 그림자를 만들어 햇볕이 들지 않게 하고야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시체를 꺼내서 새로운 관에 담을 때도 햇볕을 쪼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인부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장 하는 시간 말고도 중국과 한국의 장례 문화에는 차이가 많았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소위 '손 없는 날'이나 '아흐레나 열흘날(음력)'을 택해 이장을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가리는 날이 없다. 또 중국인들은 한국과 다르게 사람이 죽기 전에 몸을 깨끗이 닦아주고 수의를 입혔는데, 그 수의는 흰색이 아니라 일곱 빛깔을 띤 것이었다. 상주들이 검은 옷을 입는 것, 상주가 들었던 지팡이를 관 옆에 세운 채로 흙을 덮는 것, 장례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상복을 모두 벗는 것도 한국 문화와는 달랐다.

문화가 달라 일어난 에피소드도 있었다. 미아리 공동묘지에 처음 중국 사람들이 묘를 쓸 때 일이다. 그들은 관 위에 돌을 집처럼 쌓아올려 관만 가리겠다고 했다. 관리 사무소 사람들은 그것이 묘지규칙 위반이라고 거절했다. 양측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매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것을 선례로 이후의 중국인들도 모두 매장하게 되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죽은 시체나마 고향에 가져가기 위해 타지에서 죽으면 땅에 묻지 않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01 1장.indd 52 2015-05-08 오전 11:37:32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라고 해도 삶과 죽음의 헤어짐이 슬프지 않을 리 없다. 그 중에는 어린 자식을 묻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먼저 떠난 자식을 그리며 남긴 묘지명으로 미아리 공동묘지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자한다.

이봉근은 1927년 5월 30일 창경원의 아침 꾀꼬리 소리에 나다.
밝고 착하고 재주 있어 사랑과 칭찬을 받다. 이화유치원 성탄 축하 연설로 갈채를 받다. 20분 동안에 한글을 깨쳐 신문에서 받침 없는 글자를 골라 읽다. 하나님, 부처님, 죽은 뒤, 전쟁, 만주사변 등 문제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창작하고 그림과 음악을 즐기다. 보통학교에 입학하려는 기쁨 속에 1934년 2월 22일 아빠하고 같이 올라갈 마지막 웃음으로 인왕산에 지는 해와 함께 영원히 잠들다. 6년 8개월 우리의 기쁨이오 큰 희망이던 너를 여기 묻노라.
아빠 이광수
엄마 허영숙

(박수진)

01 1장.indd 53 2015-05-08 오전 11:37:32

한국전쟁과 미아리고개



전쟁의 시작 그리고 서울 방어를 위한 마지막 전투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40분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었다. 전날인 24일이 주말이었으므로 국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병력이 외출하여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그날 저녁 육군본부에서는 장교클럽 낙성파티가 열렸는데 여기에 전방부대 사단장들까지 초청되었다. 파티는 6월 25일 새벽 2시, 즉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기 약 두 시간 전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니 군수뇌부의 머릿속에서 북한군의 대규모 남침은 최소한 6월 25일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침은 6월 25일에 시작됐다.

전쟁이 시작되던 시점의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북한의 압도적인 우세가 두드러진다. 북한은 13만 5천여 명의 지상군을 확보하고 있었고, 소련제 T-34형 탱크 240대, 야크 전투기와 IL 폭격기 200여 대, 각종 중야포와 중박격포로 무장하고 있었다. 반면에 남한은 정규군 6만 5천여 명, 해안경찰대 4천여 명, 경찰 4만 5천여 명에 항공기라곤 대공포화가 없는 지역의 정찰만을 위해 쓸 수 있는 6대가 전부였고, 탱크 및 기갑차량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포병이 가지고

01 1장.indd 54 2015-05-08 오전 11:37:35

있는 중화기도 북한군의 T-34 탱크를 격파하기에는 화력이 부족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황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옹진반도와 개성 방면에서 국군의 철수가 이어지고, 개전 하루만인 6월 26일 오후 1시경에는 경기 북부의 요충지인 의정부가 북한군에게 점령되었다. 북한군의 예봉이 다음으로 향할 곳은 다름 아닌 수도 서울이었고, 국군은 서울을 사수하기 위한 방어선을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인 창동과 미아리고개에 구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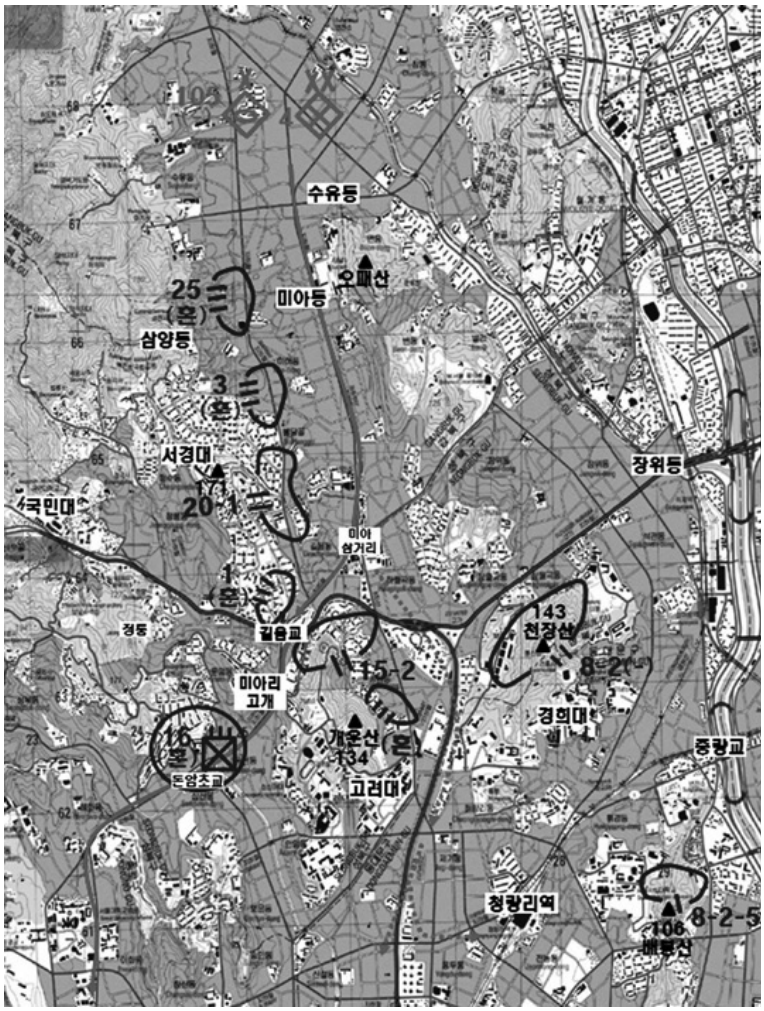


서울을 사수하라 - 창동 · 미아리 전투와 국군의 항전

당시 창동은 의정부와 서울의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창동과 그 일대를 '서울사수'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으로 판단하였다.

6월 27일 17시 양주군 노해면 지서(지금의 쌍문지구대)에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사령관에는 제7사단장 유재흥 준장이 임명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창동지역에 투입된 제2사단을 포함한 모든 전투부대를 통합·지휘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국군은 전쟁 발발 이전 "국군은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명령만 있으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다"라는 국방장관 신성모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통신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전투를 치르는데

01 1장.indd 55 2015-05-08 오전 11:37:37



미아리지구 전투 상황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탄약과 식량의 보급지원체제조차 갖추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동방어선에 집결한 병력은 부대별로 300~700명 수준으로 총 1개 연대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이 상대

01 1장.indd 56 2015-05-08 오전 11:37:37

해야할 적은 전차 40대와 자주포 및 차량을 보유한 북한군 기갑부대였다. 27일 아침 8시경 공격이 시작되었다. 국군은 105mm 곡사포 6문과 57mm 대전차포를 쏘며 북한군 전차의 진격을 막으려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포탄이 모두 떨어졌고, 병사들이 휴대했던 실탄마저 모두 고갈되었다. 결국 창동방어선은 전투가 시작된 지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27일 오전 11시경에 돌파되고 말았다.

창동방어선을 돌파당한 국군은 소대·중대 단위로 분산되어 미아리방어선으로 후퇴하였다. 이보다 앞서 채병덕 총참모장은 27일 아침 7시경에 제5사단장 이응준 소장을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하고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유재흥 준장과 함께 미아리방어선에서 서울방어를 위한 최후의 결전을 하도록 하였는데, 창동방어선이 무너진 뒤 약 2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철수병력이 미아리 일대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때 유재흥 준장도 미아리방어선 현지에 도착하였다.

창동방어선에서 철수한 병력을 재편성하고 후방에서 증원된 국군 제5사단 제15연대 2대대, 제20연대 1대대 및 수도경비사령부의 제8연대 2대대 등이 합류하여 도합 3,000여명의 병력이 북한군의 서울 진입을 막기 위한 미아리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지휘계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 좌측부대는 이응준 소장이 우측부대는 유재흥 준장이 지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창동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은 149고지(지금의 신일고등학교 뒷산)에서 일단 진격을 멈추고 전황을 살피고 있었으므로, 상황은 잠시 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시간을 이용하여 국군은 방어진지를 편성하면서 길음교와 중랑교에 폭약을 설치했다. 다리를 폭

01 1장.indd 57 2015-05-08 오전 11:37:38

파하여 북한군 전차의 진격을 막기 위함이었다. 방어진지 편성과 교량 폭파 준비를 끝마쳤을 즈음 서울시 애국부인회와 여학생 위문단이 미아리전선을 방문하여 국군 장병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이들은 돈암동 전차종점 광장에서 대형 가마솥 100여개를 걸어 놓고 주먹밥을 만들어 장병들의 허기를 달래주었다고 한다. 전투를 치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장비와 식량의 보급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병들의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애국부인회와 여학생 위문단의 위로 및 격려는 거듭되는 패배로 떨어져 있는 국군의 사기를 북돋는 역할을 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때 한차례의 해프닝이 있었다.

27일 낮 채병덕 총참모장은 미아리방어선으로 달려가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에게 "28일부터 B-29 중폭격기 100대가 국군을 지원하러 온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일선 장병들에게 전해졌다. 총을 쏴도 포를 쏴도 끄떡없이 왁왁 밀고들어오는 북한군의 T34/85 전차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장병들에게, 조금만 더 버티면 월등한 장비를 갖춘 미군이 지원하러 온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가뭄 끝에 단비와도 같았을 것이다. 장병들의 사기는 악화일로의 전황과는 달리 한껏 고양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미군의 지원은 서울이 함락된지 3일 후인 7월 1일이 되서야 뒤늦게 이루어졌다.

후일 채병덕 총참모장의 발언은 장병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즉흥적 발언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게 되지만, 실제로 당시 육군본부는 곧 미군이 참전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27일 오후 4시쯤 주한 미 군사고문단장 대리 라이트 대령이 미 극동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서울로 복귀하라, 미 공군과 해군의 제한적인 공격이 한국에서

01 1장.indd 58 2015-05-08 오전 11:37:38

전개될 것이다. 힘을 내라!"라는 내용의 전문을 받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보다 3시간 전 시흥까지 후퇴했던 육군본부는 다시 서울로 복귀했다. 또한 이 시각 방송에서는 맥아더 사령부가 전방 지휘소를 서울에 설치했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다. 물론 이 뉴스는 맥아더가 15명의 현지 시찰단을 파견한 것이 잘못 알려진데 따른 오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들은 국군에게 조금만 버텨내면 미군의 지원으로 서울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 다가올 전투에서의 승산없는 싸움에 목숨을 내걸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사기만으로 극복하기엔 국군과 북한군과의 사이에 놓은 전력차라는 이름의 강이 너무나도 넓고 깊었다.

북한군의 공격은 27일 오후 5시경부터 시작되었다.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선두부대가 20여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기마부대를 후속시켜 미아리방어선 600~700m까지 진격해 왔다. 김한주 소령이 지휘하고 있던 제20연대 제1대대는 이들의 진로에 집중사격을 실시하여 1대의 전차를 격파하는 등의 전과를 거두고 북한군을 일시 후퇴시켰다. 하지만 27일 자정 북한군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고, 국군의 방어진지가 차례로 돌파되기 시작했다. 국군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길음교 폭파도 폭파시기의 판단착오로 인해 교량폭파에 실패함으로써 북한군의 전차가 길음교를 통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15연대 2대대가 중심이 되어 북한군 전차를 막기 위해 모든 화력을 퍼붓는 육탄공격을 20여 분간 감행하였으나 김정순 대위 등 장병들의 희생만을 남기고 실패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이즈음 장병들이 휴대한 탄약마저 떨어져 가고 있었다.

01 1장.indd 59 2015-05-08 오전 11:37:38

28일 새벽 1시, 5~6대의 북한군 전차가 미아리방어선을 최초 돌파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아리방어선이 붕괴되었다. 국군의 사기는 크게 떨어져 대부분의 부대가 분산되어 철수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부대는 방어진지에서 끝까지 저항하거나 서울시내에서 국지적인 시가전을 펼쳐 북한군에게 타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만으론 서울로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의 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남겨진 자의 선택 - 북한군의 서울 진입과 서울 시민들의 삶

역사학자 김성칠은 북한군의 탱크가 서울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이윽고 날이 밝아오자 포성이 뜸해지기에 밖을 내다보니 낙산 위에 늘어섰던 포좌(砲座)가 간 곳이 없고 멀리 미아리고개로 자동차보다도 크고 육중해 보이는 것이 이곳을 향하여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저것이 대포알을 맞아도 움쩍하지 않는다는 이북의 탱크가 아닌가 싶다. 앞으로 내려다보이는 돈암동 거리엔 이미 사람의 나다니는 양이 보이고 전찻길엔 이상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떼지어 행진하고 있다.
>
> 그 지긋지긋하던 포성이 그치어 사람들의 얼굴엔 이제야 겨우 살아났다는 안도감이 역력히 보이나 밤사이 세상은 아주 뒤집히고야 만 것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아닌 딴 나라 백

01 1장.indd 60 2015-05-08 오전 11:37:40

성이 되고 만 것이다.[1]

이보다 앞서 정부는 서울을 떠나고 없었다. 27일 새벽 1시에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 수원 천도가 결정되었지만, 국방장관 신성모와 총참모장 채병덕은 3~5일 안에 평양까지 점령할 수 있다는 장담을 그치지 않았고, 그들이 설명하는 전황을 들은 국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수도 사수를 결의하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수도 사수를 결의하고 있던 시간 대통령 이승만은 기차를 타고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각하, 너무 많이 내려오셨습니다"라는 참모들의 건의에 다시 올라와 대전에 머무르고 있었다. 대통령의 피난 소식을 들은 국회의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장관들은 제각기 서울을 탈출하였다.

하지만 이날 방송은 서울 시민들을 철저하게 속였다. 김성칠의 기록에 따르면 27일 새벽 라디오에서 신성모 국무총리 서리의 특별방송이라 하여 정부가 수원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공보처 발표라 하여 아침의 수원 천도 운운이 오보이며 정부는 대통령 이하 전원이 평상시와 같이 중앙청에 집무하고 있고 국회도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선에서도 충용무쌍忠勇無雙한 우리 국군이 한결같이 싸워서 오늘 아침 의정부를 탈환하고 물러가는 적을 추격중이니 국민은 군과 정부를 신뢰하고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직장을 사수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김성칠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날 저녁 10시에는 대통령 이승만의 담화가 방송을 타고 나갔다. 우리 국군이 적을 물리치고 있으니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정부발표를 믿고 동요하지 말 것이며, 대통령도

01 1장.indd 61 2015-05-08 오전 11:37:41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킬 것이라는 요지의 담화였다. 이 방송은 미아리 근처에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에 불안해 하던 서울 시민들을 안심시켰고, 그들에게 정부와 군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오발탄』을 쓴 소설가 이범선의 회고는 당시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정부의 발표를 굳게 믿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

> 역시 공산군이 서울에 들어왔다는 소문은 헛소리라고 생각하며 광화문까지 나왔다. 그런데 어떤가! 중앙청 앞에 탱크가 늘어서 있는 것이 아닌가.
>
> 몇 대 쯤이었는지는 기억 못하나 어쨌든 잔등에 풀을 꽂고, 그리고 포신에 빨강 헝겊을 달고 탱크가 군데군데 서 있었다.



1960년대 초 확장공사 중인 미아리고개 길. 멀리 낙산이 보인다.

01 1장.indd 62 2015-05-08 오전 11:37:41

그래도 나는, 그것들이 혹 국군이 위장을 한 것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이제 북진을 하기 위해서 국군탱크가 그렇게 공산군처럼 꾸민 것이라 믿었다. 그래 나는 슬금슬금 중앙청 앞으로 걸어 올라갔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었으나, 그 때는 그것을 국군탱크로 믿고 있었으니까.[2]

그러나 세상은 달라졌다. 김성칠의 회고처럼 서울 시민들은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이 아닌 딴나라 백성이 되고 말았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도망치거나 숨거나 아니면 생존을 위해 순응하는 것이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떠난 이별고개
화약연기 앞을 가려 눈못뜨고 헤매일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손 꼭꼭 묶인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많은 미아리고개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섣달 기나긴 밤 북풍한설 몰아칠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오
십년이 가도 백년이 가도 살아만 돌아오소
울고넘던 이 고개여 한많은 미아리고개

01 1장.indd 63 2015-05-08 오전 11:37:44

1956년 발표된 노래 <단장의 미아리고개>는 발표되자 마자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으로 불리고 있다. 전쟁의 비극과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을 절절히 묘사한 가사는 가수 이해연의 애절한 목소리와 함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왔다. 그런데 이 가사에는 작사가 반야월의 개인적인 사연이 반영되어 있다. 반야월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 6.25가 터지자 나는 곧 T셔츠 바람으로 혼자서 고향 마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출발이 좀 늦었던 탓으로 산길만을 골라 내려갔지요. 미아리고개 너머, 지금은 미아동 쯤 되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집에 아내와 1남 2녀, 3남매를 남겨둔 채였습니다. 아내는 그 뒤 1.4 후퇴 때 처가가 있는 김천을 거쳐 마산으로 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둘째 딸 수라가 죽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때 다섯 살 먹은 어린애였는데 난리통에 식량이 없어 밀기울밥을 먹고 지내던 끝에 영양부족으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3]

반야월의 부인 윤경분은 수라의 시신을 미아리고개 근처 공동묘지에 묻고 피난을 나왔다. 1956년 10월, 반야월은 마산에서의 피난생활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부인과 함께 둘째 딸 수라가 묻힌 곳을 찾았다. 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딸에 대한 죄책감을 담아 노랫말을 지었고, 이렇듯 그가 말 그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며 만든 노래가 바로 <단장斷腸의 미아리고개>였다.

01 1장.indd 64 2015-05-08 오전 11:37:44

노래는 1절과 2절로 나뉘어져 있는데, 반야월 자신의 사연은 2절에 담겨있다. 1절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기 전 강제로 북송된 사람들의 사연이다. 그들이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북으로 끌려가던 길이 바로 미아리고개였던 것이다. 그들은 어떤길로 어떻게 끌려갔을까? 북으로 끌려가던 도중 기적적으로 탈출한 몇몇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대략이나마 그 때의 비극적인 풍경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 앨범



미아리고개에 세워진 '단장의 미아리고개' 노래비

밧줄로 꽁꽁 묶인 죄없는 죄수들이 서대문형무소를 나선 것은 낮 12쯤이었다. 그 때 서대문형무소는 주위에 건축물이 별로 없어서 꽤 높은 언덕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형무소를 나서며 시가지를 바라보니 온통 불바다였다. 곳곳에 부서진 가재도구가 널려있고 건물들은 부서져 있었다. 서울은 두 달 사이에 폐허가 되어 있었다.

종로를 지나올 때까지만 해도 정말 뚝섬 쪽으로 가나보다 했는데 종로4가에서 행렬은 미아리쪽으로 꺾어졌다. 북으로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의 힘이 쭉빠졌다. 2개월동안 밥도 제대로 못먹었으니 나의 몸은 쇠약할대로 쇠약해져있었다. 한여름에

01 1장.indd 65 2015-05-08 오전 11:37:44

잡혀왔으니 옷도 반소매 옷이라서 벌써 한기마저 들기 시작했다. 삼선교 못미쳐서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나이 어린 인민군이 달려와 구둣발로 걷어차며 일어나라고 했다.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으나 미아리고개를 넘지 못하고 나는 다시 쓰러졌다. 같이가던 남자에게 나를 업고 가라고 했다. 그러나 그도 몇발자국 못가 쓰러졌다. 영락없는 지옥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 자리에서 숨진다면 지나던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남편에게 알려주겠지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의식은 점점 몽롱해져가고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아마 인민군이었겠지만) 나를 질질 끌고가더니 길옆에 모래주머니로 만든 벙커속으로 처박았다. 그리고 개머리판으로 나의 머리를 내리쳤다. 퍽하는 소리를 마지막 들으며 나는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다시 의식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무언가 얼굴을 갑갑하게 내리덮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거적이었다. 젖먹던 힘을 다해 그것을 밀치고 나니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다. 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들은 내가 죽은줄로 알고 거적까지 덮어두고 갔지만 나는 다시 살아난 것이다.[4]



끌려가던 사람들이 하도 많아 어림잡아 헤아릴 수도 없었지요. 손목을 묶은 쇠사슬이 모자라 소끌던 밧줄로 엮어

반야월(1917~2012). 본명은 박창오(朴昌吾)이다. 가수로 활동할 때는 진방남(秦芳男)이라는 예명을 썼고 그밖에도 추미림(秋美林), 박남포(朴南蒲), 남궁려(南宮麗), 금동선(琴桐線), 허구(許久), 고향초(高香草), 옥단춘(玉丹春), 백구몽(白鷗夢) 등의 여러 예명을 사용했다. 작사한 곡 중에 크게 히트한 곡으로는 〈울고 넘는 박달재〉(1948), 〈무너진 사랑탑〉(1958), 〈열아홉 순정〉(1957),〈아빠의 청춘〉(1966), 〈소양강처녀〉(1969) 등이 있다.

01 1장.indd 66 2015-05-08 오전 11:37:44

끌고 갔고 뒤처진 사람들은 포탄이 떨어진 구덩이에 집단으로 몰아 넣고 학살해 부근의 산마다 시체들이 즐비했었지요.[5]

이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미아리고개를 거쳐 북으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탈진해서 쓰러져 죽거나, 뒤쳐질 경우 북한군의 총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군이 철수하고 난 후 미아리고개에는 북송 중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즐비했는데, 가족을 납치당한 사람들이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 세 겹 네 겹으로 포개져있는 시신들을 들춰보았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진다. (위가야)

01 1장.indd 67 2015-05-08 오전 11:37:44

도시의 확장과 미아리고개



1910~1920년대 돈암동

동소문 밖은 조선시대 이래 도성 외의 구역으로 성저십리에 속한 지역이었다. 도성 인근지역으로 도성에서 필요한 채소와 쌀 등 생필품을 공급하던 곳이었다. 1910년대 이전의 상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1913년에 '돈암리 주재소(신설)'[6]이라는 기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14년 부제 실시로 인해 동소문 밖 지역은 새로 신설된 고양군 숭인면에 속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성부는 식민통치기관을 건설하기 위해 건축자재가 필요했다. 건축자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전국에 채석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채석장과 경성부에서 운영하는 채석장이 있었다. 동대문구의 창신동 채석장은 경성부에서 운영하는 채석장이 있었고, 숭인동 채석장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채석장이 있었다. 이에 못지않게 돈암리 부근에 네 개의 채석장이 있었다. 지리적으로 도성과 가까운 곳에 질이 좋은 화강암을 얻을 수 있는 이곳을 경성부가 그냥 지나칠 리 없었다. 여기에서 캐낸 돌

01 1장.indd 68 2015-05-08 오전 11:37:47

들은 조선총독부 공사와 조선신사건설, 경성토목출장소 그리고 기타 필요한곳에 사용되어져 왔다.[7] 지금의 정덕초등학교 근처인 일명 '돈암 채석장', 미아동 산75(인수동 633)번지 '국도 채석장'이 있었다.

〈표 1〉 1916~1930년 숭인면 인구수현황[8]

지역	구분	1916년	1920년	1925년	1930년	비고
숭인면	돈암리	1,664	1,304	1,917	2,462	1936년 한성부 편입 (돈암정, 안암정, 신설정일부)
	안암리	413	892	1,237	1,817	
	계	2,077	2,196	3,154	4,279	

채석장 인근을 제외하고는 자연촌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큰 촌락보다는 작은 단위의 마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돈암리 인근 4개, 종암리 1개의 채석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주거지로서의 기능은 미미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본격적인 인구증가는 1930년대 후반에 가서야 이루어진다. 당시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 동대문 밖 돈암리 부근에는 네 군데의 채석장이 있어 날마다 폭발약으로 경찰서에서 말리기전에 스스로 그 부근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더라. 바위를 깨뜨리는 중 요사이 버섯을 따러 오는 사람이 부근으로 모여들어 매우 위험한 때가 많으므로 소관 동대문서에서는 부근을 경계하는 중인데 일반도경(『동아일보』 1923.9.26.)

01 1장.indd 69 2015-05-08 오전 11:37:47

1920년대에 4대문 안의 경성부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땅값과 집세가 오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교외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1920년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문화주택 건설의 붐도 한 몫 하였다. 동대문이나 서대문 밖으로 주택이 새로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교외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교외 지역의 주택수요 증가는 곧 경성부 밖으로 진출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집이 비어있는 이른바 공가空家 현상이 뚜렷해지기도 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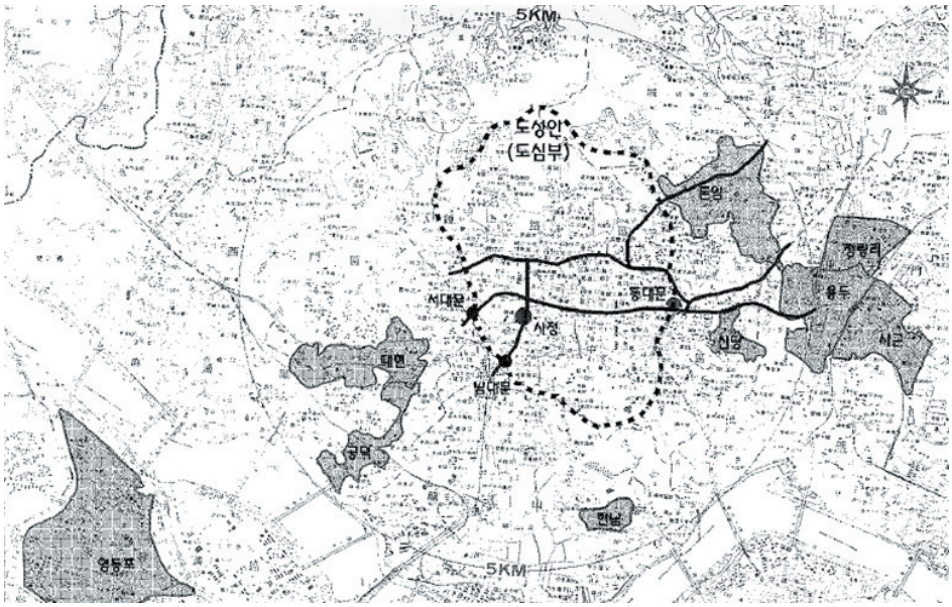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은 1934년에 입안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시초였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제정한 각종 도시계획법령은 당연히 본국을 기본모델로 삼았다. 40만이 넘는 인구를 수용하고 경성부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성부 확장이 필요했다. 경성의 도시문제는 복잡한 문제였다. 토막민 문제, 공동묘지, 상하수도 문제, 치수문제가 얽혀 있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린도시를 추구하는 시가지개발을 목표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시가지계획의 주안점은 도심 외곽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것이었다.[10]

영등포지역에 공업기반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대신 돈암지구에는 주거기능과 상업시설을 갖춘 도시를 염두에 두었다. 당시 신문은 돈암동이 주택지역으로써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01 1장.indd 70 2015-05-08 오전 11:37:50



경성시가지계획 구획정리 총괄도
(김영수,「돈암지구
도시한옥주거지의 도시조직」
『서울학연구』 22, 2004.)

돈암지구는 경성부의 도심으로부터 동북 4km인 동소문 밖을 흐르는 성북천 양안의 지대로 북쪽은 경성-원산 1등도로가 통과하며 남쪽은 신설정의 춘천가도에 연하고 동서쪽은 산악으로 경계한 약 220정보의 산간지대이다. 이 지구는 사위가 산지로 공기가 맑아 주택지대로 가장 양호한 지위에 있어 장래 이상적 주택지로 발전이 기대되며 장래 지구의 중앙을 관통할 간선도로의 양측지대는 상점가로 발전할 것이 예상된다.(『매일신보』 1937.3.31.)

1936년 총독부령 제8호로 경성부 구역확장에 성북구 지역의 대

01 1장.indd 71 2015-05-08 오전 11:3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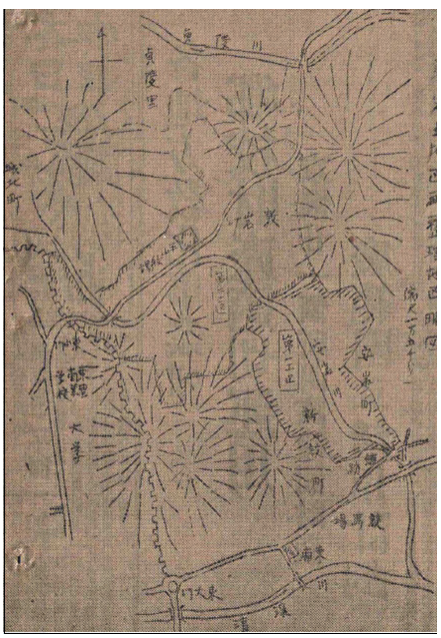
부분이 편입하게 되는데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1936년 경성부 편입 지역

경성부로 편입 된 지역
성북리, 돈암리, 신설리, 안암리, 종암리, 답십리, 전농리, 청량리, 제기리, 용두리, 회기리, 이문리, 휘경리, 정릉리의 일부
고양군 숭인면으로 남게 된 지역
정릉리, 미아리, 장위리, 석관리, 번리, 우이리, 수유리, 상월곡리, 하월곡리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성부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시행한 지구가 돈암지구와 영등포지구였다. 돈암지구내 구획정리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 총면적 704,000만평에 공공시설로 학교 2개소와 공원 10개소가 계획되었다. 1차로 돈암정, 신설정, 안암정, 성북정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2차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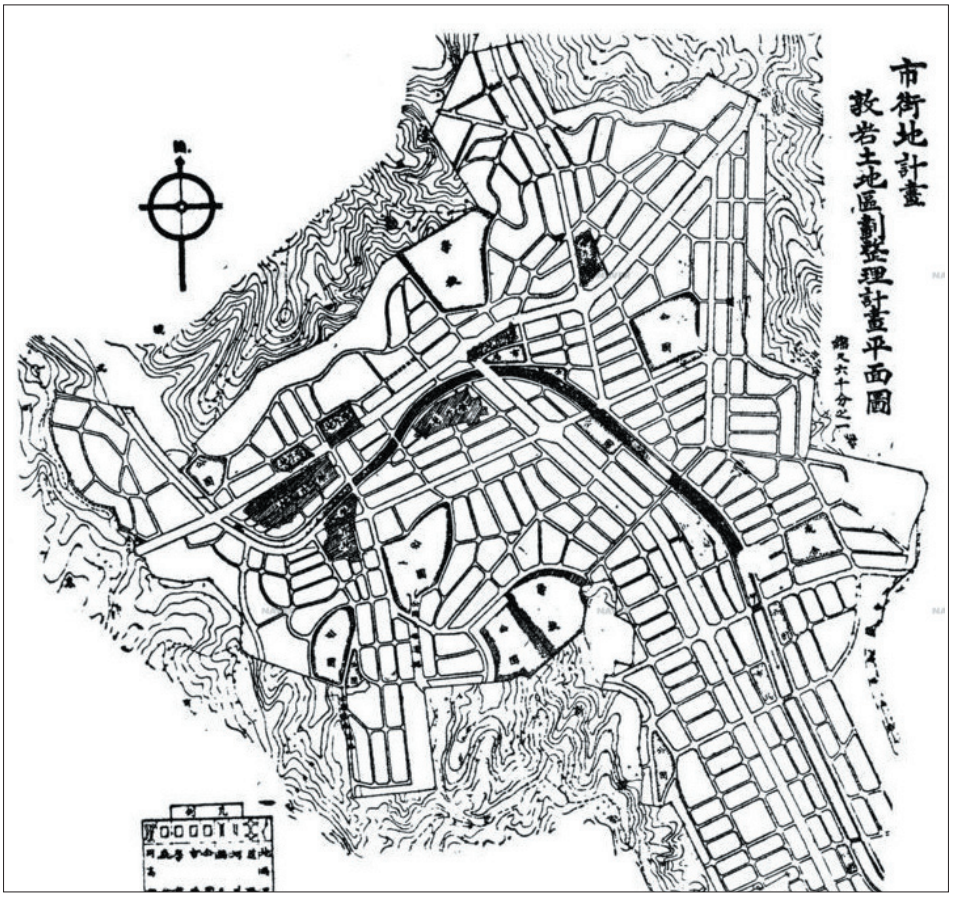
돈암토지구획정리약도



돈암지구의 토지조성사업(2,237,272.8㎡)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1937년 10월 사업인가를 받아 착공한 후 1939년 3월 분양조합을 만들고 1939년 9월에는 실수요자들에게 매각까지 완료되면서 예정 사업기간(1937.2.2-1940.12.31.)보다 약 1년 10개월을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11]

주택공급은 필연적으로 도심의 기반시

01 1장.indd 72 2015-05-08 오전 11:37:50



돈암지구 구획정리 지구 평면도(1939년, 『동아일보』 1939.1.7.)

설 확충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도시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수도 설치 문제와 교통 편의시설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1933년이 되어서야 경전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돈암리까지 운행하였다. 돈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작로'공사가 진행되면서 동소문과 성벽의 일부가 무너지기도 하였다.[12] 공사가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공사하던 중 흙더미가 무너져 인부들이 사망하는

01 1장.indd 73 2015-05-08 오전 11:37:50



삼선교와
돈암동 일대(1939년)



전차 돈암정선
(최인영, 「일제시기 경성의 도시공간을 통해 본 전차노선의 변화」『서울학연구』 41, 2010, 51쪽)

일도 겪게 된다.[13] 쭉 뻗은 신작로를 따라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돈암정선이 일부 개통을 하게 되었고, 1941년에는 돈암정선이 완성되었다.[14] 그러나 전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릉, 미아, 신설, 우이동 방면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버스가 하루에 6번만 운행될 뿐 아니라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겨우 탈 수 있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돈암지구내 주택건축이 활기를 띠어가자 돈암지구내 땅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돈암지구내 주택지는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01 1장.indd 74 2015-05-08 오전 11:37:55

토지열의 영향으로 교외지의 앙등은 현저하나 호가뿐이라고는 하나 돈암정방면의 도로직면처는 평당백원을 부르고 있는데 일방금융 방면에서는 주택문제가 시끄러운 차제인 만큼 투기화가 지나진 행동을 하는 것은 경계 치안 할 수 없다 하야 부당고가라고 하는 편이 재차 대두되어 왔고, 조선신탁등은 토지금융신입에 대하야 시세의 삼분지 일목전 금융을 여하고 보는 모양이다. 다만 이같은 신개지의 과당투기는 영속성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구시내의 토지시세는 용이이 저가를 시현치 못할 것으로 보고 문제는 금후 신력여하가 오히려 주목을 이끌고 있는 터라한다.[15]

돈암지구의 주택지와 신축된 주택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장방형의 일본식 주거에 맞춰져 있었다. 일본인들이 들어오도록 유도해서 조선인들과 일본인들이 섞여 살도록 의도했던 것이다.[16]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인들의 유입은 없었고, 거주자도 대부분이 조선사람이었다. 돈암지구에 입주하는 조선인들은 중산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토막민들과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도심기반시설이 비교적 빨리 갖추어진 돈암지구내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토지 투기로 땅값이 뛰어올랐다. 돈암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가는 시점이었지만 토막민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 돈암정[17] 1번지에 토막민이 200호가 있었다.

도시미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경성부는 돈암정에 살고있던 토막민들을 도심 외곽으로 밀어내었다. 새로운 주거문화의 요람으로 거듭

01 1장.indd 75 2015-05-08 오전 11:37:55

나고 있는 돈암지구에 더럽고, 냄새나고, 보기에도 흉한 토막집은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토막민들은 경성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고, 철거방해를 하며 여러 각 기관에 읍소했지만 철거를 막을 수는 없었다. 토막민들의 교외집결정책을 포기하고 현거주지내에서 토막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취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세민지구를 건설하는데 재정문제가 소요될 수밖에 없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막민들에게 돌아갈 여력이 없었고, 세민들은 도시 한 구석에 버려지게 되면서 이들은 도시빈민의 1세대가 되었다.

경성부는 철거당한 돈암정의 토막민들에게 시 당국이 마련한다고 알려진 중랑천변인 휘경정과 전농정의 일부로 옮겨갈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미 옮겨가서 정착을 준비하던 사람들도 생계의 문제로 인해 다시 4대문 근처로 갈 수밖에 없었다.

돈암지구 토막 철거 현장



돈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면서 주택지 개발, 공공시설 확보, 도로 개설 등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인구 증가의 기반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전차 노선도 확장되어

01 1장.indd 76 2015-05-08 오전 11:37:55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성북구로의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새로운 주거지인 뉴타운이 형성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토막민으로 대표되는 도시하층민들을 강제로 쫓아낸 결과이기도 하다.



도시개발의 명암(해방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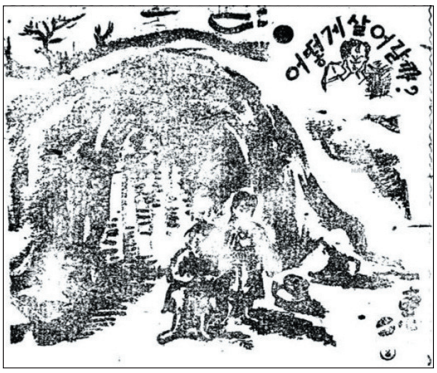
해방이후 성북구 도시공간의 형성

해방 이후부터 제1공화국 시대인 1960년까지의 15년은 우리 역사상 격변의 시기였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경성부가 서울시로 개칭되고, 그 이듬해에는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가 되었다. 3년 뒤인 1949년에는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었으며, 이때 고양군 숭인면으로부터 새로 편입된 지역과 동대문구의 일부지역을 합하여 성북구를 만들었다.

해외동포의 귀국, 월남한 난민과 이주민들의 서울 집중으로 인하여 도시행정구역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던 전재민들이 귀거할 곳은 일본인들이 남기고간 방공호나 움집이 고작이었다.

움집(가주택)은 1920년대 도시공간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수재나 화재, 무작정 상경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움집을 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로 성벽아래, 공동묘지 인근, 궁궐 근방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1930년대 경성부의 세민지구 사업으로 한때 사라지는가 했더니 해방 이후 밀려드는 전재민을 수

01 1장.indd 77 2015-05-08 오전 11:37:58



동소문 움집

용하기 위해서 움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확산되게 된다.

서울시는 해방 이후 늘어나는 전재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삼각토막'이라고 불리는 움집을 짓기로 하고 시범적으로 영등포, 이태원의 국유지에 짓기로 하였다.[18] 움집은 판자를 덧대서 집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이 살 공간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서 한 때 폐기되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움집을 짓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는 덕수궁 앞마당에 움집모형을 만들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재를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미군부대나 한국군부대 근처에 정착한 전재민들은 부대에서 나오는 목판 · 아연철판 · 아스팔트 루핑 · 미군이 쓰던 가병사 퀀셀 등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정부는 1948년 미군이 떠나면서 남겨놓은 각종 자재나 물품을 가지고 밀려드는 전재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미아리에 퀀셀집을 지어 2백 70세대를 수용할 계획이었다.[19] 힘들게 마련한 전재민들의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언제 철거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싸워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위의 사실을 통해 관내는 토막집, 움집, 판자집이 혼재하면서 도시가 형성되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직전에 성북구는 서울시의 동북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01 1장.indd 78 2015-05-08 오전 11:37:58

곳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 서울시에서는 수도 대서울의 면목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같이 팽창해 가는 서울의 발전 확대방향을 미아리와 홍제동 방면에 두고 있다고 한다. 앞서 국회에서는 돈암동의 전차선로를 미아리까지 연장할것이 토의된바도 있거니와 시에서는 예산문제로 즉시 착수하기 곤란하나 예산이 확립되는데로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즉 돈암동에서 길음동에 이르는 약 천메타의 길을 넓이 25메타로 하고 길음교의 넓이 30, 길이 40메타로 하며, 물론 전차선로를 부설할 것이라 하며, 미아리고개의 경사는 15분지 1을 깍아내릴 것이라고 한다. 이세 소□ □ □ □ □사비는 고개가 없어짐으로써 절약되는 자동차 휘발유의 대가와 비등하다 하며 이것이 완성되면 4백만평방 메타의 평지가 생겨서 이만호의 주택을 지을수 있게 되리라 한다 과연 이 계획이 어느 때나 실현될 것인가[20]

1950년 국회에서는 미아리공동묘지 이전 건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21] 미아리 공동묘지 이전 건의 운동은 1941년부터 시작되어 무려 9년 동안 진행된 노력의 결과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으로 추진 동력을 잃어갔다.

한국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주택이다. 서울로 피난민이 몰려들게 되자 정부는 서울시내 곳곳에 재건주택과 부흥주택을 건설하였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전재민들은 토막, 움집, 판자집에서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01 1장.indd 79 2015-05-08 오전 11:37:58

〈표3〉1950년대 성북구 주택 실태표(1953. 3.1. 현재)[22]

구분	불량주택							
성북구	노후고옥		토담집		움집		판자집	
	호수	인원	호수	인원	호수	인원	호수	인원
	210	681	53	202	48	24	133	568

<표 3>의 움집은 다른 마포구, 영등포구, 성동구 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로 보인다.(비교자료가 없음) 당시만 하더라도 성북구는 교외라는 인식이 강해서 움집 보급이 더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에서 움집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이 영등포구와 성동구였기 때문에 많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곳곳에 가주택이 지어지면서 성북구에도 남아 있었다.

또한 운크라(UNKRA)의 원조사업으로 1954년에 안암동에 재건주택 50호가 건설되었는데, 최초로 입주자가 주택대금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나 외국원조기관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규모에는 한계가 있었다.

1955년부터 미아리고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도로포장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23] 미아리고개는 경사가 가파르고 험하기로 유명한 비포장 흙길로, 고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러한 지형으로 인해 고개를 오르며 발생하는 차들의 매연과 흙먼지는 미아리고개 주민들이 빨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한 명절이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성묘행렬로 인해 미아리고개는 1년 내내 병목현상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들의 포장요구는 당연한 것이었다. 또한 한식날과 명절이면 어김없이 성묘행렬로 인해 미아리고개는 1년 내내 병목현상이 발생

01 1장.indd 80 2015-05-08 오전 11:37:58

하는 지역이었다.

서울시는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난민정착촌을 조성하기로 하고, 부지를 물색하던 중 첫 대상지로 미아리를 선정하였다. 1957년 유솜(USOM)의 원조로 건설하기 시작한 난민정착촌은 900채의 주택을 건설하였다. 정착촌에는 난민이 기거할 21.5㎡(6.5평)의 흙벽돌 주택과 함께 공동작업장, 공장 설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자립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2년이 지나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24]

밀려드는 전재민과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서울시는 1957년부터 길음동 2번 묘지 인근을 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연고자에게 묘지이장을 명령하였다. 무연군묘는 당시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에 이장하기로 하고 이전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미아리 일대는 주택지대로 변신을 하게 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명절과 한식날 성묘객들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성묘하기 위해
혼잡 이룬 미아리고개



돈암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40년 연말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촉탁등기는 미뤄지고 있었는데 비로소 1961년 6월에 완료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한지 25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그 동안 '교외'로

01 1장.indd 81 2015-05-08 오전 11:37:58





확장중인 미아리고개(왼쪽)[27] 미아리 확장도로 개통식 (오른쪽)[28]

인식되던 미아리 일대는 이제는 서울시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25]

1963년 법률 172호로 성북구는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진다. 그동안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이었던 창동, 월계동, 쌍문동, 공덕동,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도봉동이 성북구로 편입되면서 서울 동북부를 관할하는 거대 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동북부의 관문인 미아로 확장공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미아로 확장공사는 예산배정문제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수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신시가지 개발을 앞두고 확장이 시급하였다. 이때 공사로 미아로 도로의 폭은 8m에서 구간에 따라 23~35m로 확장되었고, 미아리고개의 경사도 10m이상 낮아졌다.[26]

달동네의 형성

미아리는 1957년 피난민 정착촌이 생긴 이래로 삼양동과 월곡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1959년에 월곡동에도 유솜(USOM)이 원조하는 주택이 들어선다는 입소문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01 1장.indd 82 2015-05-08 오전 11:37:58

성북구 일대에 무허가 건축물이 봇물 터지듯이 지어지게 되었다.

서울시는 4대문 안에서 수재나 화재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들을 교외로 내몰기 시작했다. 집이 없어진 이재민들은 정부가 준 변두리의 국공유지 땅으로 옮겨졌다. 정착촌이라고 불리는 달동네는 그렇게 생겨났다. 이듬해에는 도시계획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도동, 쌍림동, 효창공원 일대에 있던 판자집 철거민들이 미아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미아리로 유입되면서 해마다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달동네가 형성된 것이다.

도시 빈민의 쫓고 쫓기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법정 최소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8~12평의 땅을 주면서 정착촌을 조성했기 때문에 달동네는 무허가 주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29] 선거 때가 다가오면 무허가 판자촌을 합법화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철거는 반복되었다. 미아리정착지사업은 하나의 선례가 되어 성북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무려 20개 지구에 43,509가구분의 판자집 정착촌을 만듦으로써 이곳을 중심으로 그보다 몇 배 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난립을 초래했다.[30]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은 무허가 건물난립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연차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일환으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제등록기간(1965.2.15.~1965.3.15.)을 주어 신고하게끔 하면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무허가 건물의 등록제 실시, 둘째, 수도, 전기시설 일체 불허, 셋째, 구청의 구역제 실기, 넷째, 무허가 건물 건축자 처벌 등이다. 그러나 법의 강력한 집행 의지와는 별개로 선거 때가

01 1장.indd 83 2015-05-08 오전 11:37:58

되면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정치인과 선거를 의식한 정부여당의 일관되지 못한 법집행으로 말미암아 주택사정은 날로 악화되어만 갔다.

<표 4>는 1965년 성북구 무허가 건축물 통계상황이다. 등록채수와 등록세대수를 기본으로 집의 구조별로 토굴, 천막, 판자, 블록조, 연

〈표 4〉 성북구 무허가건축물통계표(1965.3.15.)

동별	등록채수	등록세대수	구조별					
			토굴	천막	판자	목조	블럭조	연와조
성북 1동	198	276	9	1	41	89	58	-
성북 2동	736	732	71	9	46	314	294	1
동소문동	730	730	47	2	214	112	352	1
삼선 1동	36	32	-	-	17	14	4	1
삼선 2동	765	1,375	36	8	63	348	306	4
삼선 3동	572	1,022	108	7	96	167	192	-
동선동	491	755	25	11	63	215	176	-
남선동	211	209	6	1	32	82	88	-
서선동	265	368	11	3	27	94	129	1
북선동	1,656	2,540	250	16	47	862	469	11
정화동	809	809	75	12	72	354	283	6
동암동	119	153	10	-	23	42	42	2
남암동	226	283	4	2	63	44	52	43
서암동	264	420	19	6	79	34	117	4
종암동	1,985	3,970	94	65	440	471	915	-
정릉1동	926	1,343	61	6	66	295	488	7
정릉2동	319	319	14	5	16	140	141	2
정릉3동	1,256	1,255	199	89	165	82	697	3
길음동	294	294	7	7	46	161	59	8
인수동	1,562	2,158	189	29	172	409	755	4
송천동	2,225	3,232	146	29	313	533	1,177	9
삼양1동	2,891	2,753	768	169	157	583	1,183	3
삼양2동	2,148	3,692	220	36	30	824	988	24
월곡동	795	1,382	18	1	93	289	387	1
장석동	473	481	68	3	70	316	3	-
화계동	1028	1,157	110	13	35	401	449	7
합계	22,980	31,740	2,565	530	2,486	7,275	9,804	142

01 1장.indd 84 2015-05-08 오전 11:37:59

와조(기와집), 콘크리트 구조로 분류되어 있다. 1960년대 성북구의 주택형태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31]

<표4>은 모두 1955년 서울시 조례제정 당시에 불렸던 동 명칭이다. 이 명칭들은 1970년 서울시 조례에 의해 지금의 동명으로 개정되게 된다. 동암동, 남암동, 서암동은 1970년 행정구역조정으로 안암동이 되었고, 동선동은 1955년 당시 동소문동, 삼선제1동, 2동, 3동, 남선동, 서선동, 북선동, 정화동 등과 함께 돈암동 일원을 관할하게 되었다. 1965년 정릉3동, 삼양2동이 분동될만큼 성북구로의 인구 유입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돈암동, 동선동1-5가, 동소문동1-5가, 안암동1-4가, 삼선동 1-3가, 보문동 1-5가를 포함하는 지역이 일제강점기 돈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당시의 구역이다. 성북구는 서울의 다른 구 보다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이다보니 고스란히 장단점이 공존하게 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가지를 유지하고 있던 지금의 돈암동 일대를 벗어난 지역에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도시민들이 유입되면서 불량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북선동인데, 이곳은 미아리고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대편은 고명중고등학교였고, 반대편이 산동네라 불리는 지역이었다. <표 3>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북선동과 삼양동에 토굴이 가장 많이 위치했었다. 평지에 집을 지을 형편이 못되거나 월세로도 살기 힘든 도시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산동네로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판자집이 많이 위치한 동은 종암동, 송천동인데, 인근의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상업시설과 관련되거나 시

01 1장.indd 85 2015-05-08 오전 11:37:59

장상인들의 주거가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기와집의 경우에는 남암동 즉 돈암동 쪽에만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와집 자체가 보기 드문 상황이었다. 이처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시기에 불량주택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정착촌사업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성북구는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시는 무허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골조공사만 서울시가 담당하고, 내장재공사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성북구지역에서는 '월곡시민아파트', '정릉시민아파트'가 건립되었는데,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기초공사와 날림공사의 이유로 정릉시민아파트는 1985년을 끝으로 철거되었다. 월곡시민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의 과정을 밟았다.

속칭 '삼양동 달동네'로 알려진 미아 1 · 2 · 6 · 7동은 1959년~1962년 사이 서울 도심의 철거민 · 수재민 4,000여 가구의 집단 이주촌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공유지에 천막촌을 급히 가설하였다. 이후 후암동, 신설동, 남창동, 양동, 도동, 이촌동, 왕십리, 한남동 역시 같은 과정으로 형성되었다. 이후에도 미아 1,2,6,7동은 1962년 숭인동 화재민, 1966년 남산동 화재민 이주, 1967년 청량리에서 이주해온 도시빈민의 마지막 보금자리였다. 서울시내 판자집 실태조사에서 삼양동의 판자촌 주민은 10번에서 15번까지 철거당했던 집이 무려 67%나 되었고, 16번에서 19번까지 철거됐던 집도 35%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나머지는 모두 철거당했던 경험이 있는 집들로 삼양동의 응답자 1백 29명 모두가 철거된 적이 있다

01 1장.indd 86 2015-05-08 오전 11:37:59

는 대답을 했다.[32] 삼양동은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공간속에서도 어떻게 배제되고 타자화 되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삼양동은 서울시에서 버려진 땅이었다. 피난민들은 한사코 삼양동 이주를 망설였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친숙한 생활 터전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점, 의식주 문제의 해결부재와 인적 네트워크의 단절 등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지역 곳곳에 돌산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서울시내에서 생활기반을 마련해 왔던 이들에게는 생계수단이 사라진 셈이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랫동네로 내려가서 동냥을 해서 한 끼 한 끼 연명하는 것이었다.[33]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에도 도심에서 물난리나 화재가 나면 어김없이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로 일단의 수재민, 화재민들이 유입되면서 도심 언저리나 산동네에 밀집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착지 조성에 의한 강제 철거이주 방식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도심외곽지역의 산등성이에 조성된 집단적인 정착지들은 이른바 수많은 "달동네"를 탄생시켰다. 단지 도심에 위치하고 있던 불량주택지구를 교외나 시외로 옮기는 입지적 분산만 시켰을 뿐 정책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현재의 도시골격 형성

1960년대 말 여의도와 이촌동에 건설했던 아파트 분양이 성황리에 마치게 되자 주택산업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전통적인 주거패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서울시는 영동개발과 잠실지구

01 1장.indd 87 2015-05-08 오전 11:37:59

개발을 하면서 판매와 분양에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아파트를 신주거지의 대명사로 선전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개발중심축이 서울동북부권에서 강남개발로 옮겨가면서 성북구는 도시개발 정체라는 상황을 맞게 된다.

도시미화사업과 도시새마을운동으로 성북구 관내 남아 있던 초가지붕을 기와 또는 스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성북구 관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미아리고개에는 점성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남산공원 입구에 자리잡고 있던 '점장이촌'이 도시미화사업으로 밀려나면서 이들이 미아리고개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34]

> 남산공원 입구의 점장이촌이 도시미화에 밀려 없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남대문에서 남산공원을 올라가는 관광도로변에 늘어섰던 관상소, 작명소, 복술가등 점장이집 정비계획에 따라 모두 철거했다. 1천7천80만원의 예산으로 철거한 이 점장이촌은 6.25동란이후 생겨나 이들의 집결지를 이뤘었다.[35]

<보건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국가는 1959년부터 점성가들을 '미신업자'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1970년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미신'을 배격해야 할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점성가들은 남산의 자연생태계와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오염시키는 근원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남산일대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점성가촌을 건전한 도시질서 저해와 관광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명목으로 철

01 1장.indd 88 2015-05-08 오전 11:37:59

거했다. 이들 '점성가'들은 남산을 벗어나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가 지금의 성북구 동선2동에 모여들게 되었는데,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1978년에는 서울 전 지역 중에 가장 많은 점성가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후에 맹인 점복촌이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오늘날의 집단 점성가촌이 되기에 이르렀다.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으로 불량주택재개발 사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성북구 관내의 미관지구, 풍치지구가 확대지정되었다. 성북구 관내 불량주택지구들은 재개발사업의 길이 열렸지만 강남개발열풍으로 인하여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주택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돈암동, 동소문동, 종암동, 정릉동 등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성북구 관내의 주택들은 거의 다 단독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85년 지하철 4호선이 개통되면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지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역 인근으로 전입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유도하면서 성북구 관내에 다세대주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가구당 750만원 정도를 저금리로 융자해주겠다는 조건과 지하철개통수요가 맞물리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다세대주택 건설이 촉진되면서 적벽돌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서울시내 전역은 적벽돌로 된 주택이 늘어나게 된다.

01 1장.indd 89 2015-05-08 오전 11:37:59

〈표 5〉 주택의 종류별 변동 추이[36]

연도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건물	계
1970	98,162 (90.0)	1,818 (1.7)	6,727 (6.2)	-	1,272 (1.2)	107, 979 (100,0)
1980	60,246 (90.8)	2,761 (4.2)	1,535 (4.2)	-	1,802 (2.7)	66,344 (100,0)
1990	56,009 (83.8)	3,289 (4.8)	3,239 (4.8)	832 (1.2)	2,042 (3.1)	66,823 (100.0)

13대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 주택 200만호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 건설사업에서 성북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성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의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성북구의 불량주택지구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서 도심은 아파트가 일색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

아파트 문화는 토지의 고밀도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아파트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택난 해결과 조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만능해결사처럼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은 곧 갖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선 성북구 관내의 한옥은 보존지구가 아니어서 도시화 상업화에 노출되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성북구 내의 건물층수는 1-2층의 저층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8%를 차지했으나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된 도시경관의 철학이 없었던 관계로 특색이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

주택밀집지역이나 경관보존지역 등이 주택 신개축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뚜렷한 기준 없이 이중 일부지역만이 해제돼 집단 민원이 생기는 등 서울시 풍치지구 정

01 1장.indd 90 2015-05-08 오전 11:37:59

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서울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돈암동 538일대 1만5천4백평과 동선동5가 319일대 1만 5백85평등 이 일대 풍치지구 해제안건을 검토했으나 이를 부결시켰다. 이날 부결된 돈암동과 동선동 일대는 풍치지구에서 89년에 해제된 돈암동 413일대, 동선동 49일대와 지역여건이 비슷한 곳으로 이 일대만 계속 풍치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37]

지난 40년 동안의 개발 광풍에도 살아남아 근대 서민주거지 형성의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장수마을이다. 사람들은 서울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산지 주변에 밀집해서 정착했는데, 장수마을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된 마을이다. 장수마을은 서울의 역사성과 근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38] 이곳은 2004년 주택개발예정구역이었지만 전면철거대신 보존형 대안개발을 선택하여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북정마을의 경우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에 의견대립이 있지만 장수마을은 대안개발의 가치를 선택해 오순도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

성북동 북정마을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서울 성곽에 가장 가깝게 조성된 동네이다. 마을의 허두호 노인회 회장에 의하면 북정마을은 19세기 중엽 천주교도 박해 때 서울성안의 교인들이 피신와서 숨어 살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성 밖의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 덕분에 이태준, 한용운 등의 가난한 예술가와 한량과 기생들, 그리고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북정마을은 도시 노동자들이 사는 동네가 되었다.[39] 이후 성북동은 1960~1970년대부

01 1장.indd 91 2015-05-08 오전 11:37:59

터 주요 재계 인사가 거주하면서 고급주택과 외교사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남쪽의 부촌과 달리 북쪽의 북정마을은 판자집이 난립해 있다. 서울 한양도성 북악산 성곽은 1968년 폐쇄되어 오랫동안 통제되었다가 지난 2007년 완전히 개방되었다.[40] 2007년 북악산이 개방되면서 1970~1980년대의 풍경을 간직한 마을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성북구는 한옥과 관광을 겸한 지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일관성없는 풍치지구 지정과 해제의 반복으로 경관은 더 퇴보되었지만, 그나마도 장수마을과 북정마을이 있어서 근대 서민문화유산으로 후손에게 남길 수 있다.

2000년 서울시에 의해 길음뉴타운이 선정되고, 미아 · 월곡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면서 성북구는 변모하고 있다. 길음 뉴타운 서울시의 첫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뉴타운지역으로 유입되어 오는 주민들 중 많은 수가 젊은층임을 감안해 볼 때 지역의 수요와 도심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 젊어진 것에 비해 기존에 살고 있었던 주민 중에 이곳에 다시 정착하는 이들이 적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지였던 길음뉴타운 지역이 중산층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근현대시기를 살아왔던 도시민의 삶의 터전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원주민들과 신중산층들이 같이 살아 갈 때라야 도시의 공동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희식)

01 1장.indd 92 2015-05-08 오전 11:37:59

서라벌예술대학과 미아리고개

서라벌예술대학의 '미아리 시대'

1950년대 초, 전쟁이 끝나가면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다. 피난에서 돌아온 토박이 서울 사람,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온 지방 사람, 학업을 위해 상경한 학생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갔다.

미아리고개 아래에도 한 집 두 집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길이

정릉동 쪽에서 개운산 쪽을 바라본 풍경. 멀리 개운산 아래에 보이는 석조건물이 서라벌예술대학 본관이다. (1957) (왼쪽)
서라벌예대 연극영화과 촬영학 실습 강의 모습 (1962) (오른쪽)





01 1장.indd 93 2015-05-08 오전 11:38:02

뚫리고, 동네가 만들어졌다. 고개가 걸쳐 있는 개운산 등성이에도, 정릉천 가에도, 심지어 길음동 공동묘지 앞에도 집들이 들어섰다. 정부와 서울시도 미아리 일대의 넓은 토지를 사들여 '영단주택'이라고 이름붙인 주택단지를 건설하였다. 집과 집 사이 빈 땅은 호박밭으로 바뀌어갔고, 맑디 맑은 정릉천은 여자들의 빨래터와 아이들의 놀이터로 쓰였다. 저녁이면 집집마다 밥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이때만 해도 미아리고개 아래 동네들은 반은 도시, 반은 시골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속에서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를 말없이 보듬어주면서 굳센 의지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해나갔다.

이 남루한 동네들 한켠에 서라벌예술대학이 들어선 것은 1956년이었다. 주소는 돈암동 산 3의 1번지. 현재 지하철 4호선 길음역 부근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자리이다. 미아리 고갯마루에서 10분 정도 걸어내려가면 나오는 곳이다. 1953년 6월 용산구 후암동에서 개교했던 서라벌예대는 1955년 5월부터 새 교사를 미아리고개 너머 개운산 북쪽 기슭에 신축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3월 학교를 이전하였다. 길음동의 나즈막한 민가들을 내려다보며 우뚝 솟은 서양식 건물이 이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라벌예술대학은 한국 최초의 예술대학으로 지금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의 전신이다. 1953년 문예창작과 100명, 연극영화과 100명, 음악과 100명 총 300명의 학생을 모집해 첫 수업을 시작한 서라벌예대는 전후 황폐한 문화 풍토 속에서 젊고 참신한 예술인들을 길러내는 요람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서정주와 박목월과 김구용이 시를, 안수길과 김동

01 1장.indd 94 2015-05-08 오전 11:38:02

리와 계용묵이 소설을 지도하는 문예창작과는 전국의 문학 청년들이 동경해 마지않는 문학의 전당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내노라하는 예술가들이 모여 예술대학을 만든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전쟁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으며 그것은 이 땅의 예술가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데올로기의 허울 아래 죽임을 당하거나 북으로 끌려갔다. 운 좋게 살아남아 다시 서울에 돌아온 예술가들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패배의식이 감수성 예민한 정신을 짓눌렀다. 당시 예술가들의 집합소였던 명동의 다방은 씁쓸한 자조와 허무한 냉소로 가득찼다.

이러한 절망의 시대 서라벌예대의 탄생은 갈길 잃은 젊은 예술지망생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건이었다. 전국의 예술지망생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시인, 작가, 영화감독, 음악가 들의 지도를 받고자 서울의 한구석 미아리고개를 넘어와 입학원서를 냈다. 1966년 이 학교에 입학한 소설가 오정희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한다.

> 바람 세고 황량한 돌산 아래, 젊은이들이 저마다 대예술가로의 꿈을 품고 모여든 예술대학 교정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이 현실감이 없었다. 그 이상하게 비현실적인 풍경은 바로 우리들의 젊음의 시간, 오직 예술이 아니면 채워지고 치유될 수 없는 열정과 절망과 상처가 빚어내는 것이었으리라.
>
> — 오정희, 『문학이라 쓰고 인생이라 읽다』(2013)

01 1장.indd 95 2015-05-08 오전 11:38:02

서라벌예대는 교수진도 대단했지만, 그들로부터 배운 졸업생들 역시 일찌감치 예술계의 중심적인 인물로 성장했다. 대가의 반열에 든 사람도 많다. 문인들로는 김주영 · 김원일 · 김형영 · 박상륭 · 송기원 · 송수권 · 오정희 · 윤정모 · 이경자 · 이근배 · 이동하 · 이문구 · 이시영 · 조세희 · 천승세 · 한승원이 이 학교를 나왔다. 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금세 얼굴이 떠오르는 배우들, 김인태 · 김흥기 · 남성훈 · 민욱 · 문희 · 이대근 · 이정길 · 전유성 · 조춘 · 최불암 등도 젊은 시절 미아리고개를 넘나들며 연기의 기초를 닦았다.

서울 시내에서 미아리고개 너머 서라벌예대까지 가는 길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결코 쉽지 않았다. 서울 시내에 사는 학생들은 전차나 버스를 타고 혜화동로터리와 삼선교를 거쳐 돈암동 종점에서 일단 내린 다음, 거기에서부터 미아리고개까지 비포장의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서 다시 10분 정도 터벅터벅 내려가야 학교에 당도할 수 있었다. 마포에 살았던 오정희는 등교하는 데만 족히 두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 고생해가며 학교에 다녔던 졸업생들은 그 시절을 '미아리 시절'라 부를 때가 많다. 흔히 '한 많은 미아리고개'라고들 하는데 그 '한'에는 배고픈 시절 젊은 예술가들의 힘겨운 기억들도 얼마큼은 스며 있는 것이다.

예술대학인 만큼 수업은 실습 위주로 이루어졌다. 문예창작과의 경우 학생들은 매주 작품 한 편씩 써내야 했다. 그러면 수업시간에 교수와 동료 학생들은 새로 쓴 작품들을 읽으며 합평회를 가졌다. 합평회는 때로 한바탕 날선 비판과 대결의 장으로 변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내보여야 하는 부끄러움의 자리이자, 혼자서 몰래 질투와 시

01 1장.indd 96 2015-05-08 오전 11:38:02

샘을 감추어야 하는 고독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경험 많은 교수들의 역할도 컸지만, 무엇보다 학생들끼리 작품에 대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의 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서라벌예대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가진 문인, 배우들을 어느 곳보다도 많이 배출하였다.

어느 대학이든지 교문 앞에는 학생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식당과 술집들이 즐비한 법. 미아리고개 아래 길음시장은 서라벌예대 학생들의 아지트였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앞 정릉천을 가로질러 놓인 '뽕뽕다리'란 좁다란 다리를 건너서 길음시장으로 달려가곤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린 배를 채워주는 밥과 찬, 고독과 울분을 달래주는 막걸리 한 사발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장 부근에 동기 녀석의 자취방이라도 있으면 친구들과 술 몇 병 사들고 쳐들어가기 일쑤였다.

1972년 자금난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 서라벌예대는 중앙대학교에 합병 · 인수되고 말았다. 캠퍼스도 중앙대가 있는 동작구 흑석동으로 옮겨가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이란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서라벌예대의 '미아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1998년에는 예술대학 옆에 있던 서라벌고등학교도 이사를 가버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지금은 아무런 자취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래도 혹시,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미아리고개를 넘어갈 일이 있다면, 50년 전 뜨거운 피를 품은 채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내렸던 젊은 예술가들의 발걸음을 한 번 상상해볼 일이다. 그러다 괜찮은 싯구 하나 건져올릴지 누가 알겠는가.

(백외준)

01 1장.indd 97 2015-05-08 오전 11:38:02

북디자이너 정병규가 회고하는 서라벌예대와 한국 문학

북디자이너 정병규 역시 서라벌예대에서 스무살 청춘을 보낸 사람 중 한 명이다. 1946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 하근찬, 손창섭, 장용학의 소설을 읽으며 문사의 꿈을 키웠고, 1967년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이시영 시인, 감태준 시인, 소설가 송기원이 그와 함께 공부했고 바로 위로는 소설가 오정희가 있었다. 정병규가 이야기하는 서라벌예대는 오늘날 대학의 풍경과는 퍽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서라벌예대는 문학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가난한 청년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기성 질서를 마음껏 비웃고 조롱했던, 낭만적 기백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6.25와 4.19를 겪으며 자라난 그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관점과 시야로 세계를 관찰하며 혁신적인 작품을 내놓았다. 그런 점에서 서라벌예대라는 이름은 그저 과거에 존재했던 물리적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현대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국면을 보여주는 열쇳말이기도 하다.

북디자이너 정병규(1946~)



다음에 오는 글은 필자가 북디자이너 정병규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대학시절 회고담이 아니다. 마치 강의를 방불케 했던 정병규의 긴 이야기 속에는 서라벌예대라는 하나의 예술사적 이정표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 현실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60년대 한국 문학과 대학

01 1장.indd 98 2015-05-08 오전 11:38:06

생 사회를 다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해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소년 문사'들의 집합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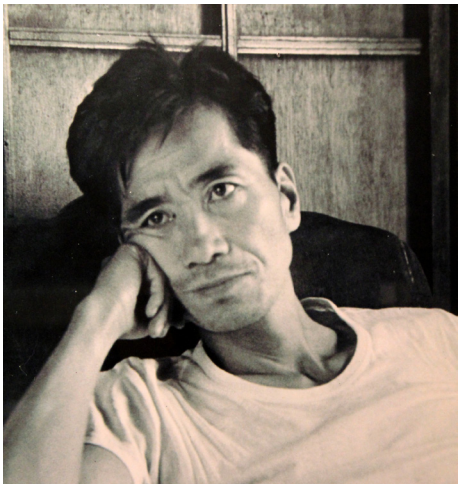
중 · 고등학교 때 보면 늘 삐딱한 애들이 한 반에 한 명씩 있잖아요. 약간 웃자란, 겉자란 잡초끼가 있는. 제가 그런 축에 속했습니다. 학교 공부라는 게 뭐 시시했지요. 그런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문학 세계밖에 더 있겠어요. 물론 특이한 경우 음악이나 미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했죠. 그 당시 저는 손창섭, 선우휘, 오상원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을 많이 읽었죠.

제가 67년도인가, 68년도에 예대를 들어갔는데 전국의 소년 문사

서정주 시인(1915~2000)과 소설가 김동리(1913~1995)(왼쪽)

김수영 시인(1921~1968) (오른쪽)





01 1장.indd 99 2015-05-08 오전 11:38:06

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거의 다 예대 입학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알고 있었어요. 개천예술제니 백일장이니 해서 고등학교 때 서로 접촉을 많이 한 것이죠. 저는 그런 대회에는 참가해보지 않아서 처음에는 좀 낯설었죠.

예대에 입학하게 된 데에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시대적 상황도 한 몫 작용했다고 봅니다. 4.19와 5.16 이후 한국 젊은이들의 생각이 문학 편향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 말이지요.

미당, 동리, 김수영

미당(서정주 시인) 선생님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미당 선생님은 날씨가 좋으면은 "오 날씨가 좋구만!"하시면서 건너편 길음시장 쪽에 있었던 '밀리언 다방'으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 다방이 주 강의실이었던 셈이죠. 거기 가면 차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네 뭐 쓴 게 있는가?"물어보시곤 했어요. 또 흐린 날에는 "이런 날 어떻게 강의를 하나"하시면서 나가셨죠. 하여튼 소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라는 것은 안 하셨습니다.

반면에 소설가이신 김동리 선생님은 제법 자주 강의를 하셨어요. 주로 글 쓸 주제 하나 던져주시고는, 다음 수업 때까지 글을 써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손'에 대해서 몇 매를 써와라 이런 식으로. 산문을 가르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김수영(시인) 선생은 거의 격년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나는 김수영 선생 강의를 못 들었어요. 잠깐 뵙기만 했었는데 주로 낡은 국방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니셨어요. 소매가 반질반질했어요. 눈이 굉장히

01 1장.indd 100 2015-05-08 오전 11:38:06

컸어요. 김수영 선생이 복도나 교정에서 학생들을 잡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도 김수영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웬만한 소설가, 시인, 평론가들은 거의 다 서라벌예대에 출강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일반 대학 국문과에서는 안 받아 주었으니까. 당시 문교부 규정에 의하면 학위가 없으면 교수 임용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서라벌예대나 나중 서울예대 같은 학교만이 우리나라 최일급 문인들에게 강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문학은 현실 저너머의 세상을 꿈꾸는 것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든지 술을 먹었죠. 친구들 중에 누가, 언제 고향에서 하숙비가 올라온다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하숙비 받은 친구를 앞세우고 술집으로 갔던 것이죠. 어떤 날은 친구들 몇 명이랑 가까운 정릉 산속에 들어가서 술을 먹기도 했지요. 그때 우리는 문학을 학습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문학은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배우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들.

우리는 등교한다고 하지 않고 학교에 출근한다고 그랬어요. 강의도 안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학교 강의 시간에 나가느냐는 그런 생각이었지요. 지금은 참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 저나 친구들이나 세상을 우습게 아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문학을 하니까 니네들보다는 다른 세계에 산다는 우월감이 있었죠. 예술을 한다는 핑계만치 삶을 양극으로 넓혀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또

01 1장.indd 101 2015-05-08 오전 11:38:06

좋은 맛이지요.

예술 대학에서 제가 배운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더 다른 세계가 있다, 이 현실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 다소 낭만적일 수 있지만 확실하게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사는 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하나의 생긴 신념이라고 한다면 '아, 문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모든 정신의 성감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미아리고개, 내 삶의 분수령

저에게 미아리고개는 삶의 분수령 같았어요. 그 고개와 근대사에 얽힌 그런 문제를 떠나서요. 그 고개를 넘기만 하면 황량하면서도 대책 없으면서도 자유라는 게 있었어요. 자유라기보단 방종이었죠.

사실 저는 미아리라는 이름보다도 길음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 친근해요. 미아리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거창한 이름 같지만, 길음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서울에서 찾은 정신적인 고향이랄까 그런 느낌이 나죠. 같이 예대에 다녔던 친구들이 다 그럴 걸요. 그런데 지금 지나다니다 길음동에 아파트가 들어선 걸 보면 길음동이 아닌 것 같아요.

60년대 후반의 학생사회

예술대학에 있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실감을 못했습니다. 예술은 또 문학은 그런 현실적인 것에 대해 관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죠. 특히 예대나 미대 또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현실참여를 안한다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01 1장.indd 102 2015-05-08 오전 11:38:06

지금 우리가 그 당시 학생사회를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60년대 학생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당시 학생사회나 정신사의 반쪽만 보는 게 됩니다. 지금 60년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생 '운동'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당시 '운동'바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생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소위 현실참여를 하지 않은 학생, 지식인들은 왜 그랬던가를 한 번 살펴봐야 해요. 이 부분이 한국 정신사의 성감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60년대 한국 문학의 더 깊은 맥락

당시 우리는 문학은 현실참여를 위한 그런 게 아니다, 문학의 본령은 더 넓고 깊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학에 대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이해가 본능적으로 있었던 시대예요. 그것을 '4.19세대'라는 세대의식으로 집약시켜서 문학사적으로 자리매김해 버리는 일방통행식 관점에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다, 순수다 하는 이런 문제 이전에 한국문학에는 더 깊은 맥락이 있어요.

6.25동란 이후의 한국문학의 맥락은 내거티브한 쪽이든 어떤 쪽이든 삶과 세계를 전체적으로 볼 수 밖에 없던 시대였어요. 그 후 4.19와 5.16이 일어나면서 우리 문학은 더 넓은 세계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 맥락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1950년대 전후 문학은 일제강점기와 오늘을 잇는 가장 중요한 한강철교인데 그걸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소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근찬, 손창섭, 장용학 이런 작가들. 그들과 그들의 문학에 대해

01 1장.indd 103 2015-05-08 오전 11:38:06

서도 다시 연구해봐야 합니다.

인문학의 중심, 문학

요새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하다가 점점 인생론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좌표설정이 잘못된 것이죠. 저는 인문학의 어떤 분야든 문학에 비춰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문학만이 유일하게 진지한 비평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서에는 문학의 수준만한 비평 행위가 없지요. 거의 유일하게 비평적인 이념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그럴까. 그런 점에서 문학 고유의 비평 행위가 오늘날 인문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인문학이 가벼운 인생론이나 행복론으로 흐르지 않고, 현실을 반성하고 비판함으로써 인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인문학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백외준)

01 1장.indd 104 2015-05-08 오전 11:38:06

미아리고개가 남긴 작가, 김소진

미아리고개 넘어 달동네에 살면서 미아리를 기록한 소설가가 있다. 바로 김소진이다. 그러나 대중에게 김소진이 잘 알려진 작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 진정석은 김소진이 미아리를 쓴 것이 아니라, 미아리가 그의 손을 빌려 그 스스로를 썼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표현했다. 그만큼 김소진 소설의 미아리는 사실적이다.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온 시절을 소박하게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신춘문예 당선 소감에서 어둡지 않고, 환하지도 않은 삶을 구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한 구술의 방법 덕분인지,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은 사소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가치를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김소진의 능력이다.



김소진 장편소설,
『장석조네 사람들』 표지

김소진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남쪽으로 내려왔다. 철원에서 거주하다 미아리 산동네에 자리 잡은 것은, 김소진이 다섯 살 되던 해인 1967년이었다. 김소진은 이곳에서 미아초등학교를 다녔고, 보성중학교를 거쳐 서라벌고등학교

01 1장.indd 105 2015-05-08 오전 11:38:07

를 졸업하며 토박이 아닌 토박이로 살았다.

김소진의 장편소설『장석조네 사람들』은 미아리고개 넘어 길음동 돌산 밑 판자촌을 배경으로 하는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다. 소설 속에 나타나는 길음동 판자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한 지붕 아래 아홉 개의 방이 한 일(一)자로 늘어서 있어 동네 사람들이 기찻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장석조씨네 집터는 옆의 행길보다 석 자 정도는 높게 다져져 있었다. 바로 옆으로는 아무렇게나 고랑을 파놓은 시커먼 시궁창 물이 해자(垓子)처럼 휘우듬하게 스쳐 지나갔다. 아직 맨홀을 깔지 않았기에 뒷돌산 채석장에서 옮겨온 두툼하고 길다란 화강암 두 개를 시궁창 위로 쓰러뜨려 시늉만으로 다리 노릇을 하게 걸쳐놓았다. 한데 그 돌다리의 너비가 어른 한 사람이 겨우 건널 수 있을 만큼 조붓해서 애고 어른이고 그리고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쩍 하면 가랑이를 벌려 훌쩍 건너뛰곤 했다. 그러다가 삐끗 걸음걸이가 어긋나면 시궁창 바닥에서 긁어낸 펄흙을 되는 대로 양쪽에다 질퍽하게 쌓아 개어놓은 데 신발 뒤꿈치가 박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41]

이층 방은 흔히 루핑이라고 불리는 시커먼 기름종이를 지붕으로 삼고 있었다. 기찻집의 제일 안쪽 끄트머리에 붙은 방은 유일하게도 지붕이 슬래브였다. (중략) 그러나 바람이 조금이라도 세게 불라치면 잘 그을린 감자 껍질처럼 훌꺼덕 벗겨져버릴 듯이 엉성한 날림집이었다.[42]

01 1장.indd 106 2015-05-08 오전 11:38:07



루핑으로 지붕을 한 판잣집

미아리 달동네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중반 사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곳으로 김소진이 살던 '장석조네'는 한 지붕 아래 아홉 가구의 세입자가 사는 일명 '기찻집'이었다. 작품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70년대 길음동 판자촌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인다. 집 옆으로는 시커먼 시궁창 물이 아무렇게나 흐르고 있고, 사람들은 그 위를 위험천만하게 뛰어 다닌다. 판자촌의 집들은 루핑이라고 불리는 방수지로 겨우 지붕을 삼고 있는 실정이다.

연작소설 형태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장석조네'에는 아홉 가구가 살고 있다. 아홉 가구가 사는 만큼, 작품 속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온다. 촌의 상머슴 출신인 날품팔이 둘남아범, 아줌마들에게 인기가 높은 양은 장수 최씨, 젊은 성금어매가 장석조와 바람이 나 가출을 해도 눈감아 주고 통사정을 하며 사는 전직 공사판 십장 오영감, 시동생과 눈이 맞았다고 오해 받은 흑산도 출신의 새댁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새댁의 시동생인 겐짱 박씨 형제, 우람한 몸집에 비해 지능은 정상에서 한참 모자란 비운의 육손이형, 육손이의 아버지 똥지게꾼 광수 애비, 아내의 정부를 처남으로 속아 대신 감옥 생활까지 하고 나온 근식 아범, 월남전에서 제대한 얼금뱅이 상호, 왕십리 성냥

01 1장.indd 107 2015-05-08 오전 11:38:07

공장에 다니며 선병질에 걸린 아이처럼 해사한 명희와 딸 명희에게 얹혀서 사는 폐병쟁이 진씨, 쌍과부집 주모 노릇을 하며 날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택이 엄마, 공사판에서 허리를 다친 후 택이 엄마를 끊임없이 구타하는 의처증 남편 양씨, 욕쟁이 함경도 아즈망인 채소장수 뚱땡이 흥남댁, 그녀의 딸인 동두천 양공주 옥자, 방구들만 지키며 옥자의 등골만 빼먹는 옥자 오빠 성호, 혈혈단신으로 동네에 터를 잡은 실성한 삽십대 초반의 여인 콩점이, 그 콩점이를 건드려 임신시킨 홀아비 쌍용아범. 많은 등장인물 중에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 직업은 불안정하고, 가난과 폭력은 일상화되어 있다. 그런데 왜 작가는 이들을 기억해서 소설로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 작가는 「원체험, 기억 그리고 소설」이라는 산문에서 다음과 같이



뉴타운 개발 이전의 길음 1동(미아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
저곳 어딘가에 '장석조네'가 있다.

01 1장.indd 108 2015-05-08 오전 11:38:07

표현하고 있다.

거기에 내가 있다. 우는 내가 있고, 웃는 내가 있고, 똥 싸고 먹고 속임수 치고, 싸구려 사탕을 허벌나게 빨아대는 내가 있다. 그리고 나를 닮은 아버지가 거기 있다. 거기를 갔다 오지 않고서는 앞을 향한 어떤 여행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중략)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 얘기다 보니 참으로 옛날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제약이 있는 소설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나제나 사람들이 비벼대며 사는 모습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작가가 말하는 사람 사는 모습의 본질은 무엇일까? 작품 속으로 들어가 김소진이 남긴 미아리 달동네, 그 당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엿보도록 하자.

겨울이면 기찻집 아이들이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 행길을 굽어보는 초병처럼 올려놓는 곳이었고, 거의 매일 아침나절에 오십 명에 가까운 모듬살이 식구들에게 유일한 변소 앞에 긴 줄을 서다 못해 사타구니가 배배 꼬인 사람들이 오금을 접고 나앉아서 허드레 농지거리를 주고받으며 속옷이 축축해지도록 간힘을 쓰는 곳이기도 했다. 그래서 기찻집 사람들 사이에서는 문간통으로 불렸다. 거기에서 기다리다가 번호표 받아놓은 차례가 되면 어마 뜨거라 똥통으로 부리나케 뛰어들아가기 때문이었다.

"핵교 가는 아그들부텀 들여보내라구!"

"뭔 소리여! 핵교 가믄 번듯한 똥두간이 지어져 있는데 그걸 마다고 왜 여그

01 1장.indd 109 2015-05-08 오전 11:38:07

서 참비리새끼모양 박통 터져라고 북적거리는가 말여!"

-「양은 장수 끝방 최씨」

장석조네 집에 사는 아홉 가구에는 오십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화장실은 단 하나였고, 아침마다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사람들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화장실 앞에서는 생리현상을 참기 위해 허드레 농지거리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은 한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장석조네 아홉 가구의 아이들.
빨간 동그라미가 김소진

"아니 그런데 도망갔다는 이 아짐씨는 어디서 이 모양으로 끌고 오는 겁니까? 내사 마 정신이 다 아뜩해서 말임더."

"최씨가 알아냈다네. 멀리도 아니고 요 청수장 못 미처 동방에서 살림집을 내고 있었다는구먼."

"아니 누구랑 말임니까?"

"알 만한 사램이면 갤켜주소 마. 내도 입이무겁기로는 오른쪽에 갖다댈 치가 없는 걸로 호가 나부렀는데 말임다."

"바로 주인집 장석조일세."

01 1장.indd 110 2015-05-08 오전 11:38:07

(중략)

"앞으로 우얄라꼬예?"

"달래야지, 무슨 딴 방도가 서겠나? 그러면 한동안 또 그렇게 숙지게 살겄제."

-「양은 장수 끝방 최씨」

작품 속 오영감은 젊은 성금어매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금어매가 집을 나갔다. 수소문 끝에 찾은 성금어매는 새 살림을 차리고 있었는데, 상대가 다름 아닌 주인집 장석조였다. 오영감은 그저 달래서 살겠다고 하며 조용히 일을 무마시킨다. 오영감은 "바가지가 샌 계집"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을 생각해 같이 살 수밖에 없었다. 성금어매를 보쌈해온 최씨도, 목격자 박씨도 상대가 집 주인 장석조이니 가만히 있는 것 말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1970년대 달동네는 목격자 박씨의 마지막 말처럼 아무 탈이 없이 지나가준 어젯밤이 고마운 그런 공간이었다.

아랫집 혜정이 엄마가, 자기 집 애들이 횟배를 앓는다며 정작 피마자씨를 돌틈에 박아 넣어 싹을 틔우게 한 끝방 최씨의 마누라인 나주댁하고는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건너뛰고 주인집인 장석조씨 마누라에게 말을 넣어 도거리로 훑어가는 바람에 한바탕 드잡이까지 갈 뻔한 동티가 나기도 했다.

"아따, 눈까풀 덮으면 앉은자리서 널름 코 베갈 놈의 동넬세그랴!"

"그런 씨알머리도 안 먹힐 소릴랑 누구 앞에서 하는 거욧! 하물며 나주댁 땅에서 자란 것도 아니면서 그깟 쐐기알 같은 피마자씨 좀 몇 알 털어왔다고 동

01 1장.indd 111 2015-05-08 오전 11:38:07

네방네 그런 돼먹잖은 유세가 어딨단 말이오. 세상에!"

(중략)

"이녘 어린 아그들이 횟배가 끓는다는 말은 짐작이 가오마는 내도 그 못지않게 쓰잘 데를 미리 다 톺고 있었단 말이오. 잉! 넘의 두엄 더미처럼 썩어가는 속내도 모르고서 말이오, 징혀."

-「양은 장수 끝방 최씨」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사소한 논쟁으로 고성과 언쟁이 오간다. 그들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싸움을 벌이지만, 이런 싸움이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개는 조그만 화해의 포즈에도 금방 "봄 눈 녹듯"사라져버린다. 그들의 싸움은 어찌 보면 마치 승자도 패자도 없이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물러서는 한바탕 흥정과도 같다.[43]

김소진은 이 시끌벅적한 '장석조네'에서 서울대 인문대학 영문과에 합격한 수재였다. 결혼해서는 강남에 살았고 그 후에는 일산 신도시에서 살았다. 서른 초반에 서른 평이 넘는 아파트를 마련했을 만큼 성공적인 삶을 이어가던 그였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숨기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유년을 기억하고 싶어 했고, 사라지지 않는 소설로 남겼다. 김소진은 독자들이 그에게 갖는 의문을,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되어버린 단편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에서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은 90년대 중·후반 미아리 일대가 재개발되는 시점이 배경인 작품이다.

01 1장.indd 112 2015-05-08 오전 11:38:07

그런데 나는 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깨진 항아리 속에서 똥을 누는데 울고 싶어졌을까? 늙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이제 막 초콜릿 맛을 안 네 살배기 아이, 이렇게 세 사람의 식솔을 거느린 가장이 비록 속눈썹이나마 이렇게 주책없이 적셔서야 되겠는가, 아아. 하지만 여태껏 나를 지탱해왔던 기억, 그 기억을 지탱해온 육체인 이 산동네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를 이렇게 감상적으로 만드는 게. 이 동네가 포크레인의 날카로운 삽질에 깎여가면 내 허약한 기억도 송두리째 퍼내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는 기껏 똥을 눌 뿐인데…… 그것 밖에 할 일이 없는데…… (중략)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는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주위를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걷기 시작했다.[44]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는 시간이 흘러 동네를 떠난 작가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미아리를 방문해서 유년 시절의 사건을 떠올리는 내용이다. 그는 작품의 마지막에 재개발되는 미아리를 보며 슬픔에 잠긴다. 그에게 미아리 달동네는 자신을 지탱해왔던 기억이다. 재개발은 그에게 기억의 단편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다가온다. 그가 느끼는 아픔은 단순히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했을까?

징한 그들. 거의 뭉개진 듯이 (내게) 기억되던 그들의 삶. 경쟁의 먹이사슬 제일 밑바닥에 몰켜 있었던 그들 (나의 가족을 포함해서). 그들로 말마임아 나

01 1장.indd 113 2015-05-08 오전 11:38:07

는 내 삶이 제대로 오금도 펴지 못하고 뭉개질 것만 같은 암시를 받았었다. 그런 탓인지 나는 지금 전혀 경쟁에 익숙지 못한 (자본주의) 체제의 부적응자로 전락해버렸는지도 모른다.[45]

작가에게 장석조네 식구들은 분명 자본주의 체제에서 적응하지 못해, 변두리로 쫓겨난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들로 인해 자신의 삶마저 무너져버릴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46] 그들은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쉽게 다투었으며, 그 과정에서 치사하고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욕망을 곳곳에서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 냄새 나는 삶이 있었다. 가난과 폭력이 일상 곳곳에서 드러나지만, 한 순간의 축제였다는 듯이 스쳐가는 삶.

누군가는 마치 무드셀라신드롬[47]이라며, 이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기억은 미화되기 마련이고, 또한 긍정적인 면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분명 잘못되었다.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떠한가? 옆집에서 누군가가 죽어도 몇 개월간 알지 못하며, 층간 소음으로 인해 빈번하게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는 우리에게 편의를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아파트의 구조는 수직적이었고, 이는 이웃과의 단절을 만들었다. 아파트에 사는 우리는 마치 섬에 사는 것처럼 타인과 나를 배제시켰다.

작가가 살던 장석조네 아홉집은 일자로 연결된 판잣집. 이른바 기찻집으로 수평적 구조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작가는 지금보다 20년 앞서서 수평적 구조의 무너짐을 가슴 아파 했으리라. 수평적 구조의 무너짐, 다시 말해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삶이 그에겐 고통이었을

01 1장.indd 114 2015-05-08 오전 11:38:07

것이다. 오늘날 장석조네 아홉집이 있던 장소는 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가 들어섰고, 현재는 김소진이 남기고 싶었던 유년의 기억만이 책으로 남았다.

2014년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백화점에서 700만원치 물건을 구입한 모녀가 점원들을 무릎 꿇리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회사의 오너가 비행기를 마음대로 회항시키면서, 내 비행기를 내가 돌리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말하는 엄청난 사회. 매뉴얼대로 행동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재벌 3세들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된다.

갑과 을이라는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타인을 공격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테러를 일삼는 행동들이 증가하는 오늘날, 과연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편의가 우선시 되는 삶이 과연 안락한 삶일까?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사람냄새 나는 수평적 삶이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작가 김소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비벼대며 사는 모습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고 2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본질은 분명 흔들리고 있다.

편의를 위해 재개발은 분명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평적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개발은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나라의 재개발은 끊임없이 아파트를 건설하며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되었

01 1장.indd 115 2015-05-08 오전 11:38:08




일본의 타마 신도시(왼쪽)와 오늘날 길음뉴타운(오른쪽)

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타마 신도시는 무질서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6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주거와 휴식, 교육, 문화 상업 기능 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개발방향을 지키며 건설되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인간중심의 도시를 지향했다는 것이다.

김소진은 자신을 체제부적응자라 표현했다. 그러나 과연 그가 부적응자인지는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한다. 어쩌면 그는 우리보다 20년 먼저, 오늘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김소진의 글이 오늘날 가슴 속에 사무치게 다가오는 건 아닐까?

(이승준)

01 1장.indd 116 2015-05-08 오전 11:38:08

참고문헌

「동아일보」「매일신보」

고은, 『이상 평전』, 향연, 2003

김민수, 『이상 평전』, 그린비, 2012

김대중, 『초기 한국 영화와 전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김학동, 『이육사 평전』, 새문사, 2012

김희곤, 『이육사 평전』, 푸른역사, 2011

이상 지음, 김주현 옮김, 『증보 정본 이상문학전집2: 소설』, 소명출판, 2009

정일영, 「일제시기 장묘제도 변화의 의미」『역사학연구』525, 2013

장용경, 「1910년대 일제의 공동묘지 정책과 조선인의 경험」『식민지 공공성』, 책과함께, 2010

전봉관, 「1930년대 경성의 화장장·외인묘지·공동묘지」『한국현대문학연구』11, 2002

조선일보사 출판국 편,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

전쟁기념사업회 편, 『한국전쟁사 3권』, 행림출판, 1992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역사비평사, 1999

이종관 편,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50년대편 1권』, 인물과 사상사, 2004

이미일 外 편,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01 1장.indd 117 2015-05-08 오전 11:38:08

이미일 外 편,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2』,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9
김성칠 지음 정병준 해제, 『역사 앞에서(개정판)』, 창작과 비평사, 2009
성북문화원 편, 『근·현대 성북지역의 독립정신과 호국활동』, 성북문화원, 2013

주석

1. 김성칠, 『역사 앞에서(개정판)』, 창작과 비평사, 2009, 20-81쪽.
2. 이범선, 「적치하 90일」,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982, 403-404쪽.
3. 신광연, 「반야월의 '단장의 미아리고개'」
4. 『동아일보』 1981년 8월 6일자, 「나의 고유록 원로여류가 엮는 회고 <148> 납북모면」
5. 『중앙일보』 1990년 6월 21일자, 「재조명 6.25 남북중 뒤처지면 마구 사살 미아리고개」
6. 『매일신보』 1913.11.20.
7. 총독부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과 총독부 청사나 조선신사를 조영하는데에는 주로 중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또 다른 하나는 조선인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채석장의 경우에는 화약을 만진다는 점으로 인해 조선신사와 총독부 신축를 하는 데에도 같은 이유가 적용되었다. 이후 늘어나는 중국인들을 위해 미아리 2번 묘지에 중국인 공동묘지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후 화교들은 한국인들로부터 노동시장과 민족적 감정 문제로 여러 차례 배척을 받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의 화교배척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할 것(김희용,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화교배척」 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9)

01 1장.indd 118 2015-05-08 오전 11:38:08

8. 김영수, 「동대문 밖 돈암지구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서울학연구』 2쪽 재인용

9. 『동아일보』 1933.5.13.

10. 『매일신보』 1934.3.30.

11. 김영수, 「동대문 밖 돈암지구 주거지의 형성과 변천」『서울학연구』 37, 2009, 11쪽.

12. 『동아일보』 1938.5.25.

13. 『동아일보』 1938.8.9.

14. 『매일신보』 1941.6.15.

15. 『동아일보』 1939.4.27.

16. 염복규, 「식민지 도시계획과 '교외'의 형성-1930-40년대 경성 돈암지구 개발의 사례-」『역사문화연구』 46, 2013, 47쪽.

17. 1935년에서 1937년에 걸쳐 약간 감소한 것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경성부가 교외지역인 홍제정, 돈암정, 아현정 등에 토막수용지를 설정하여 부내에 산재하는 토막민을 수용한 때문이었다. 경성부 사회과 조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용토막민은 홍제정 4,710인, 돈암정 4,226인, 아현정 3,708인 합계 16,344인에 달한다. 아현정, 신당정은 시내에 있어서의 토막 대부락의 대표적인 것이며, 홍제정, 돈암정, 아현정은 이른바 부영의 토막수용지이다.(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지」, 1993, 140쪽 참조)

18. 『동아일보』 1946. 11. 7.

19. 『조선일보』 1949. 1. 8.

20. 『경향신문』 1950. 2. 25.

21. 『자유신문』 1950. 4. 7.

22. 서울시, 『주택백서』 1977, 160-161쪽.

23. 『경향신문』 1955. 10. 9.

01 1장.indd 119 2015-05-08 오전 11:38:08

24. 정은경, 「미국의 대한원조사업과 건축 · 도시 분야 자료연구」『2014 서울학 정례발표회』 2014, 86-88쪽.

25. 서울시는 일반택시의 교외 할증 요금지역의 한계와 야간운행 및 설중 운행시에 있어서의 시간별, 기후별 할증기준을 책정 실시키로 하였다. 각 노선별 교외할증구역한계구역을 넘어설 경우 교외로 간주한다. 종암동: 종암동 버스종점, 미아리: 미아리 종점 이하중략(『동아일보』 1962. 5. 3.)

26.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고개』 1998, 184쪽.

27. 『경향신문』 1964. 6. 17.

28. 서울역사박물관, 『2009년 생활문화자료조사 길음동』 2010, 81쪽.

29.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지』 도봉구, 1999, 363쪽.

3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편, 『서울육백년사 5권』,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3, 722쪽.

3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업적종합』 1965, 704~761쪽.

32. 『경향신문』, 1972. 5. 19.

33. 김희식, 「동소문 밖의 사람들:미아리일대의 역사·공간·삶」, 『로컬리티인문학』6, 2011, 108~109쪽.

34. 일제시대에 와서 안마업이 도입되고, 6.26와 서구문명 도입과 함께 맹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복술업의 쇠퇴 등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되었고, 특히 대량 실업사태를 가져온 IMF 사태를 겪으면서 복술업에 대한 가치가 재인식되면서, 천시하였던 복술업을 정상인들이 선호하게 되면서 맹인 점복업은 후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이 맹인들을 집단거주하게 하였다(심 이사장 담) 또한 서울의 맹인 점성촌인 '미아리 점성촌'은 고가도로의 옹벽이 손님의 출입을 차단해 주고, 철학원이 집결된 곳이어서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경제

01 1장.indd 120 2015-05-08 오전 11:38:08

적 도움이 되며, 협회(대한맹인역리학회) 회원들끼리 함께 모여 살아서 공부도 하고, 상호협조관계를 잘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점복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고 있다.(이도병 담: 2006.6.14.) 이도병 씨는 미아리 점성촌에 가장 먼저 정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점복촌의 역사적 실태와 미아리 점성촌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것.(이기태, <점복촌의 역사적 실태 연구>, 한국무속학 제13집(2006), 264~265쪽.)

35.『경향신문』, 1972. 8. 15.

36. 성북구, 위의 책 375쪽.

37.『경향신문』, 1992. 5. 15.

38. 여관현, 정은경,「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정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도시행정학보』26권 1호(2013), 90~91쪽.

39. 서울연구원,『성곽마을의 가치와 가능성』2014, 47쪽.

40. 이지아,「서울 한양도성 성곽마을 창출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북구 북정마을을 중심으로」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4, 23~24쪽.

41. 김소진,『장석조네 사람들』, 문학동네, 2002, pp.9~10

42. 김소진, 위의책, pp.47~48

43. 진정석,「지속되는 삶, 끝나지 않은 이야기」,『장석조네 사람들』, 문학동네, 2002, p.267

44.『21세기 문학』1997년 봄.

45. 김소진,「원체험, 기억 그리고 소설」,『그리운 동방』, 문학동네, 2002, p.34

46. 김덕임,「김소진 소설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47. 추억을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며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겨두려 하는 심리.

01 1장.indd 121 2015-05-08 오전 11:38:08

사진으로 본 미아리고개



1980년대 초. 멀리 정릉동과 길음동의 산동네와 도봉산이 보인다. 도심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미아리고개는 대표적인 교통정체 구간이었다.



1990년 미아리고개 풍경. 고개 위쪽 산등성이에도 집들이 들어차 있다. 고갯마루에는 육교가 놓여 있었다.

01 1장.indd 122 2015-05-08 오전 11:38:09



1990년 지금의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 부근 풍경.



1996년 6월, 창경궁과 미아사거리 간 도로확장공사가 끝난 직후의 모습. 멀리 낙산이 보인다.

01 1장.indd 123 2015-05-08 오전 11:38:11



육교 철거 후 설치된 고갯마루의 구름다리.



2014년 5월 아침,
성신여대입구역 부근
유타몰 빌딩 옥상에서
내려다본
미아리고개 풍경.
고개 양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차 있다.

01 1장.indd 124 2015-05-08 오전 11:38:12



길음동. 길음동이란 동명은
기리물골·기리묵골·기레미골이라 불리던
마을 이름을 한자명으로 고쳐 쓴 데서 유래하였다.



동선동과 돈암동. 동선동의 동명은
동소문동과 삼선동에서
각각 '동'자와 '선'자를 따서
합성한 데서 유래하였다.
돈암동은 미아리고개의 옛 이름인
'되너미고개'에서 유래하였다.

01 1장.indd 125 2015-05-08 오전 11:38:13



정릉1동.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의 무덤인 정릉이 있다고 해서 정릉동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1988년 정릉1~4동으로 분동되었는데 정릉1동은 미아리고개 아래 길음교와 아리랑고개 사이에 있다.



종암동. 동명은 미아리고개 옆으로 솟은 개운산에 북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어 북바위라 하고, 한자명으로 종암(鐘巖)이라고 하였다. 북 고(鼓)자를 써서 고암이라고도 하였다.

01 1장.indd 126 2015-05-08 오전 11:38:13

미아리고개





2부

미아리 점성촌

02 2장.indd 129 2015-05-08 오전 11:42:26

미아리 점성촌의 안과 겉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미아리고개 쪽으로 이어진 고가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길 양옆으로 커다랗고 선명한 간판을 단 낮은 단층 집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역학사 마을, 미아리 점성촌이다. 앞에 '미아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 마을이 강북구의 미아동에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행정구역상으로 이곳은 강북구가 아니라 성북구의 동선동 3가와 4가에 속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아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순전히 마을 동북쪽에 버티고 있는 미아리고개 때문이다. 6.25전쟁 이후 미아리고개라는 지명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알려진 탓에 고개 근처와 그 너머의 지역까지 모두 미아리라고 통칭하였던 그 시절, 고개 초입에 생겨났던 역학사들의 마을에도 사람들은 미아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이다.

점성촌의 탄생은 오늘날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왕복 8차선 고가도로와 관련이 깊다. 이 도로가 처음 만들어진 때는 1966년 10월이다. 고가도로는 비좁은 고갯길을 넓히고 가파른 경사를 낮추어 고개 양편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고갯마루의 암석을 5m가량 깎고 고개 초입에 옹벽을 쌓아 지대를 높여 고개를 오르내리

02 2장.indd 130 2015-05-08 오전 11:42:26

성북구 보문로. 2014년 서울에 '미아동'은 있어도 '미아리'라는 공식 지명은 없다. 그러나 미아리고개 너머를 미아리로 부르는 언어습관은 여전하다.(왼쪽)
2014년 6월 평일 낮 미아리 점성촌 풍경(오른쪽)





는 버스와 우마차의 부담의 덜어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고가도로의 건설과 동시에 그 밑에는 도로 양편을 연결하는 굴다리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이 굴다리가 미아리 점성촌이 탄생한 장소이다. 굴다리가 생기고 몇 달 안된 어느 날, 지금은 철원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역학사 이도병 씨가 이 굴다리로 들어와 노점을 차리고 손님을 받았다. 미아리고개 아래에 문을 연 첫 점집이었다.

이도병 역학사는 미아리고개로 오기 전 남산 기슭 양동(오늘날 서울역 앞 구 대우빌딩 주변)에서 처음 점집을 차리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중반 서울 도심 개발이 시작되면서 양동과 종로 3가 등지에 밀집되어 있던 점집들이 모두 철거를 당하는 바람에 역학사들은 변두리 지역으로 각기 흩어져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다. 이도병 역학사가 들어온 미아리고개 아랫동네는 그런 변두리 지역 가운데 한 곳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곳은 집값이 싸고 전차 종점과도 가까

02 2장.indd 131 2015-05-08 오전 11:42:27

1966년 10월 15일 완공 직후의 고가도로(왼쪽) 점성촌의 남북을 연결하는 굴다리 (오른쪽)





울 뿐 아니라 고개를 오르내리는 행인들도 많아 점집을 차리기에 안성맞춤의 장소였다. 그렇게 굴다리 밑에서 점을 쳤던 이도병 역학사의 점이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꼬였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영업 2년 만에 가게를 마련해 손님을 받았고 고향 철원의 이름을 딴 간판을 걸었다.

이도병 역학사의 성공담은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다. 집값이 싸고 목이 좋은 미아리고개 아래 동선동으로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점집을 차렸다. 그리하여 1978년 무렵에는 약 40여 개의 점집이 밀집한 전국 최대의 점성촌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경제가 호황을 맞은 1980년대에는 미아리 점성촌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 이미 7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선 점성촌에는 주 고객인 30~40대의 주부들뿐 아니라 고급관료, 정치인, 재벌급 사장, 연예인 들도 은밀히 찾아왔다. 일본인 관광객도 심심찮게 방문했다. 택시를 타고 '미아리 가 주세요'하면 으레 미아리 점성촌에 내려다 주던 시절이었다. 하루 평균 한 가게에 30여 명의 손님이 들어왔고, 입시철이나 신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

02 2장.indd 132 2015-05-08 오전 11:42:27



철원철학관에서 만난 이도병 역학사



점성촌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 2014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을 하면서 새 안내판으로 교체했다.

그러던 미아리 점성촌의 기세가 한풀 수그러진 것은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오면서부터이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아리 점성촌을 찾는 발길도 뜸해졌다. 더구나 젊은이들에게는 90

02 2장.indd 133 2015-05-08 오전 11:42:28





점성촌 입구에 설치한 새 안내판. 오른쪽은 주역의 64괘를 응용한 무료 점 체험 기구로 점성촌 역학사들이 사용하는 산통을 본떠 제작하였다.(왼쪽)
미아리 점성촌의 역학사들이 육효점을 칠 때 사용하는 산통. 안에 8개의 막대가 들어 있는데 흔들어서 하나씩 뽑는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재질은 놋쇠. (오른쪽)

년대 신촌이나 강남 등지에 새로 들어선 타로점, 사주카페 등의 인기가 높아 갔다. 미아리 점성촌은 매년 손님 수와 수입이 줄어들었다. 노환으로 그만 세상을 뜬 역학사들도 있었다. 해가 갈수록 점집 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점집이 80년대의 절반에 불과한 36개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옛날의 화려한 영화는 빛이 바랬을지라도 아직까지 전국에서 가장 큰 역학사 마을인 것만은 변함이 없다.

흔히들 '점'이나 '점집'이라고 하면 매서운 얼굴로 손님을 노려보는 무당, 또 무당 뒤에 모셔놓은 신상이나 금박으로 장식한 화려한 불화 등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아니면 들어오는 손님에게 막무가내로 반말을 내뱉거나, 보는 즉시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술술 읊어대는 신통력 있는 점쟁이를 떠올린다. '처녀보살', '애기무당', '○○장군'등도 점집 대문 앞에 붙여진 꽤 익숙한 '홍보 문구'이다. 그러나 미아리 점성

02 2장.indd 134 2015-05-08 오전 11:42:28

촌에서는 이와 같은 '영험한'점집의 흔한 이미지를 찾기 어렵다. 미아리 점성촌의 역학사들 대부분은 신점神占이나 영점靈占이 아니라『주역周易』을 위주로 한 역학易學을 배워 점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보살이니, 무당이니, 장군이니 하는 신적 존재를 표현하는 화려한 그림과 문구로 입구를 장식할 필요가 없다. 대신 '○○철학관'이라는 간판이 가장 많고 들어가는 문 옆에 사주, 작명, 신수, 택일 등 점보는 종목



점성촌의 골목.
인도 위 시각장애인 전용보도의 폭이 다른 곳에 비해 넓다.





청산철학관 현관 앞에 놓인 신발들. (왼쪽) 한 점집 입구의 간판. (오른쪽)

02 2장.indd 135 2015-05-08 오전 11:42:30

미아리 점성촌 점집 분포(2014. 12 현재)



1	늘푸른철학원	2	개나리여성역학사	3	천도화여성예언가	4	동양철학관	5	청산철학관
6	해당화여성점성가	7	홍수성작명소	8	행운예언가	9	백일홍여성역학사	10	다담철학관
11	김익중철학관	12	진심예언가	13	현대예언철학관	14	유림운명철학원	15	계명철학원
16	태양철학관	17	은하수여성역술원	18	모란여성철학원	19	양정석희망철학원	20	철원철학관
21	권윤자역학사	22	춘암철학관	23	영빈여성철학관	24	김상철철학관	25	계룡산예언점성가
26	매화부인예언가	27	소망젊은역술원	28	개성작명소	29	소원역학점보는집	30	천신암
31	영으로점봅니다	32	천도암	33	동인당	34	새희망운명철학관	35	흑진주여성역학사
36	광명여성철학관								

만을 적어두었을 뿐이다.

미아리 점성촌에 자리잡은 역학사들은 어렸을 때 또는 시력을 잃었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역학을 배우고 익혀서 점을 친다.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자녀가 시각장애인이 되면 그 부모는 아이가 역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서 점복을 업으로 삼아 생계를 잇게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가가 이러한 풍속을 적극 권장하고 제도적으로도 지원해 주었다. 이 때문에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최근에는 안마를 그렇게 여기는 것처

02 2장.indd 136 2015-05-08 오전 11:42:30

럼 점치는 일은 시각장애인들이 도맡아서 하는 직업으로 여기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예로부터 한국 시각장애인 역학은 그 수준이 매우 높았다. 조선의 실학자 이수광李睟光(1563~1628)은 조선이 중국보다 나은 점 가운데 하나로 시각장애인의 점치는 재주를 꼽았고, 개화기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1863~1949)는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을 가리켜 한국 고유신앙을 주도하는 축이라고 말하였다.

점성촌 역학사들의 말을 따르자면 점을 보는데 쓰이는 역학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다. 동양학의 중요한 분야로 인정받는 역학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자연과 인간사의 수많은 사례들을 관찰하여 산출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립한 학문이다. 이 때문에 역학을 서구적 근대 학문 체계 안에 편입시킬 수는 없지만,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빌리자면 '구체의 과학'으로는 명명 가능한 것이다. '구체의 과학'이란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과 통찰에 기초

고가도로 아래 옹벽의 벽화들.
왼쪽 사진의 '1968'은 이도병 역학사 여기에서 처음 가게를 얻어 점집을 차린 해인 1968년을 뜻한다. 2010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한 예술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그려졌다.





02 2장.indd 137 2015-05-08 오전 11:42:31

하여 구성된 비서구사회의 지식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동아시아에서 발달한 역학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한국어에는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여럿 있다. 가장 흔하게는 역술가, 점쟁이가 있고 점술가, 점자, 점성가, 주역선생이란 말도 간혹 사용한다. 몇 십 년 전에는 '점 복卜'자를 붙인 복인, 복자, 매복자라는 말도 통용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에는 판수判數라는 말을 가장 널리 썼다. 그렇지만 현재 미아리 점성촌에서는 '역학사'라는 용어를 정식 호칭으로 채택하고 있다. 점의 학문적 성격을 강조하고 점에 대한 세간의 삐딱한 인식을 교정하려는 의도에서다. 역술가나 점술가의 '술術'자는 점을 어떤 교묘하고 신비한 술법이라고 여기게끔 한다고 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호칭들이야 전통시대에 역학사들을 경시하는 풍조 속에서 생겨난 말이므로 당연히 배제하고 있다.

미아리 점성촌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는 한국 시각장애인 점복의 맥을 잇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이다. 점성촌의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이 주축이 된 이 단체는 전국의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으며 시 · 도별 지부를 두고 있다. 창설된 지는 40년이 조금 넘었지만 단체의 기원은 멀리 고려시대까지 올라간다. 고려시대에 활동했던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을 맹승盲僧이라고 불렀는데 수도 개경에 이들의 동업조합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는 조선시대에 와서 명통사明通寺, 맹청盲廳으로 이어졌다. 일제강점 초기 명맥이 잠시 끊겼다가 1925년 조선맹인역리대성교 맹인조합이라는 단체로 부활하였다. 해방 후인 1956년에 이를 대한맹인역리대성회로

02 2장.indd 138 2015-05-08 오전 11:42:31





가운데가 사단법인 대한맹인역리학회중앙회 현판이다.
2014년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로 명칭을 바꿨다. (왼쪽)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 (오른쪽)

개칭하고, 1971년 사단법인 대한맹인역리학회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함께 본다면 미아리 점성촌은 한국의 대표적 점성촌으로만 아니라 한국 시각장애인 점복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나가는 존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www.blindnet.or.kr)도 미아리 점성촌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이다.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가 학회 재산을 털어 1992년 점성촌 안에 점자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이후 회원들의 십시일반으로 1998년 도서관 터에 복지관을 세웠다. 시각장애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은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점에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미아리 점성촌 역학사들의 자부심 그 자체이다. 복지관에서는 역학사양성 · 심리상담사양성 · 경락안마 등 직업교육 외에도 시각장애

02 2장.indd 139 2015-05-08 오전 11:42:32

어린이들의 음악 지도, 점자책 제작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역학사양성교육은 복지관 설립 초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로부터 전통을 이어받아 복지관의 정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으며 매년 열다섯 명에서 스무 명가량의 역학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매년 12월 신입생을 모집해 면접 심사를 거친 뒤 이듬해 1월에 새 학기를 시작한다. 처음엔 궁합·택일 등을 일러주는 『요집서』를 뗀 뒤 5월부터 사주학을 비롯해 산통·거북점 등을 통해 괘를 풀이하는 육효학, 작명·해명을 주로 하는 성명학을 공부한다. 마지막엔 희망자에 한해 독경을 할 수 있는 경문 공부로 마무리 짓는다. 경제적으로 막막한 시각장애인을 서로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곳에선 강의료를 한푼도 받지 않는다. 서울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복지관에서 방을 내주어 숙식을 해결하도록 해준다. 보통 정원 20명보다 1.5~2배 많은 사람들이 입학 신청을 하는데 장애등급·성별 등엔 제한이 없지만 중도실명자 중

2014년 1월 17일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서울 역학인양성교육 개강식. (왼쪽)
2014년 2월에 열린 무료 역학상담 행사 "사주공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과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역학인양성교육 수료생 및 교육생들이 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역학상담을 진행하였다. (오른쪽)





02 2장.indd 140 2015-05-08 오전 11:42:33

점자·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대 선발한다.



미아리 점성촌 미래유산 인증서

미아리 점성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의 협조가 컸다. 김동성 관장님을 비롯하여 권오형 사무총장님, 김욱배 사무국장님, 홍윤희 재활과장님은 복지관을 방문하는 조사원들을 늘 반갑게 맞아주셨다. 점성촌의 역학사들과 귀한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이분들의 적극적인 소개와 주선 덕분이었다. 또 이분들과의 대화 가운데 역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큰 행운이었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한다.

2014년 12월 31일 미아리 점성촌은 서울시가 선정하는 '미래유산'에 꼽혔다. 미래유산이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미래 세대에 전달될 미아리 점성촌은 가치는 무엇일까? 한마디 말로 정의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점집 대문을 슬그머니 여는 마음의 방향이 제각기이듯 미아리 점성촌에 대한 기억도 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한국 시각장애인 역학의 유래에 관한 글과 점성촌 역학사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글을 읽고 미아리 점성촌의 미래 가치에 대하여 한 번 쯤 헤아려 보기를 바란다.

(백외준)

02 2장.indd 141 2015-05-08 오전 11:42:33

한국 점술의 주역, 시각장애인



거북점에서 주역까지

점. 한자로는 '占'이라 쓴다. '점칠 점'이라 훈독하는 이 글자는, '점복卜'과 '입 구口'두 글자를 합쳐 만들었다. 윗 부분의 '卜'은 거북의 배껍질을 불에 쬐어 갈라진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거북점을 뜻한다. 아래의 '口'는 점을 치거나 제사를 지낼 때 축원한 말을 적어서 담는 상자를 본뜬 모양이다.[1] 따라서 '점占'자를 보면, 자신의 기원이나 의문을 적은 쪽지를 상자에 넣은 어떤 사람이, 앞에 놓여 있는 거북의 배껍질을 유심히 보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경건하고도 긴장된 광경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점의 역사는 고대 중국의 하나라夏(기원전 2070년경~기원전 1600년경)와 은나라殷(기원전 1600년~기원전 104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원시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라와 은나라 사람들도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점을 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만큼 이 시대에 점은 성행했다. 이들이 점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이 귀갑龜甲(거북의 배껍질)과 시초蓍草(톱풀)이다. 시초는 그 줄기가 길죽하고 빳빳해서 옛 중국인들은 이것을 통에 넣고 흔든 후 꺼내면서 그 배열 상태를 근거로 길흉

02 2장.indd 142 2015-05-08 오전 11:42:33

을 예측하였다. 이를 시초점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서筮'라고 쓴다.

이렇듯 거북점과 시초점으로 대표되는 고대 중국의 점술은 왕위 교체, 제사, 전쟁, 토목공사 등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 절차 가운데 하나였다. 자신들의 왕을 '천자'즉 '하느님의 아들'로 여기던 옛 중국인들은 왕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존재이므로, 만약 왕이 정책 결정에 앞서 의문을 가진다면 하늘이 먼저 징조를 보여 해답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귀갑과 시초는 그런 하늘의 의사를 묻고 의혹을 푸는 방법이었다.[2] 고대 중국에서 점은 하늘과 인간의 주술적 합일을 이루어내는 매개이자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다.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周(기원전 1111년경~기원전 256년)가 들어선 후에도 거북점과 시초점은 계속되었다. 이와 함께 점을 치는 방법에서 한 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주역周易'의 등장이 그것이다. 사실 거북점과 시초점은 모두 원시적인 주술신앙에서 생긴 것





거북 배껍질에 새겨진 갑골문자(왼쪽)
시초 줄기 (오른쪽)

02 2장.indd 143 2015-05-08 오전 11:42:33

이지만,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다. 거북점에 사용하는 거북의 배껍질은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손질과 보관도 까다로워 거북점은 국가 행사에서나 지배층 사이에서 주로 시행되었다. 반면에 시초점은 어디서나 구하기 쉬운 톱풀 또는 그와 비슷한 댓가지(서죽筮竹)를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점을 칠 수 있었다. 더구나 시초점은 거북점처럼 우연적으로 생긴 형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개수의 점대를 뽑아 그 배열을 관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점의 결과를 수치화, 양식화시킬 수 있었다. 주역은 바로 이 시초점에 기원을 두고 있다. 시초점으로 나온 운세를 판단하는 말인 서사筮辭를 모은 것이 곧 주역이었다. 그리고 후대로 내려올수록 서사에 대한 설명이나 주역 전체를 통일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이론이 전개됨으로써, 주역은 차츰 철학서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마침내 '경經'으로 성립되었다.[3]

주역점은 효爻로부터 시작한다. 효가 모여 괘卦를 이루고, 이를 풀이한 것이 괘효사卦爻辭이다. 그리고 이 괘효사를 상황에 맞게 적용, 해석해서 들려주는 것으로 점은 완료된다. 의외로 단순한 과정이다. 그러면 간략하게나마 주역점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효는 ―(양효陽爻)와 －－(음효陰爻) 두 가지 부호가 있다. ―는 남성, 강함, 홀수를 상징하며, 반대로 －－는 여성, 부드러움, 짝수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호를 한 개씩 세 번 뽑아서 차례로 배열하면 여덟 가지의 변화가 얻어지는데 이것이 곧 팔괘이다. 팔괘는 주역점의 기본으로서 각 괘는 저마다 대응하는 자연물과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02 2장.indd 144 2015-05-08 오전 11:42:33

팔괘의 명칭과 성질

부호	괘	자연	성질
☰	건(建)	하늘	강건함(健)
☷	곤(坤)	땅	순함(順)
☳	진(震)	우레	움직임(動)
☴	손(巽)	바람 · 나무	들어감(入)
☵	감(坎)	물 · 비	험난함(險)
☲	리(離)	불 · 해 · 번개	빛남(麗)
☶	간(艮)	산	멈춤(止)
☱	태(兌)	못 · 늪	기쁨(悅)

그러나 팔괘만으로는 너무 단순해서 복잡한 일들을 점치기 어렵다. 그래서 팔괘를 두 개 씩 겹쳐 육효의 괘를 만들게 되었다. 8의 제곱이기 때문에 모두 64가지의 다른 결합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역괘易卦이다. 팔괘가 육십사괘로 발전하면서 주역점은 인생사의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팔괘의 ☲(리)와 ☵(곤)은 각각 불火과 땅地을 나타낼 뿐이었으나, 이 둘이 결합하여 ䷢, ䷢(진晉)괘가 되면 불이 땅에서 나오는 모습이 되어, 해가 지상에 떠오르는 것 같이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견하는 괘사를 내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역의 육십사괘는 자연과 인간사의 거의 모든 국면과 그에 따르는 변화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되었다.[4]

주역의 강점은 다른 점술 방식에 비해 단순하면서도 조리 있는 과정을 거쳐 명쾌하게 인간사를 설명해 낸다는 점이다. 더구나 시적詩的이고 상징적인 괘효사는 풍부한 암시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미에 대해 골똘히 사색하게 하며, 자신 앞에 놓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게끔 만든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주역은 중

02 2장.indd 145 2015-05-08 오전 11:42:33

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까지 영향을 미쳐 동아시아 점술학의 가장 권위 있는 경전이 되었다. 오늘날 유행하는 사주, 궁합, 성명, 토정비결도 모두 근본 원리는 주역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점은 항상 '맞는'것일까? 거북 배껍질이 갈라지는 모양이나, 아무렇게나 뽑아든 산가지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또 점의 정확성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점은 합리적 과정을 거치는 과학적 예측인가? ……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질문들은 근대서양과학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이라면 한 번 쯤 가져보았을 의문점이다. 이에 대하여 점의 '과학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 단언컨대 앞으로도 그런 자료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점이란 원래 과학으로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나 점을 침으로서 얻는 이로움에 대해, 이미 옛 중국인들은 꽤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천자에서 아래로 사(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시초와 거북으로 점을 친다. 왜냐하면 중대한 일을 두고 의혹을 푸는 데에 혼자서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天子下至士 皆有蓍龜者 重事決疑 亦不自專)
>
> — 반고(班固),『백호통(白虎通)』권6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독단에 빠져 다른 각도에서 다시 생각해 보거나 남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특히 지위가 더 높아질수록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더 애착을 갖고 고집을 세운다. 점은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옛 중국인들은 말한다. 최종

02 2장.indd 146 2015-05-08 오전 11:42:33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몇 번이고 다시 묻고 재검토하게 만드는, 제동 장치의 역할. 바로 이 때문에 점은 과학성 여부를 떠나,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쓸모를 인정받아 왔다. 물론 이것은 점술을 건전한 목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때만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



자연이 알려주는 미래, 고대 한반도의 점술

아침에 까치가 와서 짖으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누구라도 아침에 까치소리를 듣게 되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하는 작은 기대를 해보게 된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말이다. 물론 까치와 손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신다는 손님이 미리 까치를 날려 보낸 것도 아닐터. 그럼에도 우리는 아침에 짖는 까치소리를 좋은 징조, 즉 '길조吉兆'로 여긴다. 반대로 까마귀가 울면 '흉조凶兆'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자연 현상을 가지고 하루의 운세를 알아보는 것도 점의 일종이다.

이밖에도 징조로 여기는 자연 현상은 많다. 달빛으로도 점을 칠 수 있는데, 정월대보름 달빛이 붉으면 가뭄 징조이고, 희면 장마가 질 징조로 여겨진다. 또 달을 감싸고 있는 빛이 두터우면 풍년이 들 징조이고, 엷으면 흉년이 들 징조이다.[4] 동짓달 연못의 얼음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도 내년의 풍흉을 점칠 수 있다. 얼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풍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흉년이다.[5]

꿈도 빠질 수 없다. 돼지꿈은 단연 복이 들어올 조짐. 이 꿈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 복권을 산다. 돼지뿐 아니라 꿈에 나오는 동물 대부

02 2장.indd 147 2015-05-08 오전 11:42:33

분은 태몽胎夢에도 등장하는데 용, 호랑이, 곰 그밖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태어날 아기를 상징한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인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뇌의 작용, 꿈 역시 미래를 계시해 주는 징조의 하나로 대접 받는다. 그래서 '길몽'이 있고 '흉몽'이 있다. 꿈을 잘 풀이하여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다는 성서 속 요셉의 일대기는 널리 알려진 '몽점夢占'이야기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특정한 기상 현상, 식물의 형태, 동물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현상과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하루 또는 한 해의 길흉을 점쳤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자연 환경에 맞서서 늘 생존을 걱정해야만 했던 원시인들은 이렇게나마 앞일을 점쳐서 그에 맞게 대비책을 마련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원시인들의 점술과 사고방식은 역사 시대에도 면면히 이어져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의식과 관습 속에도 뚜렷한 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점술 역시 전문화되어 갔다.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생겼고, 식량과 영역 확보를 위한 집단 간의 전쟁이 벌어졌다. 이 시기 하늘 또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사祭祀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었다. 집단 내의 제사를 집전하는 정치적 지도자는 신神의 명령을 받아 전달하는 사제의 역할을 겸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거북점이나 시초점은 고대 중국의 제정일치 사회에서 지배자가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 점술 방법 중 하나였다.

그럼 그 옛날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점쳤을까? 다

02 2장.indd 148 2015-05-08 오전 11:42:33

음은 중국의 사서에서 전하는 부여夫餘의 점치는 풍속이다.

> 군사(軍事)가 있을 때에도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소를 잡아 발굽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져 있으면 나쁜 것으로 여기고 발굽이 붙어 있으면 좋은 것으로 여긴다.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
> —『삼국지(三國志)』권30「오환 · 선비열전」

부여인들이 국가의 중대사의 결정할 때 점술의 결과를 중요하게 받아들였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고구려 역시 부여와 같은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동물의 뼈나 발굽을 이용하여 점치는 풍속은 부여인이나 고구려인들뿐 아니라 남방의 백제에서도 있었음이 고고학 발굴 조사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유물이 2008년 서울시 송파구의 풍납토성터에서 발견된 소의 어깨죽지뼈(길이 34cm)인데, 이 뼈에는 7~8개의 낮은 홈을 파고 불을 지져 점을 쳤던 흔적이 남아있다. 이를 점뼈라 하는데, 한자로는 갑골甲骨 또는 복골卜骨이라고 한다.[6] 백제 초기의 왕성으로 알려진 풍납토성에서 그것도 비교적 큰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서 이런 점뼈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백제인들도 지배층을 중심으로 자주 점술을 행했음을 말해준다. 점뼈는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함경북도 무산군 범의구석,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적에서도 점뼈가 나왔다. 이렇듯 동물의 뼈를 불에 지져 길흉을 점치는 풍속은 북방의 부여와 고구려로부터 중부의 백제, 남해안의 신라와 가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국가 행사의 하나로 치러졌다.

02 2장.indd 149 2015-05-08 오전 11:42:34



함경북도 무산군 범의구석(호곡)유적 출토 점뼈(길이 14.2cm)(왼쪽)



서울 풍납토성 발굴 점뼈(길이 34cm) (오른쪽)





부산 기장군 출토 점뼈. (왼쪽) 김해 부원동 유적 출토 점뼈 (오른쪽)

『삼국유사』에도 점술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에서는 유리왕이 무당을 불러 점을 쳐서 저주를 밝히는 과정이나 차대왕 3년 흰 여우가 뒤를 따라오며 울기에 왕이 활을 쏘았으나 맞히지 못하고 무사巫師에게 길흉을 물은 이야기 등이 전해진다. 백제의 점술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의자왕 말년에 백제가 망한다는 소문이 돌아 땅을 파보니 3척 가량의 깊이에서 거북이 나왔는데, 그 등에는 백제는 둥근 달과 같고 신라는 초승달과 같다는, 백제의 멸망을 예언한 기사가 전한다. 신라는 또 어떤가? 신라의 국호를 계림鷄林이라고 한 것은

02 2장.indd 150 2015-05-08 오전 11:42:34

흰 닭의 울음소리를 점쳐서 정한 것이며, 진평왕 때 김유신이 고구려의 자객 백석을 잡은 것도 점술 덕분이었다. 특히 선덕여왕의 명으로 만든 첨성대는 별의 위치를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占星術의 발전 수준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7]



첨성대(국보 제31호)

고려시대 점술과 맹승

태조 왕건王建(877~943)이 통일신라 말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하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로운 한국사의 한 대목이다. 궁예의 휘하에 있던 왕건이 여러 난관을 무릅쓰고 왕으로 추대되는 이야기, 후백제 견훤과의 밀고 밀리는 싸움에서 결국 민심을 얻어 최후의 승자가 되는 이야기들은 기승전결을 갖춘 한 편의 드라마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렇지만 왕건의 승리는 그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니었다. 그를 보좌하던 책사와 장수들의 지략과 충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최지몽崔知夢(907~987)은 왕건이 가장 믿고 아끼던 책사였다. 최지몽의 원래 이름은 최총진崔聰進으로 경서와 역사서에 능통하였고 특히 천문과 복술에 정통하여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이름이 온 나라에 알

02 2장.indd 151 2015-05-08 오전 11:42:34

려졌다. 소문을 접한 왕건은 당시 18살이었던 최지몽을 불러들여 자신이 얼마 전에 꾸었던 꿈을 해석하게 하였다. 그 꿈의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는 것은 아쉽지만, 여하튼 최지몽은 꿈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한다. "길조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삼한을 통일하실 것입니다."이 말을 들은 왕건은 기뻐서 이 초롱초롱한 눈빛의 젊은이에게 '알 지'자, '꿈 몽'자, '지몽'이란 이름을 내려주고 당장에 그를 책사로 삼았다. 이후 최지몽은 항상 왕건을 따라 종군하였고, 삼한 통일 후에도 재상으로 있으면서 왕건 이하 여러 왕들을 도왔다.[8] 고려의 요셉이라고나 할까?

최지몽은 몽점뿐 아니라 점성술에도 능했다. 혜종(고려의 제2대 왕, 재위 943~945) 때 왕규의 반란음모, 경종(고려의 제5대 왕, 재위 975~981) 때 왕승의 반란음모를 미리 알고 적발한 것도 모두 최지몽이 별을 보고 점친 덕분이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점복 행정을 관장하는 관청을 설치한 것 역시 최지몽이 기반을 닦았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려는 점복 관련 기관으로는 태사국太史局과 태복감太卜監을 두었다. 태사국이 천문, 달력, 기상 관측 등 오늘날 기상청이 하던 일을 맡은 관청이라면, 태복감은 그밖의 점복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복정卜正 또는 복박사卜博士라는 관직을 두었다. 이후 두 관청은 사천대司天臺 · 사천감司天監 · 관후서觀候署 등으로 여러 번 이름을 고쳤다가 고려말에 와서 서운관書雲觀으로 통합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기록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고려왕조는 과거제도를 시행하면서 따로 복업과卜業科를 설치해 민간의 점술가를 점복사占卜師로 등용하는

02 2장.indd 152 2015-05-08 오전 11:42:34

것을 제도화하였다. 시각장애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점복업에 진출해 경제적 자립을 이뤘다. 통상 이들을 '맹승盲僧'이라 불렀는데 '눈먼 승려'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을 스님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때의 '승僧'은 도교 계통의 수행자를 가리키는 말로 불교와는 거리가 멀다.

고려시대의 맹승은 관직에 등용되기는 했지만 그리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는 못한 듯하다. 『고려사』를 보자. 때는 숙종 7년(1102)이었다. 감찰기관인 어사대御史臺에서는 진사 이제로李齊老가 맹승 법종法宗의 아들이므로 과거 응시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왕에게 아뢰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왕은, 과거는 어진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니 그 아버지가 누구이든 간에 학식과 재주가 뛰어나다면 마땅히 관료가 될 자격이 있으므로, 이제로를 과거에 응시하게 하라는 명을 내렸다.[9] 짧은 이야기이지만 고려시대 맹승의 사회적 지위를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점술이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되고 민간에서도 두터운 풍습이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한편에서는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에 대한 정치 · 사회적 차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진사 이제로는 과거에 합격했을까?

고려시대의 반란이나 암살 모의 사건에도 맹승은 관여했다. 다음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김준은 맹승 백량(伯良)이 문황(文璜)의 암살 음모에 대하여 길흉을 점쳐 주었다 하여 바다에 던져 죽이고 그 집을 몰수했다.
>
> —『고려사』권130 열전,「김준(金俊, ?~1268)」

02 2장.indd 153 2015-05-08 오전 11:42:34

그 옛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거사의 성공 여부를 알아보거나 거사일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 따져보다가도 결국은 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사 모의를 끝낸 음모자들이 최종적으로 찾는 사람은 점술가, 그것도 맹승이라야 했다.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라면 맹승만큼 좋은 상담자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비밀 모의에는 언제나 백량과 같은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끼어 있었다.

고려 말에 이르러 맹승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충렬왕 6년(1280) 5월 가뭄이 심하여 '맹승을 모아 비오기를 빌었다'는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10] 기우제가 해마다는 아닐지라도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치러지는 국가 행사임을 감안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맹승들의 평상시 모임 또한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들의 과거 응시를 막는 귀족 관료들로부터 씁쓸한 차별을 맛보았던 맹승 법종. 정치가들의 비밀 모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비참한 죽음을 맞은 맹승 백량. 이처럼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나약한 개인으로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냈던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고려 후기에 오면 마침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도 개경의 따가운 햇볕 아래서.

02 2장.indd 154 2015-05-08 오전 11:42:34

조선시대 관상감과 봉사

조선 중기의 실학자 이수광이 쓴『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조선이 중국보다 뛰어난 점 네 가지를 들고 있다.

> 우리나라 사람의 일로서 중국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부인이 절개를 지키는 것, 천한 사람도 상(喪)을 치르는 것, 맹인이 점을 잘 치는 것, 무사의 편전 쏘는 재주 등이다.(我國之人 有中朝所不及者四 曰婦女守節 曰賤人執喪 曰盲者能卜 曰武士片箭也)
>
> —『지봉유설』권16 어언부,「잡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말은 곧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을 것이다. 그 중에 시각장애인의 점술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각장애인의 점복 활동이 왕성하였고 그 수준 역시 상당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야말로 조선시대 점술의 주역들이었다.

고려가 설치한 점복 관련 기관인 서운관은 조선에 와서 관상감觀象監이란 명칭으로 계승되었다. 영의정이 명목상 책임을 지고 정3품 관료 정正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관상감은, 고려의 서운관과 마찬가지로 천문, 풍수지리, 책력, 술수, 기상관측, 시간측정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다음은 조선의 최고 법전『경국대전』에 나온 관상감의 관직이다.

02 2장.indd 155 2015-05-08 오전 11:42:34

조선시대 관상감 관직표

정1품	영사 1명(영의정)	종7품	직장 2명
정3품	정 1명	종8품	봉사 2명
종3품	부정 1명	정9품	부봉사 3명 천문학, 풍수학 훈도 각 1명 명과학 훈도 2명
종4품	첨정 1명		
종5품	판관 2명		
종6품	주부 2명 천문학, 풍수학 교수 각 1명	종9품	참봉 3명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관상감 안에 종8품 봉사奉事 2명과 정9품 부봉사副奉事 3명을 두어 점복에 관한 일을 맡겼다. 봉사직에는 명과맹命課盲이라는 시각장애인 점술가를 임명하였으므로 '봉사'는 점차 보통명사화되어 조선시대 시각장애인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 갔다.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의 동업조합, 명통사와 맹청

앞서 고려시대 수도 개경에 모여 비오기를 빌었던 한 무리의 '맹승'을 살펴본 바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민간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의 결속이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명통사明通寺'가 바로 그것이다. 명통사는 시각장애인들의 집회, 점복교육 등을 실시했던 기관으로 1402년 이전에 설립되었다. 명통사라는 명칭은 한성의 5부 중에 하나인 북부北部의 명통방明通坊에 자리하고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02 2장.indd 156 2015-05-08 오전 11:42:34

조선 초기 시각장애인들은 이 명통사를 중심으로 점복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가의 명을 받아 기우제를 올렸으며, 나라와 왕실의 안녕을 빌었다. 혹 임금이 능침을 알현하기 위해 거둥하면 어가가 궁궐 밖으로 나아갈 때나 돌아올 때에 여러 시각장애인이 의례적으로 도포를 입고 성 밖으로 나가 어가를 영접하기도 하였다. 이런 명통사에 국가는 정기적으로 곡식과 노비를 내려주어, 시각장애인 점술가를 양성하고 그들이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명통사는 국가의 공식 관청은 아니었지만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시대 음양학과 점복업의 요람 역할을 하였다. 또 이러한 명통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곧 조선의 장애인 복지정책으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명통사라는 이름은 세조 3년(1457) 9월의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고 유학의 근본이념에 충실한 사림士林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서, 소격서昭格署와 마찬가지로 도교 계통의 기관으로 분류되었던 명통사는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오면 이전의 명통사를 계승하는 단체로 통명청通明廳이라고도 하는 맹청盲廳이 등장한다. 1500년대 명통사가 없어져 시각장애인들의 구심점이 없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몽진할 때 시각장애인 신경달이 선조를 도와 큰 공을 세웠다. 이후 조정이 한양으로 돌아온 후 논공행상이 있자, 신경달은 소원을 묻는 임금에게 맹청을 세워줄 것과 시각장애인들에게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한양의 시각장애인 점술가 8명이 모여 맹청을 만들었으나 뒤이은 호란胡亂으로 인하여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다.

02 2장.indd 157 2015-05-08 오전 11:42:34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은 17대 효종대에 들어서다. 효종의 셋째아들인 계산대군이 어려서 시력을 잃었는데 계산대군은 당시 유명한 점술가였던 국종호를 만나 삶의 뜻을 찾게 된다. 효종은 이를 대견스러워하며 맹인 역리업자의 결사체인 '맹청'을 서울 중구 저동(현 중부경찰서 자리)에 설립하도록 했다. 맹청에 속한 이들은 차례를 정해 일을 나눴고, '4훈 · 5계'[11]와 같은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지켰다. 서양으로 치면 중세의 동업조합 길드(guild)와 비슷했다. 최고 900명의 시각장애인을 회원으로 거느린 강력한 단체였다.

맹청은 산하에 10개의 지부를 두었는데 이를 문생청門生廳이라고 하였다. 문생청은 시각장애인들의 경제 단위이자 여기에 속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복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육은 서당이나 학교처럼 한 스승이 여러 명의 제자를 앞에 두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가 1:1로 만나서 하는 문답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스승은 제자를 받아들이면 그 날부터 제자에게 침식을 제공하고 강미講米(수강료)를 받지 않았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철저히 이해시키고 제자로 하여금 그것을 절구로 만들어 외우게 하였다. 다음날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는 어제 배운 것을 스승 앞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운 후에야 새로운 학습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제자는 그날 배운 것을 철저히 복습해야 했다. 교육 내용과 기간에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처음 2년 동안은 육효, 다음 2년은 사주, 마지막 1년은 단시 · 택일 · 경문을 배웠다. 교육이 끝나면 제자를 처음 가르친 스승은 맹청 내에서 인격과 재력을 갖춘 사람을 골라 다시 스승을 정하여 정식으로 사제 관계를 맺게 하였다. 그러

02 2장.indd 158 2015-05-08 오전 11:42:35

면 제자는 새로 모시는 스승, 즉 정사正師의 문하생이 되며, 정사의 제자들끼리는 동문생이 되고, 정사 선생님의 동문생과는 숙질간이 되었다.

문생청으로 대표되는 시각장애인들의 관계맺기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미아리고개 역학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위해, 필자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권오형 님과 항상 동행하였다. 어느 날은 은하수여성역술관에 계시는 이미경 역학사를 방문하였는데 권 사무총장님이 이 역학사님을 '고모'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말 고모님이시냐고 여쭈었더니, 실제 혈연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문생에 속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시각장애인은 상호부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장애인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옛날의 전통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게 된 것이라고 한다.

영 · 정조 시대엔 서울에만도 900명의 시각장애인이 맹청에 속해 있을 만큼 민간에서도 맹복이 번성했다. 도성 안에서는 '판수'라 불렸던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북과 지팡이를 들고 둘 씩 짝을 지어 '수에-'라고 외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빽빽이 들어찬 지붕 사이사이에는 점집임을 알리는 하얀 깃발이 긴 장대에 매달려 펄럭였다. 좁은 골목에서는 북과 징을 두드리며 힘차게 경을 외는 판수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단연 한양의 명물이었다.

그렇게 맹복의 전성기가 지나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모든 국가제도가 혁신되면서 맹청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끊겼다. 그렇지만 문생 조직까지 해체된 것은 아니어서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은 다시 새 단체

02 2장.indd 159 2015-05-08 오전 11:42:35





김홍도, <맹인호점> (1700년대 말) (왼쪽)
김준근, <판수경닉고> (1800년대 후반) (오른쪽)

를 설립하여 맹청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된다.

개화의 물결, 미신으로 몰리는 점술

19세기 후반 개화의 물결이 중국과 일본을 거쳐 조선까지 들이닥쳤다. 거대한 군함을 끌고 눈앞에 나타난 서양의 실체를 목도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저들을 배워 '개화'해서 '문명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화를 주장한 사람들은 서양의 막대한 국력이 저들의 과학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개화 추종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과학과 비과학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비과학적인 것은 죄다 시대에 뒤진 것, 쓸모없는 것, 나쁜 것, 심지어 나라를 병들고 망하게 하는 원인으로 비쳤

02 2장.indd 160 2015-05-08 오전 11:42:37

다. 흔히 우리가 미신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비난 대상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점술과 독경은 조선에 가장 만연해 있는 미신이었다. 특히 독경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조선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나면 가장 먼저 의원이 아닌 시각장애인 점술가, 즉 판수에게 달려갔다. 병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몰랐던 옛날 사람들은 나쁜 귀신이 몸에 들어와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수가 환자 옆에서 신 나게 경을 외우면 귀신이 몸 밖으로 나가 병이 치료된다고 믿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의원에게 가지 않고 독경 의식만으로도 병이 나았다고 한다.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간 것도 사실이다. 개화 추종자들은 이 점을 따지고 들었다. 독경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할 뿐인 불량한 풍습이라는 점을 연설이나 글을 통해 주장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해조(1869~1927)가 1908년에 쓴 신소설 「구마검驅魔劍」이다. 서울 중부 다방골에 사는 만득이라는 아이가 천연두에 걸리자 그의 어머니 최씨가 판수의 독경, 무당의 굿만 찾다가 아이가 죽고 결국 가산을 탕진해 패가망신한다는 줄거리의 소설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 무릇 나라가 진보하지 못함은 풍속이 미혹한데서 비롯되나니, 슬프다! …… 사람을 내어 놓고 귀신을 위하여 무녀와 판수가 능히 재앙을 사라지게 하고 복을 맞아 오는 줄 여겨, 한 사람, 두 사람으로부터 온 세상이 본받아, 적게는 한 집만 멸망할 뿐 아니라, 크게는 나라까지 쇠약케 하나니, 이는 곧 억만 명 황인종이 금일 참혹한 형상을 당

02 2장.indd 161 2015-05-08 오전 11:42:37

한 이유이다.

— 이해조,「구마검」

과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작가에게 판수의 독경은 나라를 허약하게 만들고 동양이 서양의 침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비쳤다. 하지만 소설을 거꾸로 읽어 보면, 거세게 밀어닥쳤던 개화의 물결 속에 독경과 굿이 타파해야 할 미신으로 몰리는 와중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판수나 무당에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한국 민간 신앙의 많은 부분을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나긴 세월 동안 일상의 일부로 굳어버린 풍습이 소수 계몽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사라질 리 없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역리대성교의 설립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조선총독부가 인정한 종교는 딱 세 가지뿐이었다. 일본이 자기네 나라에서 들여온 신도神道를 비롯해 불교, 기독교만 정식종교로 인정받았다. 무속, 점술과 같이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민간 신앙 행위는 식민당국의 인가를 받지 못한 유사종교로 취급되었다. 식민지 경찰은 민간의 허가받지 않은 종교 행위를 단속, 처벌하였다. 이전 한국의 계몽 운동가들이 나라의 발전과 독립을 위해 미신타파를 외쳤다면, 일본은 오직 식민지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한국인들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미신을 단속했다.

02 2장.indd 162 2015-05-08 오전 11:42:37

일정한 장소나 건물을 두지 않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며 하는 점술과 독경은 일본인들에게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조선총독부의 미신 단속으로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한국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점술에 대한 믿음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을 찾아 고민을 상담했고 귀신을 쫓아주기를 부탁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동업조합 맹청이 없어진지는 오래였지만, 지부 역할을 했던 문생청이 제 구실을 한 덕분에 1:1 역학 교육과 상부상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 춥고 어두운 식민지의 계절을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은 겨울 나무처럼 견디었다.

1925년 마침내 전국의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이 들고 일어났다. 1925년 9월 1일 <조선맹인역리대성교>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결성한 전국의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은 누차에 걸쳐 조선총독부에 항의하여 결국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의 생업을 위하여 민간의 점복과 독경 행위를 묵인한다는 조선총독의 허락을 받아냈다. 조합의 창설을 위하여 김병순, 방덕권, 조명규, 이규옥 등 시각장애인 네 명이 기미년 3 · 1운동부터 7년 동안 부단히 노력한 결과였다. 초대 회장은 이문호가 맡았다. 이후 <조선맹인역리대성교>는 일제강점기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의 동업조합 역할을 충실히 하다가 1956년 <대한맹인역리대성회>로 명칭을 바꾸고, 1971년에는 <대한맹인역리학회>라는 명칭으로 법인 설립 인가를 얻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27년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시각장애인 수는 모두 11,206명으로 총인구의 약 0.6%를 차지했다. 이 중 무

02 2장.indd 163 2015-05-08 오전 11:42:37

직자 8,353명을 제외하면 점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539명으로 직업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비율이 높았다. 나머지는 침술과 안마에 종사하는 사람이 383명, 기타 직업이 931명이었다. 침술과 안마는 조선총독부가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맹학교를 세워 훈련시킨 새로운 직업으로, 이때부터 점차 종사자가 늘어났다. 오늘날에는 시각장애인 직업 가운데 안마사의 비율이 훨씬 높지만, 해방 이전까지만 해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복업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 아무래도 점복업 쪽이 수입으로 보나 사회적 대우로 보나 더 나았기 때문이다.

(백외준)

02 2장.indd 164 2015-05-08 오전 11:42:37

점복의 종류

육효점六爻占

산통점(算筒占)이라고도 한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량이 처음 산통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전한다. 이 점법은 산통에 산가지를 여덟 개 넣어 두고 뽑아서 효를 얻고, 괘를 만들어 역서에 적힌 괘문으로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것이다. 산통은 금속이나 나무의 속을 깎아 만들거나 혹은 조롱박의 속을 파내서 공동을 만들어 여기에 산가지를 넣는다. 산가지는 나무나 금속으로 만드는데 여덟 개이며, 길이는 10㎝ 전후로 길이는 산통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다. 산가지에는 1에서 8까지 눈금을 새겨서 시각장애인 역학사의 경우 손으로 만져서 숫자를 헤아릴 수 있도록 한다.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금속 재질의 팔각 기둥 모양의 통일된 디자인의 산통을 제작,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점치는 방법은 먼저 상 위에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운 뒤에, 문복(問卜)하는 사람의 질문이나 소원을 말한 다음, 산통을 흔들어 산목이 섞어지도록 한 뒤 산통의 구멍에서 산목을 하나씩 꺼내서 새겨져 있는 눈금을 읽고, 여섯 번 되풀이하여 괘를 만들어 점을 친다. 이 방법도 산목에 새겨진 것이 숫자인가, 음과 양이 표시된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64괘는 육효점의 괘문과 같고, 다만 괘를 만드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음양과 역학의 원리를 적용한 작괘점(作卦占)의 일종으로 널리 전파되어 있어서 속담에 '산통 깬다'는 말은 점칠 수도 없게 되

02 2장.indd 165 2015-05-08 오전 11:42:37

어 속수무책으로 다 틀렸다는 뜻으로 전하고 있다.

육효점은 사주점과 달라서 평생의 운세를 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고, 주로 가까운 미래를 점칠 때 쓴다. 가령 점 보러 오는 사람이 '건물이 두 개인데 앞으로 어느 건물이 재산가치가 있겠는가?'묻는다면 사주점으로는 거의 답변이 불가능하다. 대체로 일수, 신수, 재물, 건강, 매매, 진급, 시험에 관해 알고 싶을 때 육효로 점을 친다. 미아리고개 점성촌에 있는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의 경우 대개 '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육효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그밖에 솔잎으로 치는 점, 엽전으로 치는 거북점 등도 육효점과 같은 원리를 따른다.

사주점四柱占

사성(四星)·강서(剛書)·경첩(庚帖)이라고도 한다. 이를 풀어봄으로써 그 사람의 지나온 생애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길흉화복을 점치는데, 이를 사주점이라고 한다. 사주란 사람을 집에 비유할 때, 생년·월·일시를 집의 네 기둥으로 본 것이다. 간지는 두 글자씩 짝이 되므로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도 한다. 보통 운명이나 숙명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사주는 10간과 12지를 조합하여 계산하므로 60갑자, 즉 육갑(六甲)으로 표현된다. 사주가 그 사람의 운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을 명리(命理)라 하고, 사주를 분석·종합하여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짚어보는 것을 추명(推命)이라 한다. '사주를 본다'는 것이 바로 추명이다. 추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숙명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흉을 피하고 길을 취하는 개운법(開運法)을 쓴다. 사주로 알 수 있는 것

02 2장.indd 166 2015-05-08 오전 11:42:37

은 개인의 성격이나 적성, 부모형제·부부·자녀 등 대인에 관한 것, 관운·재운 등 운수, 그밖에 건강·상벌·재앙 등이 있다.

미아리 점성가촌 역학사들은 사주를 볼 때 당사자의 생년월일시 외 이름을 물어 백지에 점자틀로 그 내용을 찍어놓은 다음 사주를 육십갑자로 따지고 점자로 된 만세력을 보아 확인한 후 음양오행의 역리에 맞춰 설명한다.

작명作名

작명을 할 때에는 8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사주에 적합한 글자 즉 용신(用神)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 읽기 쉬워야 하고 부르기 쉬워야 하며 듣기가 좋아야 하고 쓰기가 쉬워야 한다. 외우기 쉬워야 하고 친근감을 주어야 하며 새로운 느낌이 있어야 한다. 이름을 까다롭고 괴상하게 작명하는 것은 서투른 작명법이다. 무엇보다도 사주의 용신을 기준으로 하여 작명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주에 맞지 않는 것은 허명(虛名)이다. 좋은 이름이면 부귀공명하고, 나쁜 이름이면 불구 · 조난 · 단명한다.

택일擇日

행사를 하기에 앞서 피흉추길(避凶諏吉)의 한 방법으로 음양오행 원리와 육갑 신살법 등에 의거하여 좋은 날을 가리고 나쁜 날을 피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길흉일을 구별하여 고르다, 가리다"는 의미에서 '날가림', "길일을 점쳐서 골라 정하다"는 의미에서 '복일(卜日)',

02 2장.indd 167 2015-05-08 오전 11:42:37

"길일을 물어서 취하다"는 의미에서 '추길(諏吉)'·'추일(諏日)'이라고도 한다.

현재 택일 풍속의 전승실태를 살펴보면, 혼인·이사 택일이 가장 성행한다. 그 다음으로 개업·출산 택일이 중요시된다. 현재 민간에서 이사·혼인·집수리 등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손'이다. 우리 민속에서 '손'은 날짜에 따라 사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귀신인 '손님'을 줄여 부른 것이다. 음력으로 1일과 2일은 동쪽, 3일과 4일은 남쪽, 5일과 6일은 서쪽, 7일과 8일은 북쪽에 있다가 나머지 이틀간(9일과 10일)동안은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진 뒤 11일에 다시 땅에 내려와 동쪽에 나타나는 등 10일 간격으로 돌아다닌다. 사람들은 손 있는 날이나 방위에 이사·혼인·집수리 등을 했다가는 큰 재앙을 당한다고 믿어왔다.

시대 흐름에 따라 택일 풍속도 비록 모습이 크게 달라졌지만 지금도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궁합宮合

혼인할 남녀의 생년월일시를 오행(五行)에 맞추어 보아 부부로서의 길흉을 예측하는 점이다. 궁합에는 12지(支)에 따른 겉궁합과 오행에 따른 속궁합이 있다. 예로부터 혼인성립에 필요한 절차의 하나로서, 남녀의 생년월일에 의한 궁합과 택일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궁합을 보아 사주와 오행에 살(煞)이 있으면 불길하다고 하여 결혼을 하지 않았다.

02 2장.indd 168 2015-05-08 오전 11:42:37

궁합은 혼인의식의 한 절차인 납채(納采)의 과정에서 보게 된다. 즉, 신랑측으로부터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기재한 혼장(婚狀)인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측에서 점복가로 하여금 길흉기부(吉凶忌否)를 점치게 하는데, 이때에 궁합도 아울러 보게 되는 것이다. 신부측에서 점괘가 좋으면 연길(涓吉)이라고 쓴 봉서인, 이른바 택일단자(擇日單子)를 신랑측에 보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궁합을 보는 관습은 전통의식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요즈음에도 다른 조건은 좋은데 궁합이 맞지 않아 혼인을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다른 조건들은 별로 좋지 않은데 궁합이 좋다는 이유로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02 2장.indd 169 2015-05-08 오전 11:42:37

독경이란?

독경은 무속의식의 한 형태로 무녀들이 행하는 굿과는 달리 독경자가 앉아서 경문을 낭송하므로 '좌경(坐經)'또는 '앉은 굿'이라고도 한다. 독경을 행하는 독경무(讀經巫)는 경장이·경객(經客)·판수·법사(法師)·장님·복사(卜師)·경사(經師)·독경자(讀經者)·신장(神將)·신객(神客)·술객(術客) 등 여러 명칭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호칭이 다르다.

독경무는 대체로 시각장애인이 많고 여자보다도 남자가 많아서 남자무당의 통칭인 격(覡)으로 지칭되기도 하나, 굿을 하는 박수·재인·화랑이·광대 등의 남무(男巫)와는 계통이 전혀 다른 부류이다. 독경무는 무의형태(巫儀形態)를 기준으로 붙여진 명칭이며, 그 중에는 남자와 여자, 강신무(降神巫)와 학습무(學習巫)도 있다.

학습무는 생업을 위하여 독경을 배워서 행하는 독경무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전에는 이들을 '판수'라고 불렀다. 어려서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선배 독경사를 찾아가서 사제지의를 맺고 경문암송 및 점복과 무의 진행방법 등을 배운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 중에도 경문을 배워서 독경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으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다. 대체로 독경무들도 신당을 모시고 있으며, 독경의례 이외에도 침술이나 점복 등을 겸하고 있다.

독경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는 현실적인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신을 청하여 화해함으로써 인간의 길복을 추구하는 무당굿과 달리 악귀를 쫓아내는 주술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독경무들은 악

02 2장.indd 170 2015-05-08 오전 11:42:37

귀를 직접 쫓지 않고 신장대를 내려 신장대로 하여금 잡귀를 퇴치하게 한다. 독경의례는 가정에서 주로 행해지는데, 안택·고사·성주받이 등의 기복의례와 치병의례 그리고 독경무의 '내림굿'에 해당하는 '신도맞이'와 자신들의 재수를 발원하는 정기적 의례가 있다.

기복의례는 가정의 주신(主神)인 성주신과 터주신에 대한 제의로서 가정의 안녕과 복운을 비는 것이다. 진설한 제물 앞에 앉아서 북 또는 북과 징을 함께 치며 축원을 하는데, 부정경·지신경·성조경·명당경·조왕경·삼신경·환위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치병의례는 '경읽는다'또는 '독경한다'고도 한다. 환자가 발생하면 문복(問卜)을 하여 악귀가 들렸다고 판명되었을 때 행한다. 제의 절차는 경당배설 후에 분향하고 북을 울리면서 축원문을 낭송한다. 가신(家神)인 성주·조상·조왕·제석 등에 먼저 고하고 신장편과 청신경으로 신을 청한 다음 옥추경·옥갑경·천지팔양경 등의 경문을 반복하여 낭송한다. 그리고 독경의 도(度)가 차면 신장대잡이와 사귀대잡이를 정하여 함께 '귀신잡이'를 한다. 귀신을 잡으면 빈 병에 가둔 후 해원경을 읽어 귀신의 원을 풀어주고 귀신잡이가 끝난 다음에 신들을 돌려보내는 신장환위경을 읽는다. 그리고 가신축원문을 낭송하여 집안의 신들을 좌정시킨 후 복덕을 빌고 독경을 마친다.

전통시대 시각장애인들이 점복업에 종사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같았으나, 유독 독경에 있어서만은 한국의 시각장애인들만이 행하였다. 한국의 시각장애인은 자주 국가나 왕실을 명령을 받아 독경의식을 행하였다. 가뭄이 심할 때, 왕이 행차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한 장

02 2장.indd 171 2015-05-08 오전 11:42:37

소에 모여 경을 외웠다는 사실이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기록에 나온다. 왕실이나 관료의 가족 가운데 병이 난 사람이 있어도 역시 시각장애인 점술가들을 불러 독경의식을 행하였다. 시각장애인의 집회소인 명통사와 맹청에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적으로 독경의식을 행하였다. 이때 시각장애인 가운데 지위가 높은 자는 방안에서 하고 지위가 낮은 자는 문을 지키고 바깥 대문과 안 대문에 각각 창을 세우고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니, 의례시 엄숙한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일반 가정에서도 음력 정월과 시월에 시각장애인을 불러 안택경을 외우게 하였다. 독경이 점차 하나의 세시풍속으로 자리잡아 간 것이다. 아래의 한시와 그림을 보면서 그 시대의 풍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에서 상달에 신령께 제사를 지내는데 民間上月事神靈
재앙을 없애고 집이 편안하기를 모두 원한다 摠願消災家安寧
맹인의 북소리는 둥둥 깊은 밤에 울리고 瞽鼓鼕鼕深夜裡
집안 가득히 모여 같이 외는 옥추경 滿堂齊誦玉樞經

— 유만공, 『세시풍요』(1843)

일제강점기만 해도 민간에서 널리 행해졌던 독경은 1960-70년대 한국사회의 급속한 서구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나마 육효점, 사주, 택일, 작명 등 주로 점복과 관련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경을 읽으며 종교적 의식을 행

02 2장.indd 172 2015-05-08 오전 11:42:37

했던 시각장애인 독경은 그것을 배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시각장애인 독경사의 숫자는 십수 명 정도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은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김준근의《조선풍속도첩》중
〈맹인송경〉(1800년대 후반)

2000년대 접어들어 독경의식은 전수자의 부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독경의식을 복원해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 역사문화재과가 독경의식을 전통문화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대한맹인역리학회 회원들이 복원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성주선경, 도액언별, 성주대잡이 등 이미 사라진 의식을 복원하게 되었다. 현재는 대한맹인역리학회가 매년 한 차례씩 성북구 정릉동 북악당에 회원들을 모아서 독경 의식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독경의식에는 여러 가지 의식이 전해져 오는데 앞으로 의식 전체를 복원, 재연할 수 있게 된다면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2014년에는 9월 19일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안택경을 외는 독경 행사를 치렀다.

02 2장.indd 173 2015-05-08 오전 11:42:38

미아리 점성촌이 걸어온 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항상 자신들의 의사를 공동체를 통해 표출했던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의 모토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신체적 결함은 시각장애인들이 외따로 혼자 살기보단 여럿이 함께 모여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다. 고려시대 개경 맹승들의 모임, 조선시대 명통사와 맹청, 일제강점기의 대한맹인역리대성교. 이 모두는 이름만 다를 뿐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었던 단체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역학사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영도다리

6.25전쟁 기간 부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피난민들에게는 집과 식량의 확

02 2장.indd 174 2015-05-08 오전 11:42:39





피난시절 영도다리 밑에 점을 보는 사람들(왼쪽)

영도다리 밑 점바치 골목(2014). 한때 50여 집이 영업할 정도로 번성했으나 점점 규모가 줄어 지금은 3집만 남아있다. (오른쪽)

보도 힘든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큰 고통은 피난길에 식구들과 헤어져 생사도 모른 채 지내야 하는 것이었다. 부산 중앙동과 영도를 잇는 영도다리는 피난민들이 매일 운집하는 장소였다. 다리 밑에 가면 혹시 잃어버린 부모, 헤어진 형제, 사랑하는 자식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사람들은 영도다리에 매일처럼 나갔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거나 하염없이 돌아다닐 수는 없는 일. 잃어버린 식구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누군가 나타나 알려주기만 해도 나을 성싶었다. 다급한 사람들은 역학사들을 찾았다. 평소 집 나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데 용한 육효점은 이산가족을 찾는 데도 그만이라 생각한 까닭이다. 서울에서 내려온, 육효점에 정통한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이 하나 둘 영도다리 밑으로 와서 자리를 깔았다. 어느새 다리 밑은 '점바치 골목'으로 변했고 이것이 오늘날 점성촌의 기원이 되었다. 전쟁 전만 해도 점집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때부터 점집들이 한 곳에 죽 늘어선 형태의 점성촌이 만들어진 것이다.

02 2장.indd 175 2015-05-08 오전 11:42:39

종삼과 남산

전쟁이 끝나자 피난민들과 함께 시각장애인 역학사들도 서울로 돌아왔다. 전쟁 기간 폐허가 되었던 서울 시내도 어느 정도 복구되었고 다시 인구도 늘어났다. 한때 부산에서 점성촌을 이뤘던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은 이제 한 구역에 모여 점집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점집을 큰 상점들이 있는 대로변에 얻을 수는 없었으므로, 행인이 많이 다니면서도 집세가 싼 곳을 골라 점집을 차려야만 했다. 그렇게 따지자면 종로3가 뒷골목과 남산 기슭의 양동과 도동이 최적의 장소였다. 동양철학관 이회택 역학사의 설명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종로3가 종묘 앞부터 돈화문 앞을 거쳐 낙원동까지 점집이 즐비했다고 한다. 역학사들은 지붕 위로 점집임을 알리는 하얀 깃발을 긴 장대에 매달아 놓았다고. 탑골공원 둘레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노점이 많았다고 한다.

종묘 앞 종로3가 뒷골목 풍경(1967)(위)
양동 무허가 건물 철거(1964. 9. 23.) (아래)





02 2장.indd 176 2015-05-08 오전 11:42:39

남산 기슭 양동과 도동이란 곳은 지금의 남대문로5가에 속한 지역이다. 쉽게 말하자면 서울역 앞 남대문경찰서를 둘러싼 동네이다. 지금은 구 대우빌딩, 힐튼호텔 같은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아래 쪽방촌이 형성되어 있지만 50~60년대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 점성촌으로 알려졌다. 종로3가에는 비교적 성공해서 부유한 역학사들이 점집을 차린데 비해, 수많은 판자집이 들어찼던 양동과 도동은 방세가 종로3가에 비해 훨씬 싼 편이라 주로 점집을 차린 지 얼마 안되는 초보 역학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 이곳은 서울의 최대 관문 서울역과 마주하고 있어서 자연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도심을 드나드는 사람들, 청운의 꿈을 품고 상경한 사람들, 남산에 한가하게 놀러 나온 사람들, 역 주변에서 날품팔이로 일하는 사람들로 역전은 늘 붐볐다. 그래서인지 양동과 도동의 점집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시내의 모습은 대대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도시계획을 짰다. 이에 따라 외곽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 신설했다. 도심재개발도 함께 추진했다. 도심재개발은 우선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 또는 무허가 판자집이 밀집한 주거지를 철거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종로3가와 양동과 도동 역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철거를 단행했다. 이들 구역은 점집뿐 아니라 성매매업소가 대거 밀집해 있어서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별수 없이 자리를 내어준 역학사들은 영등포, 보문동, 용두동, 서대문 등 도심 외곽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02 2장.indd 177 2015-05-08 오전 11:42:39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형성

철원철학관의 이도병 역학사가 남산 기슭을 떠나 동선동 미아리고개 아래의 마을로 들어온 것은 1966년 4월이었다. 그해 10월 15일 돈암동과 미아리를 잇는 도로의 확장공사가 끝나면서, 도로 폭도 8m 2차선에서 25m 4차선으로 넓혀졌다. 고개의 경사를 낮추기 위해 고갯마루를 깎아내렸고 야트막한 고가도로도 놓았다. 그리하여 고가도로 밑에는 도로 양쪽 동네를 연결하는 굴이 생겨서 행인들이 오갈 수 있게 되었다. 굴다리가 생기자 이도병 역학사는 굴다리 밑에 노점을 차리고 영업을 시작했다. 제법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다. 2년 뒤인 1968년에는 월세 가게를 하나 얻고 간판을 달았다. 소문을 듣고 다른 역학사들도 하나 둘 합류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도병 역학사는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용해서라기보다도 미아리고개 아래가 행인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가 전차종점이거든. 지하철 다니기 전에는 을지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전차 노선이 있었어요. 청계천 건너 을지로4가에서 타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전차가 여기까지 오니까 정릉, 삼양동, 우이동 이런 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버스타고 와서 전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거야. 전차가 더 싸니까. 그때 전차 요금이 5원인가 10원인가 했거든. 그거 타고 을지로 가서 을지로에서 영등포나 서대문으로 갔었죠."

— 이도병 역학사(철원철학관)

02 2장.indd 178 2015-05-08 오전 11:42:39

1988년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한 역학사는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같은 점집은 시골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세상살이 힘겨운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길목이어야 합니다. 과거 남산 언덕배기에 점집이 많았던 것은 그곳이 어렵고 힘없는 변두리 서울 사람들의 휴식처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한테 신통하단 소릴 들어야 잘사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겨레신문』1988. 9. 28.

1970~80년대만 해도 미아리고개 아래 지금의 성신여대입구역 교차로 부근은 미아리고개 너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길목이었다. 아침이면 시내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저녁이면 미아리, 아리랑고개 너머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고 그 인구가 시 외곽으로 흘러넘치던 시기, 미아리고개는 외곽과 중심을 연결하는 요충지였다. 점집이 들어서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미아리고개 아래 점집을 차리기 좋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방세 덕분이었다. 당시 미아리고개를 넘는 만원버스들은 가파른 경사 때문에 엔진에 무리를 일으켜 시커먼 연기와 배기가스를 마구 뿜어댔다.[12] 매연으로 도로 양옆의 집들에서는 마당에 빨래도 내어 널지 못할 지경이었다. 소음도 대단했다. 살림집을 차리기에 부적당한 이곳의 방세가 싼 건 당연했다. 많은 행인과 저렴한 방세. 미아리고개 밑 동선동은 역학사들이 입주하기에 안성맞춤의 공간이었

02 2장.indd 179 2015-05-08 오전 11:42:39

다. 더구나 이미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가 널리 알려져 미아리고개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도 높았기 때문에 '미아리 점성촌'이라는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잘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 이런 좋은 영업 조건 때문에 미아리고개 아래 점집 수는 계속 늘어나 1980년대 중반에는 70여 호의 점집이 모인 전국 최대의 점성촌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전성기, 그리고 IMF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자 미아리고개 점집들도 이에 힘입어 전성기를 누렸다. 용하다는 입소문과 미아리의 유명세를 듣고 오는 손님들이 많았다. 택시를 타고 '미아리 가 주세요'하면 으레 동선동 미아리 점성촌으로 데려다 주던 시절이었다. 연초나 입시철, 선거철과 같은 대목에는 한 집에 30~40명이 찾아와 쉴 틈도 없을 지경이었다. 고객은 주로 30~50대 주부들로 그 중에는 단골이 꽤 있어서 한 달이 멀다하고 찾아와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본인 관광객도 여행사의 소개로 자주 찾았다. 가끔은 젊은 사람들도 끼리끼리 어울려 점성촌을 찾았다. 대학생들, 결혼을 앞둔 연인들, 가끔은 술 한 잔 걸친 친구들끼리 와서 막연한 호기심에 점집 문을 두드리곤 했다. 윤대녕의 단편소설 「January 9, 1993. 미아리통신」에는 그렇게 무심코 점집을 찾던 젊은이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그 시절 간혹 신문에서는 선거철을 앞두고 점집을 찾는 정치인

02 2장.indd 180 2015-05-08 오전 11:42:40

들을 비꼬는 기사가 오르기도 했다. 정치에 막 입문한 정치 초년생부터 정당의 중진 의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점성촌을 찾았다. 당사자가 직접 점집을 찾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들의 부인들이 와서 점을 보고 갔다. 정치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공천이나 선거에서의 당락 여부, 선거운동 방법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고, 권력 중심부 있는 사람들이나 당내의 중진들은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떠오를지 물어보는 수가 많았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복채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비쌌다.

1996년에 끝난 미아로 확장공사는 점성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도로 폭을 기존 5차선 25m에서 8차선 35m로 넓히면서 도로 남쪽의 건물들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점집이 헐렸다. 현재 도로 남쪽의 점집 간판들의 수가 북쪽보다 유난히 적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듬해인 1997년 말에 터진 IMF 외환위기 사태는 점성촌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흔히 경제가 어려우면 괴로운

미아로 확장 공사 전 점성촌 북쪽 풍경(1990)(위)
미아로 확장공사 전 점성촌남쪽 풍경(1990) (아래)





02 2장.indd 181 2015-05-08 오전 11:42:41

일도 많으니까 그럴 때 오히려 점집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막상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점집을 찾고 싶은 마음의 여유조차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극심한 불황 속에서 점성촌을 찾는 발길이 하나 둘 끊기자, 문을 닫거나 이사하는 점집이 늘어났다.

손님이 준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 IMF가 터지자 실직자가 급증했고, 그들 가운데는 역학을 배워 점집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시각장애인 역학사들과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입지도 줄어갔다.

"어느 날 IMF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실업자가 대량 생산이 되었잖아. 돈 버는 게 귀천이 없어졌어. 대학 교수, 회사 사장도 점쟁이 일을 하게 되었어. 점쟁이는 맹인들이나 정신적으로 특수한 만신 무당이나 하는 직업이었는데, 엘리트들이 점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야. 역학은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책 몇 번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 역서가 어려운 학문이긴 하지만 말이지. 그래서 맹인 역학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었지. 게다가 인터넷이 발달해서 컴퓨터만 다다닥 두드리면 가만히 앉아서 점보잖아. 손님이 이래저래 계속 준단 말이지……."

— 심남용 역학사(청산철학관)

02 2장.indd 182 2015-05-08 오전 11:42:41



진화하는 미아리 점성촌

그러나 '역학易學'이 무엇이던가? 인간사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자는 학문이 아니던가? 미아리고개의 역학사들은 그들답게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 불황이란 캄캄한 터널에 적응하면서 하나하나 자구책을 마련해갔다.

첫 번째, 공부를 했다. 어떤 손님이 오든지 그들의 고민과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역학사들은 다시 세상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역학사들은 책과 잡지를 읽고, TV와 라디오를 들었다. 최근 점복업에 막 진출한 젊은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은 심리상담사 자격증까지도 취득해서 더 가까이 손님의 입장에 다가서려고 한다. 요즈음의 점은 사주풀이나 점괘가 20%라고 하면 그 후 손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뤄지는 상담은 80%정도 된다고 한다. 그만큼 점 자체보다 상담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갈수록 손님들의 고민거리가 다양해지는 세태를 따라잡기 위해 점성촌의 역학사들 또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점성촌 한켠에 자리한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점자도서관과 심리상담사 직업교육과정을 두어 역학사들의 자기계발 노력을 돕고 있다.

두 번째, 인터넷을 이용했다. 인터넷은 열린 도구인지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용도가 발견되는 법. 처음 등장한 인터넷 운세는 오프라인 점 시장을 나눠먹는 주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은 인터넷의 새로

02 2장.indd 183 2015-05-08 오전 11:42:41



소리사주 홈페이지 첫 화면

운 용도를 발견했다. 막 역학을 배워 점복업에 진출하려는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다. 이름하여 '소리사주(www.sorisaju.com)'. 이 웹사이트는 일반인들이 점성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에게 전화로 사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로써 아직 점집을 개업하지 못한 역학사들에게 창업 전까지 꾸준히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 번째, 맹인 독경의 전통을 되살렸다. 맹인 독경은 서울 지역에 남아 있는 시각장애인 특유의 전통 의식이다. 앞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맹인 독경은 가뭄이나 홍수 때 국가적인 행사로서, 사적으로는 집안에 궂은 일이 있을 때 액을 쫓거나 액을 막기 위해 치러진 의식이다. 그런데 서양 의술이 대중화되면서 독경에 대한 수요도 많이 줄어 2000년대 초반 무렵에는 독경의식의 전통도 점차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2005년 대한맹인역리학회 소속 역학사들과 여러 대학의 민속학자들,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맹인 독경 의식을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일반에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후 대한맹인역리학회는 이 행사를 매년 경經의 종류를 달리해 정릉 북악당에서 치러오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등록을 준비 중이다. 예전에는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독경업

02 2장.indd 184 2015-05-08 오전 11:42:41



2014년 9월 19일 정릉2동 북악당에서 열린 서울시각장애인독경 발표 행사.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소속 회원 9명이 <안택경>을 3시간가량 독송하였다.
유튜브(https://youtu.be/KLB3_CWAW-c)에 접속하면 행사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이제는 시각장애인 역학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아리고개 점성촌은 단순히 영리 추구를 위한 점집들의 집합소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 신앙과 민속 문화를 지켜나가는 어엿한 문화공동체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백외준)

02 2장.indd 185 2015-05-08 오전 11:42:42

미아리 점성촌의 역학사들



우리는 안 보고도 맞추니까, 그게 우리 미아리의 자랑이죠

점집명 : 매화부인예언가

역학사 : 송오순(73)

인터뷰 : 2014. 6. 18.

이 점집을 언제 차리셨어요?

이 집은 1988년에 차렸어요.

그때 여기서 처음 영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열여섯 살부터 역술업을 했어요. 경기도 연천이 고향인데 부모님 슬하에서 있다가, 스무 살 때 서울로 나와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여기서 오래 정착했어요. 역술은 열세 살 때 처음 배웠어요. 고향에 역술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서 3년을 공부했죠.

02 2장.indd 186 2015-05-08 오전 11:42:42



02 2장.indd 187 2015-05-08 오전 11:42:43

고향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천군 백학면 노봉리가 제 고향 마을인데 당시만 해도 백 호 이상 모여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이었죠. 그 때는 제가 점을 볼 줄 아니까 동네에서 우물을 파려고 해도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는 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점 보러 나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내가 서울에 학교도 있고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스무 살 때 아주 서울로 나왔어요. 그때부터 서울서 사는 거죠.

처음 역학을 배우실 때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점자도 있고 책도 많고, 아니면 테이프로도 듣고 컴퓨터 파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때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점자책도 없었고, 그 당시에도 물론 뭐 서울맹학교 이런 학교는 있었지만, 나는 시골서 학교도 안가고 이랬으니까 점자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배웠어요. 뭐 가령 '갑자'하면 '갑자'이렇게. 선생님이 '갑자 을축'하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하면 '병인 정묘'이런 식으로 따라서 외웠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되면 어제 배운 거 외워보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실 때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땐 힘들었죠. 어리니까. 열세 살이면 뭐 애들인데 학교도 안 가보고 입으로 하려니까 힘들죠. 학교를 가는 게 낫지 이걸 배우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이 안 배우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부

02 2장.indd 188 2015-05-08 오전 11:42:43

모님이 이걸 배워야 밥을 먹고 살지 학교 가면 못 산다 이거야. 그 당시 내가 맹학교 있다는 걸 알고 맹학교에서도 날 데리러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안 보낸 거야. 혼자 어린애를 어떻게 거기 보내냐는 거야. 맹학교 가서 안마를 배워서 하면, 옛날 말로 기생이나 마찬가지로 남자를 주물러야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역학을 배우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집에 찾아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하셨죠.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긴 맞아요, 지금 봐도. 우릴 찾아오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안마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랬냐 저랬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점을 배운 거예요, 그때.

형제들도 계십니까?

형제는 많아요. 칠남매나 되었으니까. 왜 제 이름이 오순이냐 면은 다섯째 딸이기 때문에 오순이예요. 다섯 오五자, 순할 순順자.

서울에 오신 게 스무 살 때였으면 바로 점집을 차리셨나요?

예. 그때 바로 차렸죠. 천호동에. 그때만 해도 천호동이 아주 촌이었어요. 굽은다리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방을 얻었어요. 내가 그동안 번 돈에다 부모님이 좀 보태주셔서 방을 얻어서 영업을 시작했죠. 천호동이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촌이어서 길도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비만 왔다 하면 장화 없이는 못 살 정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왜 거기로 이사를 갔냐면 우리 언니가 거기 살았기 때문이예요. 우리 부모님이 언니 사는 근방으로 보내야 안심이 돼서 거기로 보낸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촌이다 보니 영업이 잘 안되더라구요. 길도 안 좋고. 그래서 청량리로

02 2장.indd 189 2015-05-08 오전 11:42:43

이사 왔어요. 청량리에 살다가 또 종로에서 살다가, 의정부에도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왔어요.

어떤 계기로 여기 오시게 되었습니까?

아, 무슨 계기가 있어서 온 건 아니고, 그래도 여기가 서울이랑 가깝고 해서 온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도 사람이 많이 살지만 그때도 미아리 시장이 되다시피 하니까 여기 와서 자리를 잡아봐야겠다 하고 왔죠.

오실 때 자리를 금방 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여기에 자리가 많았어요. 지금도 여기 물론 맹인들만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기 맹인들이 집 얻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잘 안주고 근데 여기만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사 오기가 쉬웠죠.

가장 손님이 많이 올 때, 말하자면 언제가 가장 전성기였습니까?

잘 될 때는 1, 2월도 되고. 또 학생들 수능시험 볼 때 손님이 많이 찾죠.

손님들이 어떤 것을 자주 물어보나요?

사주를 많이 봐요.

02 2장.indd 190 2015-05-08 오전 11:42:43

손님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젊은 층은 주로 학생들이 진로를 묻기 위해서 오고. 입학할 땐 또 어느 학교가 좋은가 그거 때문에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졸업하고 자기가 사주를 봐가지고 진로를 문의하려고 많이 오고 그렇죠. 또 사업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은가 문의하러도 오고. 또 정치하려는 사람은 정치하면 자기가 출세를 하겠나 이걸 물어보러도 오고 그렇죠.

다들 만족해서 가시나요?

그래도 제가 사주는 잘 본다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많이 와요. 우리 집에서 사주보고 간 사람이 아 거기 아무 댁 가면 사주 잘 본다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손님이 오고. 또 그러기 때문에 와서 보면 과연 사주를 잘 본다고. 그런 손님들이 단골이죠.

미아리 점성촌만의 특색이 있다면 뭘까요?

여기만의 자랑은 다른 거 아니예요. 요즘은 강남이고 홍대입구고 가면 사주카페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인터넷으로도 금방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못 보니까 보지 않고도 그 사람 사주를 맞춰주는 거, 그것이 우리 실력이고 자랑이죠. 사주보면 그 사람 성품, 직업 이런 거를 거의 파악을 하니까…… 그런 걸 자랑할 수가 있죠. 눈으로 못 보고도 알 수 있다는거. 눈뜬 사람은 눈으로 그 사람 차림새 같은 것을 보고 어느 정도 때리고 하잖아요. 우리는 못 보고도 맞추니까. 우리 미아리의 자랑은 그렇죠.

02 2장.indd 191 2015-05-08 오전 11:42:43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나요?

예. 일본인들이 가이드 데리고 많이 옵니다. 관광 왔다가 찾아와요. '미아리 가자' 이런데요. 가이드가 여기 데려다주고 자기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게 하는데, 주로 우리집은 일본 손님들이 와요. 많은 편이예요. 나는 뭐 어디 광고도 안했지만 여기가 길에서 잘 보이니까 일본인들이 간판을 보고 간판이 아주 맘에 든다고 들어가자고 한대요. 그렇게 와서 보고 또 아주 정말 흐뭇해해요.

일본인들도 물어보는 것은 우리랑 비슷한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더라구요. 자식 걱정 그런 게 많죠. 사업 관계, 연인 관계, 직업 이런 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이라는 건 시시때때로 달라져요. 오늘 와서 보면 그게 어떻게 되고, 내일 와서 보면 또 다르고. 그렇지만 사주는 안 바뀌죠, 일평생. 점이라는 건 일수 좋은 거, 한 달 좋은 거, 일 년 좋은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점이예요.

선생님만의 점 보시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그거예요. 이게 산통이라는 거예요. 이걸로는 산통점(육효점)을 봐요. 보시면 여기에 산가지가 8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에 한 금부터 여덟 금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와서 봐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산가지를 세 번을 빼내요. 그

02 2장.indd 192 2015-05-08 오전 11:42:43

리고 그 금을 세어 합계를 해요. 이걸 작괘한다고 해요. 작괘라는 건 괘를 만드는 거죠. 이런 산통점은 사주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밖에 모르니까 우리한테 가르쳐 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통이 꽤 깊겠네요?

아, 우린 깊죠. 중국의 주역에서 이게 나온 건데, 먼 옛날부터 이 산통으로 점을 쳤으니까 오래 됐죠. 우리 맹인들이 점을 친 건 아주 오래 되었어요. 역사가 깊어요.

선생님의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그 분도 못 보는 분이었는데 연세가 많아 돌아가셨어요. 그야말로 그 분은 시골서 산통점만 배워서 사주 같은 건 모르고 순전히 육효 이런 점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점이 맞아요. 아주 신기하게. 이거는 꼭 찝어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일수를 봐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하러 가겠다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일각에서는 점을 미신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 미신이 아니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도 아니고 순전히 주역에 기초한 학문을 우리가 배우고 연구를 해서 손님한테 괘를 내서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신이

02 2장.indd 193 2015-05-08 오전 11:42:43

아닙니다. 동쪽으로 가면 좋다, 서쪽으로 가면 좋다 이런 게 점괘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미신이 아니예요.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앞으로 점성촌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점은 미신이 아니고 철학이고, 이거는 심리학,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크게 해야 돼요. 역학은 정말 다른 학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학문이죠. 이런 사실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리: 차현주, 백외준)

02 2장.indd 194 2015-05-08 오전 11:42:43



이것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점복의 역사입니다

점집명 : 청산철학관

역학사 : 심남용(65)

인터뷰 : 2014. 6. 18

아까 선생님을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던데, 어떤 단체를 맡고 계시는지요?

제가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들은 직능별로는 세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안마사협회와, 대한맹인침술협회, 대한맹인역리학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맹인역리학회의 전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제가 영업하는 장소는 이 동네에 있고, 상호는 청산철학관입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서울 종로구 견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술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서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역술은 우리 나이로 서른 두 살 때 시작했습니다. 벌써 33년 되었네요.

처음 시작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상계동에서 시작해서 한 달 만에 이 동네에 왔으니까 여기서 시

02 2장.indd 195 2015-05-08 오전 11:42:43



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유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미아리고개 점성촌의 역사에 대해 알려면, 먼저 우리나라 맹인 역술업의 역사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비슷합니다만, 인류는 제정일치에서 제정분리의 과정을 거치고, 또 전제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제정일치라는 것은 제사와 정치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왕검도 제사장이자 통치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정 분리가 되죠. 그러면 제정분리가 되는 과정에

02 2장.indd 196 2015-05-08 오전 11:42:45

서 우리나라 경우로 말하자면 부족국가 시대에 제정이 분리되죠. 그런데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이 때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한 중에 마한에서 제를 담당했던 제정관祭政官이 시각장애인이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중국 고대사회에서도 제를 지내는 것은 맹인이 했다는 기록이 있구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나 예나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적인 장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한 쪽이 퇴화하면 한 쪽이 발달하는 것이 있겠죠. 다시 말해 시각이 퇴화되면 정신세계가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신세계가 깊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백선생도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을 만나보셨을텐데 시각장애인은 영적인 깊이가 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조에 들어와서 신라시대 첨성대와 마찬가지로 천지 우주의 이치를 관찰하는 기관인 태복감을 두었습니다. 이 태복감에 시각장애인이 벼슬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사》에 보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음양학陰陽學과 역학易學과 연결되어 국가의 녹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올해는 풍흉, 홍수, 온역은 돌지 않겠느냐, 외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국가의 중대사들을 다 음양학 역학으로 예상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관장하는 것이 태복감이고 시각장애인들이 여기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이조시대에 와서는 태복감이 관상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세계에 유래가 없는 특이한 제도가 생깁니다. 세계 최초의 장애인

02 2장.indd 197 2015-05-08 오전 11:42:45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명학明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제도가 고려 광종 때 중국으로부터 들어와서 과거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등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조시대에도 과거제도는 넘어오죠. 명학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과거시험입니다.

시각장애인은 그야말로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정신세계가 깊으니까 역학, 철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지요. 또 앞을 못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와서 사적인 비밀, 승진, 역적질 성공 여부 등을 물어봅니다. 영화《관상》에도 점쟁이 들어가죠? 만약 보는 사람을 점쟁이로 데려다 쓰면 발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 맹인들이 정치 이면에서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고려의 수도는 개성이었는데, 이조로 바뀌면서 서울로 수도가 바뀌잖아요. 수도가 바뀌니까 맹인들도 개성에서 서울로 넘어옵니다. 옛날 서울에는 명통방明通坊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의 서북쪽. 거기에 명통사明通寺라는 절이 있었어요. 목탁 두드리는 절이 아니라 도교 계통이예요. 그래서 우리 맹인들은 옛날에 머리를 깎았지만 내면으로는 도사야. 그래서 도승道僧이죠. 도사중이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명통사입니다. '절 사寺'자라 해서 부처님 모시는 절이 아닌 것이죠.

이 명통사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모아다가 가르쳤던 겁니다. 음양학, 천문학을 일단 가르쳐야 과거시험도 볼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명통사에 쌀도 주고 콩도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가 언젠가 시각장애인들만 과거를 보는 명학제도가 생겨서 고종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02 2장.indd 198 2015-05-08 오전 11:42:45

맹인들이 합격해서 벼슬하면 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벼슬 중에 봉사奉事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참봉 위에 봉사가 있었어요. 봉사는 눈 보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었어요. 이게 고유명사인데 점차 보통명사가 된 겁니다. 임금님이 신하를 시각장애인을 썼으니까는 어전회의에서 보통 신하를 '경卿'이라고 부르는데, 시각장애인 신하를 부를 적에 그냥 '경'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 신하는 눈을 못 보니까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대답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신하를 부를 때는 '소경'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소경도 시각장애인 신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인데 보통명사화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외국말로는 시각장애인 하면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무당이나 아는 척하는 중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대문 안에서는 맹인이 아니면 점을 못 치게 하는 제도도 있었어요. 다 장애인 복지정책이었죠. 몇 백 년 전에 이미 시행했었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거의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한국 문화고 역사입니다.

갑오경장 때 신물결이 들어오면서 명학제도도 없어지고 관상감도 폐지됩니다. 관상감 예하에 통명청通明廳이라는 맹인들의 조직 기관이 있었지요. 원래 통명청 자리는 지금 중부경찰서 자리예요. 김모 판서의 집이었는데 국가에서 몰수했다가 맹인들에게 넘겨주었지요. 지금 재동 중앙고등학교 자리는 17대 효종대왕의 아드님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분의 사저입니다. 맹인 왕자의 집인 거죠. 왕자라고 맹인 안 되라는 법 있겠어요?

02 2장.indd 199 2015-05-08 오전 11:42:45

통명청 최고 벼슬을 지중추知中樞라고 했어요. 지중추가 뭐냐? 옛날 명성황후 민씨가 점보는 것 좋아했던 것 알죠. 그거 다 맹인들이 한 거예요. 민씨가 지중추를 불러 천지신명께 기도하게 시키고는 했죠. 세종대왕도 당뇨가 심해서 장님이 된 사람인데, 그 현명하신 분이 당이 아주 심해서 안맹眼盲이 되었죠. 세종대왕 병 나으라고 맹인들이 와서 경을 읽게 했어요. 기우제도 통명청, 지중추가 했었고. 이렇게 맹인들의 조직이 있고 국가의 녹을 받고 살았지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오경장 때 날라가고 말았단 말았어요. 다 없어지고 한일합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들어와서 민족문화 말살정책을 폅니다. 대표적으로 충알 맞은 게 우리 장님들입니다. 대한민국 민족 문화는 으레 점치고,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안택경도 하고, 병이 나면 축사경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문화인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민족말살정책을 펴고 시작장애인 재산을 몰수했단 말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총알받이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제가 꿩 대신 닭이라고 총독부 산하에 제생원濟生院이라는 맹인자활기관을 세웁니다. 지금 종로구 신교동 국립맹학교 자리입니다. 만들어서 맹인들에게 침하고 안마를 가르쳤어요. 새로운 맹인들을 데려다가 안마 가르치고, 침 가르치고. 안마가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나니까 일제가 민족문화말살 정책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1925년에 조선역리맹인대성교가 생겼어요. 요것이 과거의 통명청이죠. 흩어졌던 맹인들을 다시 규합해서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조선이 대한으로 바뀌고 역리맹인대성교

02 2장.indd 200 2015-05-08 오전 11:42:45

가 역리협회로, 다시 학회로 바뀌면서 1971년에 사단법인 대한맹인역리학회라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육칠십 살이 넘은 맹인들은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도 다 점칠 줄 알아요. 옛날에는 어려서 장님이 되면 무조건 점부터 가르쳤으니까. 그게 한민족의 문화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우리 맹인들은 어디든지 뭉쳐 다닙니다. 뭉쳐 다니는데 6 · 25사변 나고는 부산 영도다리 밑에 뭉쳐 있다가, 서울 수복 이후에는 남산 도쿄호텔에서 야외음악당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양동, 도동이 있어요. 야한 말로 하면 똥치굴이야 창녀촌이란 말이지. 거기가 방값이 쌌어요. 그래서 거기가 쭉 점집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때 양동, 도동을 다 철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돈암동으로 오게 된 겁니다. 원래 이 미아리고개는 2차선 도로였어요. 원래 높이도 저 육교 높이까지 있었어요. 박정희 때 미아리고개를 깎아내린 거지요. 지금은 고개 오른쪽에 성신여대가 있는데 원래 거기도 다 닥다닥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그때만 해도 왼쪽 오른쪽 다 공동묘지였어요. 그래서 옛날 귀신 나오는 영화 보면 다 미아리고개예요. 그래서 여기가 집값이 싸고, 고갯마루 밑이고, 시내도 가까워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모이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습니다. 비용 저렴해, 귀신이 나오니까 점하고 약간 관련이 있어, 이런 환경이니까 점집들이 들어서기에 좋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마침 그 깃발을 들게 된 게……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여기 먼저 와서 영업을 했는데 잘 되는 겁니다. 한 회원이 들어와 영업이 잘 되니까 너도 나도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돼서 여기

02 2장.indd 201 2015-05-08 오전 11:42:45

가 집성촌이 된 겁니다. 6 · 25 또 이후의 개발, 4 · 19혁명 등 민족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서 남산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요. 많은 때는 200집까지 되었어요. 미아리고개 주변에 다닥다닥 모여 시각장애인들이 모여 점을 쳤는데. 1994년 도로확장 때 저쪽을 다 철거해 버린 거예요.

문화라는 건 각주구검 식으로 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바뀐단 말이지요. 옛날 제일 좋은 것은 벼슬이고 제일 낮은 것은 장사꾼, 공돌이, 상놈이었지. 쟁이 붙은 것은 다 천민들 아니우.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점을 안 쳤단 말이예요. 그러나 맹인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점을 쳤고 일부 무당이나 간섭했는데, 어느 날 IMF가 터진 겁니다. IMF가 터지니까 실업자가 대량 생산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돈 버는 게 귀천이 없어졌어요. 대학 교수, 회사 사장도 점쟁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점쟁이는 맹인들이나 정신적으로 특수한 만신 무당이나 하는 직업이었는데, 엘리트들이 점 세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다 1998년 IMF 때문입니다. 역학은 하이클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책 몇 번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역서가 어려운 학문이긴 하지만. 그래서 맹인들이 직업을 많이 빼앗기고 이렇다보니 영업이 잘 안될 거 아니우. 인터넷도 발달해서 컴퓨터만 다다닥 두드리면 가만히 앉아서 점 볼 수 있잖아요. 손님이 이래저래 계속 줄어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꾸 쪼그라들어 옛날 200집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40~50집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돈암동의 변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상대방 얼굴을 전혀 몰라요. 우리는 오로지 점을 봐서 점괘 나오는 대로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내가 눈을 본다고 하면 얼굴에 개기름이 끼고 옷을 보니까 명품만 입

02 2장.indd 202 2015-05-08 오전 11:42:45

었어. 그럼 부자예요? 아니예요? 그렇게 알고 점치는 사람과 모르고 점치는 사람 중에 누가 정확할까요? 이것을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앞 못 보는 사람한테 가면 점괘 나오는 대로만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눈치가 90%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지. 근데 앞 못 보니까 에이! 답답해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죠. 으레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할 정도로, 점치는 사람이 머리에 비듬이 버글버글하고 이가 기어다녀도 '아'하면 '아'인가 보다 '어'하면 '어'인가 보다 했었대요. 옛날에는 그랬었대요.

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명을 감정하는 법은 세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이치理致로서 접근하는 법, 수數로 접근하는 법, 상相으로 접근하는 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은 관상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수의 개념은 숫자. 그러니까 1, 2, 3, 4 같은 산수로 보면 안돼요. 1은 동그라미, 2는 세모, 3은 네모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원이 양이가 되고 양이가 사상이 되고 사상이 팔괘가 되고 팔괘가 64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다 수의 개념입니다. 산통에서 점괘를 뽑아서 보는 것도 다 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산통에서 점괘를 뽑아서 보는 것에 월등해요. 이 방면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지요.

(정리: 차현주, 백외준)

02 2장.indd 203 2015-05-08 오전 11:42:46

불행한 데서 행복의 길을 찾아주는 역할

점집명 : 홍수성작명소

역학사 : 홍수성(74)

인터뷰 : 2014. 8. 22

예전 미아리 점성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차만 한 대 지나가도 먼지가 확 일어나서 아주 살기가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그럭저럭 있고 여기 일대가 집값이 싸니까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엔 한 60여 가구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30여 집밖에 안 남았죠.

예전에 성북구에서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점성촌이라는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줬었고, 내가 회장으로 있었을 때에는 진영호 구청장과 간판사업을 진행했었죠. 철학관 간판들이 난잡하게 되어있어서 오방색으로 간판을 통일해서 바꿔 달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흐지부지 되어서 무질서하게 변했어요.

선생님 어릴 때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태어난 곳은 충북 제천이고, 시력은 다섯 살 때 잃었어요. 요즘에는 백내장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삼눈이라고 했었어요. 눈에 흰 것이 뒤덮여서 결국은 못 보게 됐죠. 아홉 살 때쯤 여주로 이사 와서 한 10년 정도 살았죠. 열아홉 살 때부터 서울에 많이 오가다가 스물두 살 때 서

02 2장.indd 204 2015-05-08 오전 11:42:46



울로 완전히 이사를 왔어요.

언제부터 점을 봐주기 시작했습니까?

열일곱 살 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와서 제대로 간판 달고 한 것은 스물두 살 때부터였어요. 서울에 처음 자리 잡은 곳은 청량리 미주아파트 건너편 쪽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사를 여러 번 다녔어요. 답십리 들어가는 입구, 청량리 경찰서 뒤편, 보문동하고 삼양동에서도 살았어요. 여기 점성촌에 들어온 것은 90년도예요.

02 2장.indd 205 2015-05-08 오전 11:42:47

혹시 6 · 25때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50년이면 내가 10살 때인가? 전쟁 한복판에 들어가서 아주 죽을 뻔 했어요. 총알이 비오는 듯하는데 한 8자 되는 한옥 방 하나에 20여 명이 들어가서 피신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 당시 여름에는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에 전쟁 난지 몰랐고 미군 비행기들이 와서 폭격하는 것만 알았어요. 겨울에 중공군들이 들어와서 차가 없으니까 낮이면 민가에 은신해서 있다가 밤이면 나무 썰매 같은 것을 만들어 끌고가 이포에 있는 창고에서 벼를 실어 근처 계림리에 쌓아 놨어요. 그걸 계속 끌고 갈 판이지. 근데 내일쯤 전쟁이 날 것 같으면 민간인 복장한 사람들이 와서 내일은 여기서 전쟁이 나니까 피신을 하라고 일러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새벽같이 피난 가는 도중에 큰 신작로를 보니 통신대가 전화줄을 늘리면서 들어오고 그 뒤에 미군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공군들이 산에 의지해 있다가 총을 쏘더라고. 미군들이 둑방에 엎드려서 그쪽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데, 중공군은 실제로 가깝게 있는데 미군들은 멀리 있는 칠읍산을 향해서 대포를 쏘더라고. 그러곤 미군들이 이제 됐겠지 하고는 곡수라는 곳을 밀고 들어갔어요. 근데 중공군들이 바로 앞에 있는 산에 진을 치고는 미군 부대를 공격해서 그 당시 미군 1개 사단이 망가지다시피 했지. 헬리콥터가 와서 식품 같은 거 보급도 해주고 사람을 구해내기도 하고. 미군들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하니까 중공군들이 용문 쪽으로 후퇴를 하는데 미군 비행기가 내려 와서 공격하는 바람에 중공군도 1개 사단 정도가 몰살당했지. 전쟁이 그렇게 무섭더라고.

02 2장.indd 206 2015-05-08 오전 11:42:47

서울에 오신 때가 1950년대 중반쯤인데 당시 서울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4.19 이후 이기붕이 죽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질서들이 잡히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계천변, 성북천변, 보문천변에 전부 하꼬방들이 들어섰었죠. 거의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어요. 청량리나 종로 3가, 남대문, 영등포쪽에는 창녀들이 많았어요.

역술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기억에 남는 것 많지요. 그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독경이지. 독경은 삼일경이 있고 일주일경이 있고 오래하는 건 백일 동안 경을 읽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대게 환자 때문에 하는 경이라, 삼일경이면 이틀 동안 경문을 읽고 사흘째 가서 그 귀신을 가둬요. 어떻게 하냐면 '대꾼', 대 내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신장대'고 한사람은 '사귀대'라고 그래요. 사귀대라고 하는 것은 짚으로 한 1미터 정도 가는 새끼를 꼬아서 만드는데 보통 그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쳐져있어요. 그것을 물푸레나무 같은데다가 매요. 그럼 경 읽는 사람이 '사귀야 귀신 잡아와라'하면 신장대가 귀신을 잡아서 사귀대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땅바닥에 쳐져 있던 것이 빳빳하게 일어나서 한들한들 흔들려요. 그럼 신장대가 빨간색 파란색 헝겊을 콩알만하게 만들어서 사귀를 그쪽으로 옮겨요. 그럼 그게 손바닥에서 팔팔 뛰어요. 그 다음에 소주병을 옆에 놔두고 경 읽는 사람이 무서운 경문을 읽으면 그것들이 소주병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병을 마개로 막고 땅에 묻어요. 그렇게 귀신을 가두면 환자가

02 2장.indd 207 2015-05-08 오전 11:42:47

나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골에 역학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독경들도 안 하니까 시골에 대 내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안택고사를 3년에 한 번 씩 하니까 성주대 내리는 사람도 있었고 대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고향에도 가보니 없더라고요.

따님이나 손주님들 이름도 직접 다 지어주셨나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름에는 무관심해가지고. 내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고. 우리 손자손녀애들은 내가 이름을 다 지어줬죠. 작명이라는 것이 또는 사주팔자라는 것이 옛날에는 보통 말하길 '사주팔자 속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주라는 것이 연월일시를 가지고 보는 것인데 화수목금토 오행으로 보는 것이거든.

예를 들자면 화일주火日柱에 태어난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화끈해요. 여자라면 아주 상냥하고 싹싹하고. 근데 화끈한 것 까지는 좋은데 성격이 급하니까 침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 두 번 생각해 보고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실천에 옮기려 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지.

또 금일주金日柱에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저 잘났다고 하는 게 있지. 똑똑해요. 쉽게 말하자면. 그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잘 존중해주려 하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성격이 있고.

토일주土日柱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 이유가…… 세상만물 모든 물건이 불에 타고 썩고 그러면 흙으로 다 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쉽게 말하자면 마음이 굉장히 너그럽단 말이지. 근데 꼬임에 잘 빠져. 남이 그러면 그

02 2장.indd 208 2015-05-08 오전 11:42:48

사람들 말을 들어서 꼬임에 잘 빠지는 거야.

그래서 사주팔자에 오행 중에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 보통 말하길 인간오복 그러지요. 오행을 다 갖췄으면 인간오복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고. 오행 중에 하나 없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 고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에 뭐가 없어서 그게 병이다 할 때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오행을 넣어 줘야 해. 예를 들자면 사주팔자에 수水가 없다 하면 물수부에 있는 삼수변 같은 것을 넣어 줘야하고 금金이 없다면 쇠금변 같은 것을 넣어 줘야하고. 그래서 사주팔자에 부족한 오행을 채워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만 채워줘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작명법 상의 획수를 맞춰가지고 어떠 어떠한 획수로 해야 좋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맞춰 줘야해. 그래서 작명이라는 것을 요새 젊은 사람들 학원 나와 가지고 그냥 수리, 오행만 맞춰가지고 그냥 이름을 짓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 사주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야 해.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에게 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주신다면?

인생상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역학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불행한 데서 행복의 길을 찾아주느냐가 중요한 역할이죠. 올바른 지도. 이것이 목적이예요.

(정리: 차현주, 백외준)

02 2장.indd 209 2015-05-08 오전 11:42:48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죠

점집명 : 은하수여성작명사주역술원

역학사 : 이미경(69)

인터뷰 : 2014. 8. 22.

선생님 성함과 연세를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은 이미경이고요. 나이는 46년생입니다.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경상북도 풍기고 여섯 살에 실명을 했어요. 실명원인은 백내장이예요. 옛날에는 삼이 젖는다고 했는데 하얀 좁쌀만한 점이 커져서 눈동자를 덮는 것이 백내장이예요. 전쟁 직후 시골이라 병원도 없었고 갈 마음도 못 먹었어요. 전쟁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어머님 그리고 저희 4남매가 같이 살았죠.

그러면 학교는 들어가셨나요?

시골에서 맹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라다가 열서너 살 때 역술공부를 했어요. 지금이야 시각장애인들도 고등학교까지 전문학교도 있고 하지만 예전에는 대학도 안 받아줘서 못갔어요.

02 2장.indd 210 2015-05-08 오전 11:42:48

시각장애인은 안 받아 줬나요?

네. 지금은 대학에 대학원도 많고 직업도 많죠. 지금은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옛날에는 오직 역술, 쉽게 말하면 점술하고 안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세 살 즈음 역술공부를 독선생님께 배우고 열일곱 살부터 독립해서 식구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로 올라 온 이유는……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남매 데리고 사시려니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외조부께 허락을 맡고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올라와 살다가 지금 여기 동선동에 살게 됐네요.

그럼 염리동에 오셔서 점집을 차리셨나요?

네. 62년도에 식구들과 같이 살면서 옆에다가 차렸지요. 염리동에서 한 1-2년 있다가 홍제동하고 남산에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이리로 왔어요. 종로3가 익선동에서도 한 2년 정도 살았고…… 이사를 몇 번 했죠.

여기로 오신 건 몇 년도 입니까?

여기에 온건 74년도였어요. 남산에 있다가 이리로 왔죠.

02 2장.indd 211 2015-05-08 오전 11:42:48



이리 오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서울에 중심지는 종로지만 그래도 남산만 해도 굉장히 공기도 탁하고 바로 앞 차도에 차가 많이 다녀서 애기들 키울 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오게 됐지요.

점집을 차리실 때는 어떻게 상호를 내시고 주위에 홍보를 하셨나요?

열일곱 살 무렵 제가 직접 은 은, 물 하, 물 수자를 써서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물 속이 깨끗하고 하얀 차돌이 물 깊은 곳에도 다 보였어요. 그래서 은처럼 물처럼 깨끗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

02 2장.indd 212 2015-05-08 오전 11:42:49



리라 생각에 지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알리는 것은 가까운 데에만 가족들이 전단지를 돌렸어요. 시골에서 와서 서울 지리는 동네 외에는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시작을 했죠.

역사가 오래된 이름이네요. 영업이 잘 됐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또 역술하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삼십 대 계속 잘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하고 철이 없어서 그런지 손님이 있으면 밥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누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더라구요. 당시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밤 12시가 되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 4시만 되면 문을 두들기니 지쳐서 아무 것도 못 먹었어요. 당시 제가 홍제동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올케가 저보고 누가 찾아왔으니 아가씨 나가보라 그래서 나가니 주인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 집 주인아주머니가 내가 너무 못 먹고 있어 안쓰럽다고 달걀 두 개를 깨서 참기름 한방울 떨어뜨리고 소금 살짝 뿌려서 저를 먹이셨어요. 전 주인 아주머니가 주시니 억지로 먹었죠. 그런데 그 집이 옛날 판자집이라 무허가였던가 봐요. 그게 철거가 되면서 그 분 사는 곳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 채로 헤어졌어요. 지금까지 은혜를 못 갚고 가장 감사했던 분이 그 분인데 연세가 있어서 돌아가셨을 테니 찾을 길이 없더라구요.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해서 친구들에게도 그 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혹시 여기 오신 손님 중에 기억에 남는 손님은?

각계각층에 많죠. 그 중에서도 제가 봐줄 때는 그냥 손님의 생년

02 2장.indd 213 2015-05-08 오전 11:42:49

월일시, 사주 넋사 기둥주 연월일시는 따라다니는 토이고. 토를 제외하고 팔자라 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봐주면 그걸로 끝이지 기억에 두거나 하는 건 없는데 나중에 손님이 와서 가끔 얘기해주는 분은 계셨어요. 한 번은 이제 손님이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다 실패하고 어디 오갈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에 저한테 들렸데요.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기억이 안나죠. 손님이 기억하고 얘기하니까 들었을 뿐이지. 이 시간에 남쪽으로 가면 반드시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남쪽으로 가라 자살할 생각 말고.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나중에 다시 말할 때가 있을 거다 그랬대요. 그래서 무조건 남쪽으로 가는데…… 다리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죽으려는 사람이 뭐 먹기나 했겠어요. 어느 공원이 하나 있어서 공원 벤치에 앉았데요.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말을 걸길래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마침 도움을 주어서 처음에 조그마한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잘돼서 지금은 대성공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선생님한테 안 들렀으면 그냥 내가 죽었을 텐데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들른 것이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하고 오는 이런 분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밖에도 요즘은 결혼했다가도 쉽게 헤어지는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지 쉽게 헤어지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리 살려고 해도 견디기 힘든 고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얼마만큼만 참고 견디면 잘산다. 좋은 일이 올 거다. 편안하게 부부 금실도 좋고 집안이 평화롭게 잘 산다 그래서 참았더니 지금은 그렇게 남편이 위해주고 그때 안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오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렇게 오면 뿌듯하고 그렇죠.

02 2장.indd 214 2015-05-08 오전 11:42:49

손님 중에 외국인들도 있나요?

외국인들이 온 적도 많죠. 일본인도 오고..중국인이나 미국인도 오고요. 그네들은 1:1로 대화가 안 되니까 통역사를 데리고 오죠. 우리 식구들이 옆에서 보면 통역사가 잘 맞는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죠. 그렇게 많이들 다녀가셨어요.

요즘은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요즘은 제가 직업에 여념을 한다거나 신경을 쓰는게 아니고 성북복지관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며 주 5일을 여가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나가는 손님은 거의 못 본다고 보고요. 아는 손님이 추천하는 손님과 예약하고 오시는 단골 손님 위주로 손님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전용도로로 다니라고 유도블럭이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유도블럭만은 남겨놓고 주차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배려심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리: 차현주, 백외준)

02 2장.indd 215 2015-05-08 오전 11:42:50



굴다리 노점에서 시작해 내 집을 얻기까지

점집명 : 철원철학관

역학사 : 이도병(74)

인터뷰 : 2014. 8. 14.

선생님께서 여기 처음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 고향은 어디인가요?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예요. 고석정이 있는 강원도 철원 동송읍. 고향에서 십리 떨어진 곳에 노동당사, 백마고지가 있어요. 옛날 53년도에 밤에는 중공군이 차지하고 낮에는 미군이 차지하고 그랬죠. 백마고지에서 전쟁해서 거기서 많이 돌아가셨죠. 우리가 그 철원 동성읍에 오덕 1리에서 살았거든요. 옛날 할아버지 적에 사방 10리를 남에 땅 안 딛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땅이 많았죠. 그러다가 46년도, 내가 6살 때 공산당에 몰수당했어요. 할아버지는 연천까지 쫓겨났었지. 다 몰아내고 토지개혁해서 한 집에 열두 마지기 2400평씩 배당을 했어. 배당을 하고는 저희가 소작료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 전쟁을 해야 하니 세금을 만들어서 현물세를 물렸죠. 그래서 소작료에 반을 더 뺏어갔지.

나는 2살때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었어요. 이북에서 수정체가 터져나와가지고 한 눈이 그러더니 양쪽이 다 그렇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수술을 못한다고해서 11살에 피난 나와서 신갈 피난민수용소에 있었어요. 휴전되고 53년도 11월, 열세 살 때 영등포 신길동에 있

02 2장.indd 216 2015-05-08 오전 11:42:50



02 2장.indd 217 2015-05-08 오전 11:42:51

는 안과를 찾아갔더니 미군이 와서 보고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방동에 있는 미군병원에서 수술했어요. 수술해서 지금 빛은 보여요. 그러니까 일찍만 수술했으면 볼 수 있었지. 이후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를 안다니고 독학으로 독선생 밑에 들어가서 역술을 배웠죠. 점자도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죠.

선생님 6 · 25때 이야기가 듣고 싶은데요.

열 살에 6 · 25가 났는데. 그 전에 탱크가 철원에 많이 집결해 있었어요. 그때는 북한 땅이었으니까. 집결해 있다가 한 달 전에 포천 쪽으로 내려갔어. 거기 집결했다가 포천에서 내려 밀은 거지. 그때는 이북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의정부를 쳐들어갔다.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했다. 7월 5일 평택, 대전에 내려갔다'고 소식을 들었지.

1 · 4후퇴 때는 미군비행기가 와서 폭격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인민군이 물러가고 중공군이 나왔지. 중공군이 민간 집에 들어와서 방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말도 마굿간에다가 마음대로 매어놓고 마차도 마당에 세워놓고. 한 사흘 있으면 또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싸우다 나중에 철원 수복하고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이 우리를 신갈리 쪽으로 실어냈죠.

그때 열한 살 때 나와서 휴전 되고 54년도 봄에 철원으로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서 몰수당한 땅들 찾아서 싸게 팔았죠. 팔고 부모님이 역학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열다섯 살때부터 배웠죠. 아버님은 시골에 계시고 나만 서울에 와서 배웠어요.

02 2장.indd 218 2015-05-08 오전 11:42:51

당시 서울에 오셔서 처음에 점집을 차린 곳이 어디신가요?

60년대에 처음 차렸는데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남산에도 조금 있었고 굴다리 밑에서도 66년 4월부터 9월까지 있다가 68년도에 이쪽에 조그마한 집을 얻어서 손님을 봤죠. 처음에 한 5년간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산이 개발되면서 헐리니까 집값이 싼 이곳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죠. 이 동네에서 사글세로 살다가 그 다음엔 전세, 그 다음엔 헌 집을 사서 내가 다 고쳤죠. 손님들이 하나둘씩 오니까 이사를 못가고 여기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 자리 잡으셨으면 지금까지 오시면서 가장 손님이 많았을 때는 언제였나요?

손님 많을 때 70년도 쯤에 70~80년도 사이에 좀 괜찮았고, 80~90년도 사이가 제일 좋았죠.

60년대 도심이 개발돼서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나요?

다른 쪽으로 간 사람도 있죠. 영등포, 보문동, 용두동, 서대문 등등.

그러면 여기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유명해졌다기보다도 여기가 전차종점이었거든. 전차가 을지로부터 여기까지 오니까 정릉, 삼양동, 우이동 이런 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버스타고 와서 전차로 갈아타고 을지로로 나갔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간판을 보고 한 두 사람씩 오는 거죠.

02 2장.indd 219 2015-05-08 오전 11:42:51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셨나요?

대중없죠. 예를 들어 내가 송사를 하는데 이길까 질까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가서 변호사를 사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해라 그랬더니 송사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또 보고. 또 이사 갈 때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런 것도 다 보고. 결혼을 하는데 남녀가 둘이 와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가씨 혼자 와서 볼 수도 있고. 남자도 와서 결혼하는데 이 아가씨랑 살아도 되겠어요? 서너 아가씨 연월일시 알아가지고 와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웃음) 여러 가지가 많죠. 그리고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무슨 병이겠냐 이런 것도 물어볼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취직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취직 같은 거 보러 오는 사람들 있죠. 취직 보러 오는 거, 또 부모님이 애 데리고 오면 어느 대학 가면 좋겠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혹시 실업을 해서 오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너무 한숨 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더 배워서 시험을 봐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죠. 또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싶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 젊은 생명이 다 살아야지 왜 생명을 끊느냐 그랬어요. 올바로 가르쳐 줘야지 자살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대개 손님들이 그런 고민들은 절박하잖아요. 절박한 고민에 답을 주

02 2장.indd 220 2015-05-08 오전 11:42:51

시기가 떨리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떨리는 건 없죠. 나오는 대로 말해줘요. 사주, 오행을 듣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이건 신이 아니고 철학이죠.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예전 미아리고개 풍경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미아리고개는 옛날에는 되너미고개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 그 전에 서낭당이 있었어요. 한 5년 전쯤인가 성북구에서 서낭당 없애고 아파트를 지었죠. 되놈들이 여기 넘어올 때 서낭당에서 말발굽이 붙어서 못 넘어오고 저 종암동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너미고개라고 해요.

여기가 최대 많았을 때는 60~100가구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100가구 못됐고 한 80세대 됐어요. 지금은 서서히 없어지고 한 50세대 될 거예요.

입주를 새로 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사람도 많이 입주를 많이 하나요?

입주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것보다 안마를 먼저 배우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난 후에 이걸 배워서 하니까 좀 적죠.

(정리: 차현주, 백외준)

02 2장.indd 221 2015-05-08 오전 11:42:51



좌절하는 손님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하는 손님에게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점집명 : 늘푸른철학원

역학사 : 윤병관(59)

인터뷰 : 2014. 8. 5.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열여섯 살 때부터 한 1년 배운 뒤에 열아홉 살 때에 개업했어요. 햇수로는 40년, 만으로는 39년 되었네요. 배워가면서 독학을 했어요. 남의 인생을 논하려면 무한정 공부해야죠. 처음 시작한 것은 미아리고개 밑에서 했고 여러 번 옮겨다녔어요. 미아리 · 면목동 · 무악동 · 청량리 · 종암동 등지에서 했어요. 종암동에서는 옛날 우신약국 뒷편에서 했지요. 여기에 개업한 것은 2002년 6월 9일입니다. 한창 월드컵할 때였죠.

상호명은 무슨 뜻으로 지으셨어요?

'늘푸른'이라는 게 의미가 좋잖아요. 사람이 푸르게 산다…… 좋잖아요. 요새는 옛날보다 경기가 못해요. 서민경기가 좋아야 영업이 잘되거든요. 손님은 다양해요. 단골로 오는 사람도 있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면요?

02 2장.indd 222 2015-05-08 오전 11:42:51

하루는 애를 잃어버려서 애를 언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의가 들어 왔어요. 그 말 듣고 제가 "미아보호소에는 안 가보셨어요?"하니까 바로 그날 미아보호소에서 연락이 왔대요.

또 한 번은 어떤 어머니께서 딸 혼인 때문에 찾아 왔어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딸이 있는데 혼인을 못 하고 있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사주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살이 있어서 혼인이 안 되는 거다 말해주니까 그 어머니가 반신반의로 듣고 갔지. 그런데 다음 날 또 찾아왔더라고. 자기 딸한테 점 보러 갔다는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날 딸이 꿈을 꾸었대요. "엄마, 이상한 꿈을 꾸었어. 내가 목욕하는 데 땟국물이 나오는데 어떤 맹인이 저 앞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땟국물이 맑은 물이 변해서 나왔어"라고 했다는 거야.

또 어떤 손님은 여동생이 여동생이 누구한테 살해당했대요. 그래서 범인이 언제 잡힐 거냐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곧 잡힐 거니까 동생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예방이나 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 그리고 며칠 있다 범인이 잡혔다면서 찾아왔더라고. 그런 건 신기하지. 많이 있는데 다 기억은 안나요.

어떤 공부를 하십니까?

저는 점 공부를 개인지도로 1년 받았어요. 점 공부하는 길은 두 가지인데 개인지도, 복지관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부는 역학만 해서는 안돼요. 어떤 손님이 올지 모르니까 시사문제라든지 다 알아야 해요. 손님하고 점 봐주는 사람이랑 대화가 잘 되어야죠. 아무리 사주를 잘 봐도 그 사람이 이

02 2장.indd 223 2015-05-08 오전 11:42:51



해가 안 되게끔 이야기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가야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경찰 승진 시험보려는 사람이 와요. 그런데 경찰 계급을 알아야 대화가 되잖아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그래야 대화가 원만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아야 하지요. 주로 TV, 라디오, 시각장애인용 점자 잡지 등을 봐요.

외국인 손님도 오나요?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고 미국, 캐나다 사람들도 와요. 미국 사람

02 2장.indd 224 2015-05-08 오전 11:42:53



들은 양력을 대면 음력으로 바꾸어서 점을 보지요. 외국인들이 소문 듣고 가보겠다 하면 여행사에서 통역, 가이드 붙여서 데려다주죠. 똑같이 사주 봐요. 맞든 안 맞든 그대로 이야기해주죠. 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인생 살아가는데 참고해라, 보탬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해주죠.

미아리점성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같은 역리학회 회원들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죠. 토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손님들이 왔는데 이렇더라, 아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하죠.

역리학회의 규약 같은 게 있습니까?

있죠.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과장되게 말하면 안 된다 등등 고객을 상대 할 때 건전하게 해라는 내용이 주예요. 역학인으로서 비행을 할 때에는 징계를 내릴 수도 있구요.

점 보러 오는 손님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맞아도 맞는다는 이야기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신상 털어놓기 싫어서. 그러면 못하죠. 그럼 서로 간의 대화가 원만해지지 못하죠. 또 누구랑 대화할 사람도 없고 심심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고민 털어놓기 위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재미로 오는 사람 등 종류가 많아요.

02 2장.indd 225 2015-05-08 오전 11:42:53

노하우가 있습니까?

점보는 방법은 부지기수예요. 각자 노하우, 스타일이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학 중심으로 보더라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게 중요해요. 좌절하는 손님에게 용기를 주고, 절망하는 손님에게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극복해 나가라고 이야기해줘요.

가만 보면 요즘 잘나가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자기 잣대로만 생각하거든.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 잣대로만 평가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당신이 총명하고 하는 말도 다 옳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자신의 잣대로만 남을 대하면 남들이 당신을 멀리할 것이다. 나와 다르고 못한 사람도 있다 생각하고 대인관계를 해야 원만하게 잘 살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죠.

미아리 점성촌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두 가지로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첫째는 서민경제가 좋아져야죠. 둘째는 우리 스스로도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야 하겠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죠. 공동 토론도 많이 하고 좋은 책이 새로 나오면 같이 보기도 하면서.

(정리: 차현주, 백외준)

02 2장.indd 226 2015-05-08 오전 11:42:54

아내가 올해 예순 여덟인데 두 내외가 다 점을 봅니다

점집명 : 개나리역학사

역학사 : 이수남(71)

인터뷰 : 2014. 8. 11.

역술업에 종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세 살인가 네 살에 맹인이 되었어요. 맹인이 어떻게 되었냐하면 마마(천연두)때문이예요. 당시에는 그 병이 많이 유행했거든요. 눈이 머니까 배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맹학교를 보내자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맹학교에 가면 나중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점 공부를 시키자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기셔서 제가 점 공부를 하게 되었지요. 학교는 못 가봤어요. 아홉 살 때부터 점공부를 했는데 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용하다는 선생님 있어서 그 양반을 찾아가서 공부를 배우게 된 거죠. 그렇게 5~6년 동안 점 공부를 했어요. 손님을 보고 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열네 살부터죠. 지금 제가 일흔한 살이니까 60년 조금 못 되었네요.

공부하실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점 공부는 정신력으로 해야 돼요. 저희는 그때 점자를 안 배우고 무조건 외워야 했어요. 점자로 배우면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외운 것을 잊어버리면 선생님한테 맞어. 종아리도 맞고. 점자는 나중에

02 2장.indd 227 2015-05-08 오전 11:42:54

공부 끝마치고 배웠지요.

공부에 썼던 교재가 있습니까?

요집서要集書라는 게 있어요. 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백 가지 이백 가지나 되요. 택일하는 법도 있고…… 택일하는 경우가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고사 지내는 택일, 혼인하는 택일, 출행하는 택일, 이사 택일…… 수십 가지인데. 그걸 배워서 다 외워야 하죠. 또 사주보는 법도 있고, 산통을 흔들어서 산가지를 뽑아 64괘로 보는 점도 있죠.

어디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요즘도 길에 책 펴고 점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요. 큰 종이에다가 신수 · 재수 · 사주 · 궁합 쭉 써놓고 돌멩이로 눌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점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점을 보러 왔죠. 저는 마포 아현동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에도 점보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마포에 있다가 사방으로 다녔어요. 봉천동으로 뭐 여러 군데 많죠.

미아리고개에 들어오신 것은 언제입니까?

여기는 76년에 들어왔어요. 지금 한 30년이 넘었죠. 처음부터 집 상호가 개나리였어요. 우리는 두 내외가 다 눈을 못 봐요. 우리 마누라가 올해 예순 여덟인데 두 내외가 다 점을 보죠. 우리 마누라는 주로 집에 점을 많이 보고. 제가 없으면 마누라가 보고. 저는 일을 많이 하러

02 2장.indd 228 2015-05-08 오전 11:42:54



다니죠. 점하는 사람은 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병 낳게 해주는 점도 있고,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좋게 해주는 점도 있고, 횡액이라고 맞은 사람 액을 막아주는 보액補厄을 위한 예방도 있고, 살이 많은 사람 살풀이해 주는 예방도 있고, 명이 짧은 사람 무병장수하라는 예방도 있고. 그런 거 하러 많이 다니죠.

독경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나가서는 주로 독경을 하죠. 아픈 사람 낳게 해주는 경도

02 2장.indd 229 2015-05-08 오전 11:42:56

있고, 액을 막아주는 경도 있고, 상황에 따라 경이 많죠. 혼자 하는 것도 있고 셋이 다섯이 하는 것도 있고 108명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은 때마다 다른데 두세 시간 걸리는 것도 너덧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옥추경玉樞經이라는 것이 있어서 귀신을 잡아 가두거나 쫓을 때 하는데 이런 건 왼종일 하기도 해요. 일에 따라 다르죠. 집안에서도 하지만 많을 때는 일하는 당에 가서 하죠. 정릉 북악당에서 많이 하죠. 거기는 우리 역리학회의 공영당이죠. 무당들이 쓰는 당은 따로 있지. 우리 역리학회 모임을 두 번 북악당에서 가져요. 10월 1일에는 서울지회 총회가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스무 살에 했어요. 일찍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가는 게 좋다고 해서 빨리 결혼 했어요.

언제 많이 어려우셨습니까?

어려운 일 많았죠. 둘 중에 누가 하나라도 보면 어려움이 적을 텐데 우리는 못 보니까 어렵죠. 애 낳아서 키우는 일도 어렵고. 먹고 살 만큼만 벌었어요.

잘되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처음 노점할 때에는 하루에 4~50명씩 봤어요. 그때 복채는 쌌었지. 100환에서 200환은 했으니까 하루에 4~5천환은 벌었지. 그게 큰

02 2장.indd 230 2015-05-08 오전 11:42:56

돈이야. 쌀 한 가마에 3천환, 짜장면 한 그릇에 몇십 환 했을 때니까. 70~80년대에도 손님이 많았죠. 그때에는 여기에 70~80집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하신 분,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그 때보다 어렵죠. 경제가 좋아야 점집도 잘 되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이 잘 돌아가야 우리 영업도 잘 돼요.

어떤 손님들이 많나요?

별별 손님 다 있었어요. 사주보러 오는 손님, 1년 신수 보러 오는 손님, 아파서 오는 손님, 이사를 어디로 가야 좋겠나 물어보는 손님, 궁합보러 오는 손님, 이름 지으러 오는 손님도 있고 많지요. 일본서도 많이 왔다 가요. 여행사에서도 많이 소개시켜줘서 왔다 가요.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비밀이 없어요. 점치는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해요. 손님에게 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지키고 있어야 해요.

간판에 영점이나 신점이라 쓴 점집들은 여기랑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맹인들은 영점, 신점은 보지 않지. 우리는 역학을 배워서 하는 거니까 무당이나 만신들이 보는 점과는 질이 달라요. 영점, 신점도 있지만 우리한테 많이 와요. 우리는 눈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봐. 옷을 잘 입으면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입으면 못 사는 사람이니까 얼굴 상태라든지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강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니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많이 오죠.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모르잖아.

02 2장.indd 231 2015-05-08 오전 11:42:56

우리는 사주에 나온 대로 봐주니까 정확하잖아요.

주역점과 사주점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역점, 사주점은 다 뿌리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역에서 나왔어요. 사주라는 것은 평생을 보는 거고. 신수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운수지. 그게 달라요. 일수도 보죠, 매일 매일. 일수도 보고 월수도 보고. 뭐 큰 사업하는 분들은 다달이 와서 보는 사람도 있어. 그 달 초사흘을 넘지 않게 와서 이달의 운수는 어떤지 본다고.

점은 믿음, 정성이 중요합니다. 장난삼아 보면 잘 안 맞아요. 술 한 잔 먹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건 잘 안 맞죠. 점괘는 어떻게든 나오게 돼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야만 잘 맞게 나오죠.

미아리 점성촌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점성촌이 잘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아직도 미아리 점성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가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홍보가 잘 되어야 되요. 많이 협조해 주세요. 저희도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정리: 차현주, 백외준)

02 2장.indd 232 2015-05-08 오전 11:42:56



점 복, 비녀 채. 그래서 복채라고 합니다

점집명 : 동양철학관

역학사 : 이회택(70)

인터뷰 : 2014. 8. 12.

선생님이 살아오신 역사라든지 이곳 점성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맹인 역학업자의 역사라 한다면 수 천 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옛날에 실명을 하게 되면 이거 말고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았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안마업도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사람들로 인해 시작이 됐으니 안마업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요. 그 후에 맹인들도 학교를 나오고 시각장애인 전문학교를 통해서 안마나 다른 일을 가르치고 하니까 맹인들 업이 다양해졌지요.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형편상 가지도 못해서 이 복술공부를 하게 하게 됐죠. 복술공부라 하면 옛날부터 경문공부와 육효를 공부했는데 나는 육효 공부만 했죠. 나중에는 점점 육효를 아는 사람이 적어지고 명리(사주)를 공부하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졌지요.

처음 시작한 곳은 어디십니까?

고향인 수원에서 시작해서 아들 일곱 살 되는 해에 아이 공부시

02 2장.indd 233 2015-05-08 오전 11:42:56



02 2장.indd 234 2015-05-08 오전 11:42:57

킨다고 올라왔지요. 수원에서 처음 시작할 당시엔 방도 얻지 못해서 길에서 점을 쳤어요. 노점 생활 2년 동안 큰돈은 못 벌었는데 돈을 조금 만들어서 하꼬방을 얻어 시작하고 그때부턴 잘 벌었어요. 일이년 벌어서 부모님들 논도 한 섬 씩 이상 사드렸더니 잘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칠남매 집안에서 돈으로는 제일 성공한 셈이었죠. 맹인들이 점치는 역사는 오래됐는데 심봉사는 점을 안 배웠나봐.

심청전에 점치는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오셔서 자리 잡은 곳은 어디십니까?

비원 정문 바로 맞은편이었죠. 돈화문 주유소. 예전에는 예식장도 있었고 처음 올라와 거기서 살다가 헐리게 되었죠.

그 쪽에 역학하시는 분이 많았습니까?

비원 정문 앞에 단성사가 있는데 단성사에서 올라오면 종묘로 가고 낙원동으로 가는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 위에서부터 비원 건너쪽까지 맹인들이 많았지요. 맹인이 많기로 소문이 난 곳은 탑골공원을 비롯해서 종로3가. 그 곳은 노점 보는 맹인이 열 명 정도 상주했지요.

지금 탑골공원에는 보는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맹인은 없을 겁니다. 그때 종로3가에 거주하던 맹인들은 다 돌아가셨죠. 그때는 소문도 많이 나서 종로3가에서 하던 분들 중에 성공한 분들은 종로에 집을 사서 살았죠. 그때도 종로는 세를 얻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자리였으니까. 그 다음으로 출발하는 초보자들은 남산에 많았고요.

02 2장.indd 235 2015-05-08 오전 11:42:57

서울역 쪽에서 올라가는 그쪽 말씀이신가요?

육교 있고 쭉 올라가는데요. 초보자들은 조그맣게 세를 얻어서 남산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적십자회담하러 온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오게 되면 초라한 것 보이지 않겠다고 철거시켰지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 대부분 여기 돈암동으로 넘어왔죠. 그니까 남산 사람들이 72년도에 거기가 철거되는 바람에 이리로 와서 형성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이유는 집값이 다른 데보다 싸서였고 80년대에는 한 60여 호 됐었어요. 지금은 세어보진 않았지만 반 숫자밖에 안 될 거예요.

선생님은 왜 돈암동으로 오셨나요?

나는 수원 살다가 66년도에 서울에 더 잘 벌려고 왔는데 잘 안돼서 도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71년도에 이쪽으로 올라왔지요.

이름은 원래부터 동양철학관으로 하셨나요?

처음에 하꼬방 얻어서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데 손위 매형이 "대한문복가大韓問卜家"로 하라고 해서 붙였었지요. 그때는 철학이란 말이 없었고 다 문복가였으니까. 그리고 대나무에다 흰 깃발을 달아 꽂았어요. 뒷골목에다가 간판 붙여봐야 보이지도 않고 앞에 와서나 보이니까 그렇게 깃발을 해놓으면 이층집도 별로 없던 시절이라 큰길 가에서 깃대를 보고 와요. 지금은 다 고층건물이라 깃대가 소용없지만요. 그러다가 그 간판 가지고 서울을 왔는데 우리집 근처 비원 앞 유명하다는 분이 손님이 많으니까 서기를 두고 점을 치셨거든요. 그 서기로 계신 분

02 2장.indd 236 2015-05-08 오전 11:42:57

이 '대한'이라고 하지 말고 '동양'으로 하라 그러셔서 그 때부터 동양으로 바꿨지요.

철학관이란 이름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나요?

역리업자들이 철학관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말부터 아닐까 해요. 우리 선생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점술가라고 하셨지 철학관 소리는 없었어요. 문복가에서 철학관이라고 변한 건 80년대 와서죠. 80년대에 젊은 사람들이 사주 공부를 시작해서 간판을 붙이게 되니까 철학이란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육효는 철학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를 하는 사람들은 80년대 이후 사람이고 그 전에는 전부 육효뿐이었어요. 육효는 점이고 그래서 문복이라 하고 점술가라 그랬지요. 사주랑 육효는 전혀 달라요. 사주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육효는 당장 현실적인 것을 보는 거죠.

선생님은 독경도 하십니까?

그렇죠. 역리업자로 할 것은 다했어요. 어려서는 독경도 많이 했어요. 그땐 아프지 않으면 미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독경을 하면 잘 낫습니까?

안 낫는 건 못 봤어요. 그때는 아파도 우선 경부터 하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이 먼저가 아니고 경을 먼저 해보고 병원을 가요. 그래야 치료발을 잘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귀신 때문에 치료 받아도 소용이 없으니 그 귀신 젖힌 뒤에 치료 받는 것이 순서였지. 그렇게 되니까 독경

02 2장.indd 237 2015-05-08 오전 11:42:57

이 지금보단 더 많이 하고 그랬지요.

차차 독경이 많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것은 아닌데 이제 손님 집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북 두들기고 그럼 이웃에 신고도 들어오고…… 그때는 본토박이들이 많으니까 누구네 아무개가 많이 아프다고 동정들을 하죠. 시끄럽다고는 안 하지. 그리고 여러 날 할수록 좋아해요. 왜냐면 시골에서는 먹는 게 귀할 때니까 집에서 먹고 잠자느니 거기 구경하러 가면 술을 공짜로 얻어먹거든.

정릉 북악당에서도 독경을 하나요?

지금은 당이 줄었지만 그때는 당이 여러 군데 많았어요. 미아리에도 고개 올라가면 왼쪽으로 당이 있었어요. 미아리당인데 옛날 노인네들은 되너미당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넘어왔었다고. 그래서 청나라 때 넘어온 고개라고 해서 되넘이당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가 미아리고개에 있으니까 미아리당이라고 불렀어요. 없어진 지 한 20년밖에 안돼요.

당이 역사가 오래 됐어요. 몇 백 년 되었어요. 민씨네(명성황후 민비)가 자꾸 아이만 나면 죽고 손이 끊기게 되고 그래서 정성을 드리고 그랬더니 꿈에 미아리고개를 가면 어디어디를 땅을 파봐라. 그럼 거기서 미륵이 나올 테니 그것을 대대로 잘 위해라. 그래서 민씨네가 그렇게 손이 안 끊기고 내려왔다고. 미알이, 미륵이 알려줬다고 미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지명이 미륵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02 2장.indd 238 2015-05-08 오전 11:42:57

우리 어려서 다닐 땐 미아리고개가 지금보다 엄청 높았지요. 66년도에 깎았어요. 전차가 그때 없어졌으니까. 깎고 고가를 놨지. 미아리 막바지 올라가면 미아리당하고 고개하고 똑같았었는데 그걸 깎고 보니까 우리 길로 두 길이 되도록 깎았더라고.

당 안에는 미륵불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지금은 옮겨가서 정릉 북악당에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는 미아리당이 제일 유명했습니까?

제일 오래 되고, 자손 못 보는 사람들이 가서 많이 효과들을 보고 그랬어요. 동대문 창신동 올라가는 데 가면 자주당이라고 있었고. 자주당은 왜 자주당이냐면 단종이 그 쪽으로 끌려 넘어 가는 장면을 부인 송씨가 언덕에 올라가서 봤는데 송씨가 단종이 보고 싶으면 자주색 치마를 입고 거기 올라가서 보라고 했대. 옛날에는 시골 웬만한 마을에는 당이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선생님을 위해 스스로 점을 보신 적은 있나요?

내 점은 내가 안 치고 서로 친구 간에 점괘를 내달라고 하지요. 가까운 사이, 가족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치고 쳐달라고 하고 그랬지. 옛날에 딸이 자꾸 점을 쳐달라고 해서…… 친정아버지한테 와서 점을 쳐달라고 하니까 농담 삼아서 그러면 돈 내라고 했지. 그러니까 딸이 돈 대신 비녀를 빼 놓고 이걸 낼 테니 아버지 보고 쳐주라는 거야. 점복卜, 비녀 채釵. 그래서 복채라고 합니다. (정리: 차현주, 백외준)

02 2장.indd 239 2015-05-08 오전 11:42:58

주석

1. 시라카와 시즈카 저, 심경호 역,『한자 백 가지 이야기』, 황소자리, 2005, 56~57쪽.
2. 司馬遷,『史記』,「龜策列傳」
3. 노태준,『新譯 周易』, 홍신문화사, 1988, 9~12쪽.
4. 앞의 책, 14쪽.
5. 주강현,「점복의 역사」,『한국의 점복』, 민속원, 1995, 21쪽.
6.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
7. 이형구,「풍납토성 미래마을과 백제왕궁 유적 출토 갑골(甲骨)」,『월간 문화재사랑』, 문화재청, 2009.1.
8. 주강현, 앞의 글, 14쪽.
9. 『고려사』권92 열전,「최지몽」.
10. 『고려사』권11 세가, 숙종 임오 7년(1102) 3월.
11. 『고려사』권29 세가, 충렬왕 6년(1280) 5월.
12. 5훈 : 애인단체(愛仁團體), 지선위사(至善爲事), 입도명덕(入道明德), 필수윤강(必須倫綱), 사유종시(事有終始). 5계 : 물위패악(勿爲悖惡), 물위음행(勿爲淫行), 물위탐욕(勿爲貪慾), 물위사기(勿爲詐欺), 물위범죄(勿爲犯罪).
13. 『경향신문』1975. 10. 20.

02 2장.indd 240 2015-05-08 오전 11:42:58

사진으로 본 미아리점성촌



개성작명소



천도화 여성예언가.
여성 역학사들의
점집명은 대부분
꽃이름을 따와서
지었다.

02 2장.indd 241 2015-05-08 오전 11:42:59



해당화 여성점성가



백일홍 여성점성가

02 2장.indd 242 2015-05-08 오전 11:43:01



송암 김익중 철학원.
90년대 말 성북구는 미아리 점성촌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의 반대로 사업이 흐지부지되었다.
가장자리를 오방색으로 꾸민 비슷한 간판들에서는
당시 중도 하차한 정비사업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

02 2장.indd 243 2015-05-08 오전 11:43:02



동소문로 북쪽으로 보이는 점성촌 간판들.
점성촌에서 가장 많은 점집이 몰려있는 곳이다.
앞으로 고가도로의 옹벽을 마주하고 있다.



02 2장.indd 244 2015-05-08 오전 11:43:03



동소문로 남쪽으로 보이는 점성촌 간판들.
'영으로 점봅니다'라는 간판이 있는 점집은 시각장애인 역학사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다.

02 2장.indd 245 2015-05-08 오전 11:43:05





동소문로 북편 옹벽의 벽꾸밈.
2010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주관한 예술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
미아리고개 양옆의 길이 곧 고개의 역사를 담은 책이라는 콘셉트 아래
미아리고개가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담은 여러 글들을 나뭇잎처럼 붙였다.
걸으면서 꼼꼼히 읽어보면 미아리고개와 점성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02 2장.indd 246 2015-05-08 오전 11:43:07

찾아 보기

4.19 98, 100
5.16 83, 100, 103
6.25(한국전쟁) 13, 54, 64, 78, 79, 85, 88, 91, 98, 103, 105, 174
8.15해방 48, 77, 138
IMF 외환위기 120, 133, 180, 181, 182, 202
『주역』 134, 135, 142
갑오개혁 159
개운산 93, 126
거북점 140, 142
계용묵 95
관상감 155, 197
구체의 과학 137
굴다리 131, 132, 178, 216
궁합 140, 146, 168, 228
기우제 154, 157, 200
길음뉴타운 92, 116
길음동 27, 29, 79, 81, 84, 94, 102, 106, 122, 125
길음시장 97
김구용 94
김동리 94, 100
김성칠 60, 62, 63
김소진 13, 105
김수영 99, 100
남산 86, 88, 131, 176, 201, 211, 219, 235
단장의 미아리고개 10, 63, 180
도시미화사업 80
도시빈민 76, 83, 86
도시새마을운동 88
독경 140, 161, 170, 184, 207, 229, 237
돈암동 58, 61, 68, 79, 85, 91, 94, 125, 236
돈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70
동선동 84, 91, 125, 130, 132, 178, 180, 211
되너미고개(적유현) 10, 12, 16
레비스트로스 137
맹승 138, 151
맹청 138, 156, 172
명통사 138, 156, 172, 198
몽점 148, 152
묘지규칙 23, 52
무허가건물 83, 86, 176, 177, 213
문생청 158, 159
미래유산 141
미아로 확장공사 82, 181
미아리 공동묘지 10, 12, 22, 30, 44, 201
미아리 집창촌 10, 13
박목월 94
반야월 64, 65, 66
버스 25, 73, 96, 131, 178, 219
병자호란 16, 19, 20
봉사 155, 156, 199, 235
북악당 173, 185, 230, 238, 239
북정마을 91
북한 218, 236
북한군 10, 13, 54, 60, 67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121, 139, 140, 163, 173, 184, 185, 195, 230
사주점 166
산통 134, 140, 165, 192, 193, 203, 228
삼선교 66, 74, 96
삼양동 82, 85, 178, 205, 219
서라벌예술대학 93
서정주 99, 100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134, 139, 140, 154, 183, 215, 223
성신여대입구역 12, 123, 130, 179, 201
소리사주 184
송오순(매화부인예언가) 186
시민아파트 86
시초점 143

02 2장.indd 248 2015-05-08 오전 11:43:07

심남용(청산철학관) 182, 195
심리상담사 139, 187
안마 120, 136, 139, 164, 189, 195, 200, 211, 233
안수길 94
여진 12, 16, 17, 18, 20
역학사 130, 131, 132, 134, 135
역학사양성교육 139, 140
영단주택 94
영도다리 174
예술마을가꾸기사업 137, 246
오정희 95
움집 77, 78, 79, 80
위생 24, 25, 27
육효 134, 140, 145, 158, 165, 175, 192, 233
윤대녕 180
윤병관(늘푸른철학원) 222
이도병(철원철학관) 131, 132, 133, 137, 178, 216
이미경(은하수여성역술원) 159, 210
이상 12, 35
이수광 137, 155
이수남(개나리역학사) 221
이육사 12, 40
이해조 161
이회택(동양철학관) 176, 233
일본인 75, 77, 132, 163, 180, 196, 215
작명 85, 135, 140, 167, 208
장수마을 91
재개발 89, 91, 112, 115, 177
전차(電車) 74, 79, 96, 178, 219
점바치골목 175
점뼈 149
정병규 98
조선맹인역리대성교 138, 162
종로3가 176, 211, 235
종암동 12, 43, 84, 120, 126, 211, 222
지하철 10, 89, 94, 178
창동·미아리 전투 55
채석장 68, 106, 118
최지몽 151
최학송 39
태복감 152, 197
택일 135, 140, 155, 167, 169, 172, 225
토막 70, 75, 76, 78, 79, 119
판수 138, 159, 160, 161, 162
판자집 78, 79, 80, 83, 85, 86, 92, 177, 213
피난민 81, 85, 87, 174, 175, 176, 216
한옥 71, 90, 92, 206
혜화문(동소문) 16, 17, 18, 68, 71, 73,
호머 헐버트 137
홍수성(홍수성작명소) 204

02 2장.indd 249 2015-05-08 오전 11:43:07